

발간등록번호

78-4810000-000181-10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여수시 코로나19 대응백서



여수시
YEOSU CITY

일러두기

수록범위

「코로나19 여수시 대응백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까지를 범위로 수록했다.

편성방법 및 수록내용

- 1. 제1편 ‘코로나19 개요’는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국내 및 세계적 발생 동향을 수록했다.
- 2. 제2편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 대응체계 ▲ 방역활동 ▲지원활동 ▲협력활동 ▲백신접종, 5개 장으로 세분화한 뒤 여수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활동을 정리했다.
- 3. 제3편 ‘코로나19 현장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시민들이 느낀 일상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으며,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통해 향후 전염병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 4. 제4편 ‘부록’은 2020. 1. 1. ~ 2022. 5. 기간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수시의 홍보활동 및 언론보도 현황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나선 이들의 후원 내용을 수록했다.
- 5. 코로나19에 대한 읍·면·동 대응(방역·지원)은 표로 약식, 정리했다.

기술방법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명칭은 ‘코로나19’로 통일했다.
- 2. 본문의 전개는 편, 장, 절, 1, 1), 가 순으로 구분하여 전개했다.
- 3. 「코로나19 여수시 대응백서」 기술에 필요한 이론이나 자료는 가능한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자료를 인용, 기술했다.
- 4. 코로나19 대응 여수시 정책이 정부와 전남도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경우, 일부 중복되는 사례도 있다.
- 5. 용어 및 표기는 가능한 한글로 표기했다.

제1편 코로나19 개관

010 제1장 코로나19 개요

- 제1절. 코로나란
- 제2절. 관련 용어

016 제2장 코로나19 발생 현황

- 제1절. 세계의 코로나19
- 제2절. 국내 코로나19
- 제3절. 여수시 코로나19

028 제3장 한눈으로 보는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제2편 코로나19 대응

제1장 대응체계 구축

039 제1절. 정부의 대응체계

- 1. 배경
- 2. 대응체계

046 제2절. 여수시 대응체계

- 1.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제2장 방역활동

060 제1절. 현장 방역

- 1. 코로나19 방역소독
- 2. 코로나19 검체이송반 운영
- 3. 선별진료소 운영
- 4. 코로나19 전화상담반 운영
- 5. 공공시설물 방문·관리 철저
- 6. 공공시설, 비대면·긴급방역 및 휴관
- 8. 집단감염 우려시설 집중관리
- 9.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 10. 해외 입국자 관리
- 11. 선거 대비
- 12. 선제 검사
- 13.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1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 및 대면처방

096 제2절. 방역 행정

- 1. 문화예술 시설 및 행사·공연 취소
및 연기
- 2. 축제 취소·비대면 온택트 관광체계
전환
- 3. 각종 교육프로그램 전면 수정
- 4.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 5. 각종 훈련 연기 및 취소
- 6. 도심 안심식당 운영
- 7.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 금지
- 8. 낭만·청춘버스킹 공연 중단
- 9. 코로나19 관련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106 제3절. 홍보활동
1.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2. 공중화장실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실천 현장점검

3.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

4.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

5.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112 제4절. 생활 속 거리두기
1. 배경과 과정

2. 세부지침

3. 여주시 ‘생활 속 거리두기’
- 123 제5절. 사회적 거리두기
1. 배경과 과정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용어 통일

3. 여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 149 제6절. 읍·면·동 방역·예방활동

제3장 지원활동

- 157 제1절. 여수형
1. 전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

2. 코로나19 격리자·확진자·사망자 지원

3. 의료·유관 기관 방역물품 지원

4. 시설 및 단체 지원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6. 관광·운수업체 및 종사자 지원

7. 취약계층 지원

8. 정책 및 행정 지원

9. 읍·면·동 지원(후원)
- 198 제2절. 전남형
1. 긴급생활비 지원

2.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3.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4. 민간인 체육시설 생활 안정자금 지원

5.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6. 전라남도 1인·10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급

7.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 203 제3절. 정부형
1.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

2.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3. 한시적 긴급복지

4. 의료기관 손실보상

5. 아동돌봄 쿠폰 지급

6. 아동 특별 돌봄지원

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8.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9.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지급 및 활동시간 연장

1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1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13.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14.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제4장 협력활동

- 215 제1절. 방역 분야
1. 민·관 협력

2. 유관기관 협력
- 220 제2절. 경제 분야
1. MICE 협력

2. 농·어촌 및 특산물 협력
- 225 제3절. 기부 및 모금
1. 코로나19 피해지역 및 주민 지원 특별 모금

2. 사회복지 생활시설 후원금 지원

3. 각종 후원 물품 지원 및 자원 봉사

제5장 백신접종

- 228 제1절. 코로나19 백신 개요
1. 코로나19 백신 작용 원리

2. 코로나19 백신 종류

3.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4. 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 체계

5.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235 제2절. 여주시 백신 접종
1. 대상자 선정

2. 인력운영

3. 선제접종 및 백신 휴가 실시

4. 추진 현황

제3편 코로나19 현장에서

- 246 제1장 코로나19 시민 체험 후기
- 254 제2장 코로나19 대응 현장 후기

제4편 부록

- 268 제1장 우리나라 감염병 현황
- 274 제2장 코로나19 영상브리핑 현황
- 276 제3장 SNS 코로나19 홍보 현황
- 284 제4장 코로나19 언론보도 현황
- 293 제5장 코로나19 후원 현황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다 해준
의료진과 유관기관 관계자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수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 공유가
시민에게 안심과 위로가 되고,
오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가족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일터를 잃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의 자유가 사라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여수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여러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쳤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과 각종 시설·단체 및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급, 공공시설물 방역, 선제검사, 전수조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담은 이 백서에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발생부터 지난 2022년 5월까지 여수시의 대응과 방역대책 등이 낱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코로나19 개요 및 현황, 제2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주요활동과 백신접종, 제3편에서는 코로나 19 위기에 함께 맞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극복을 위한 시스템, 정책, 제도를 기록한 것으로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행정의 역할을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록으로써 폭넓게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다 해준 의료진과 유관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여수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공유하여 시민에게 안심과 위로가 되고, 오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 편

여수시 코로나19 대응백서

코로나19 개관

제1장 코로나19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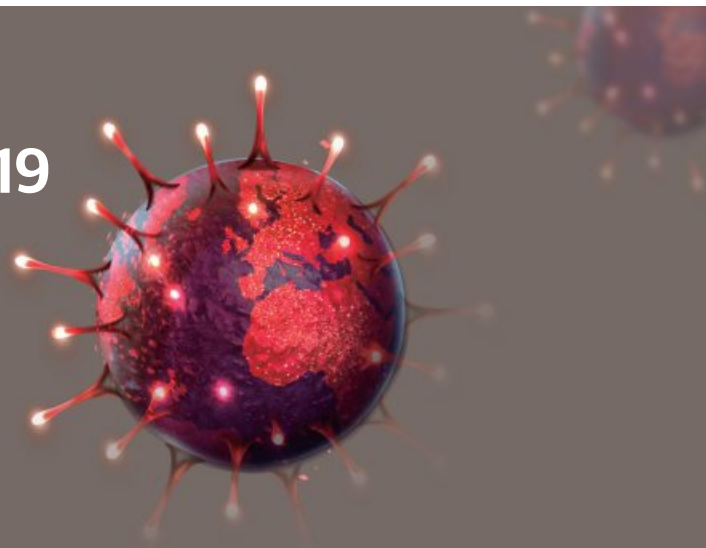
제2장 코로나19 발생현황

제3장 한눈으로 보는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개요



코로나19, 인류의 시간을 멈추다

2019년 12월, 세상은 어느 때와 다름없었다. 모두가 새해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갔다. 2020년 1월 7일, 중국 보건부가 이 환자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곧이어 첫 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 바쁘게 돌아가던 세계의 시계를 멈추어 놓은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염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계 각국도 서둘러 국경에 빗장을 걸고 방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발병 후 약 1년 만인 2021년 1월 26일, 전 세계 확진자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코로나19는 빠르게 인류의 삶으로 파고들었다. 인류와 바이러스의 치열하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01 코로나19란

정의와 어원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이다. 입자 표면에 있는 곤봉 모양의 돌출부가 왕관을 연상시켜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코로나(corona)’라는 이름을 얻었다. 과거에 발병했던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다.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도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하지만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여 ‘신종코로나’ 혹은 ‘우한 폐렴’ 등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11일, WHO가 공식 명칭을 ‘COVID-19(Corona-Virus-Disease)’로 확정했다. 2019년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됐다는 의미를 담아 뒤에 숫자 ‘19’를 붙였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2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공식 명칭으로 발표하고 약칭으로 ‘코로나19’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파경로

감염자의 비밀이 주전파 경로

코로나-19의 병원체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2m 이상 날아갈 수 있다.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유리, 지폐 표면 등에 내려앉으면 3~4일까지도 생존한다. 이렇게 생존한 병원체가 다양한 접촉을 통해 인체에 침투하면 감염 가능성이 생긴다.

- 밀접 접촉 :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할 때 나오는 비밀을 접촉한 경우
- 직접 접촉 : 감염자와의 신체 접촉, 물건 공유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한 경우
- 공기 전파 : 의료기관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 없이 장시간 접촉한 경우

증상

발열부터 무증상까지

잠복기는 평균 5~7일이며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과 미각 소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치료

예방만이 가장 완벽한 치료법

아직까지 개발된 특이치료제는 없다. 증상에 따라 해열제, 수액, 진해제 등을 공급하는 대증치료를 한다. 필요시에는 기계 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한다.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다.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등을 통한 예방만이 완벽한 치료법이다.

※ 대증 치료 :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02

관련 용어

[세계 전염병 방역 정책 관련 용어]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위의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때 선포한다.
● 팬데믹 (Pandemic)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홍콩 독감과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 엔데믹 (Emdemic)	풍토병이라고도 불리며, 종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을 일컫는다.

[국내 전염병 방역 정책 관련 용어]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감염병의 수준을 구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보의 단계별 조치이다. 정도에 따라 '주의-관심-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시작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지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표에 따라 다섯 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시설 규모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 언택트 (untact)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 앞에 부정 접두사 '언(un)'이 붙은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 KF지수	‘KOREA FILTER’의 약자로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국내 전염병 방역·의료 관련 용어]	
●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 기저질환	지병,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병을 의미한다.
● 코호트 격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조치이다. 이들을 외부적·물리적으로 격리하여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밀접접촉자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 자가격리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 칩거하여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 확진자	코로나19로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 슈퍼 전파자	코로나19 감염자로서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통해 8명 이상 감염시킨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다. 전염병 감염의 경우 80%가 슈퍼 전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 n차 감염	감염(전파)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염 단계에 따라 ‘2차 감염-3차 감염-4차 감염’ 등으로 지칭한다.

● PCR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표적 핵산을 증폭하여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환자의 침, 가래 등의 가검물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것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 방법이다.
● RAT(신속항원) 검사	스스로 또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콧물 등을 채취해 진단키트에 넣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30여 분 내에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방식이다.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병원이다.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열이나 기침 등이 심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 음압병실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의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병원체에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 병실을 의미한다.
● 코로나 블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오는 우울증.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한다. ‘코로나19’의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blue)’의 합성어이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장애로까지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의 상담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 현황

산 넘어 산, 위기의 순간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습격으로 활짝 열렸던 세계의 하늘길은 굳게 닫혔다. 국가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유럽 축구 5대 리그가 중단되고 인류 최대 축제인 올림픽이 연기되었다. 근대 이후로 전염병에 의한 올림픽 연기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소비 활동이 제한되면서 타격을 입는 업종이 늘어났다. 교류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한 우울감을 불러왔고,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등했다.

겪어 본 적 없는 위기였지만, 각국은 방역에 힘쓰는 한편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임상실험을 거쳐 드디어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이를 필두로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백신 접종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세계 (2022. 5. 10. 기준)

- 확진자 : 4억 9,809만 239명 (세계 인구 78억 7,496만 5,732)
- 사망자 : 623만 722명

출처 : 메디컬월드뉴스



국내 (2022. 5. 10. 기준)

- 확진자 : 1,761만 4,895명
- 사망자 : 2만 3,462명
- 백신 접종자 : 5,131만 7,389명 (※ 2022. 4. 30. 기준)
 - 1차 : 4,503만 9,294명
 - 2차 : 4,455만 6,687명
 - 3차 : 3,318만 8,778명
 - 4차 : 297만 1,074명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여수 (2022. 5. 10. 기준)

- 확진자 : 90,180명
- 사망자 : 94명
- 접촉자 : 2만 6,586명
- 검사건수 : 116만 3,925건
(PCR 106만 1,456건 / RAT 13만 2,469건)
- 백신 현황 : 276,762명 (※ 2022. 4. 30. 기준)
 - (1차 24만 5,823명 / 2차 24만 3,487명 / 3차 19만 8,980명 / 4차 2만 5,9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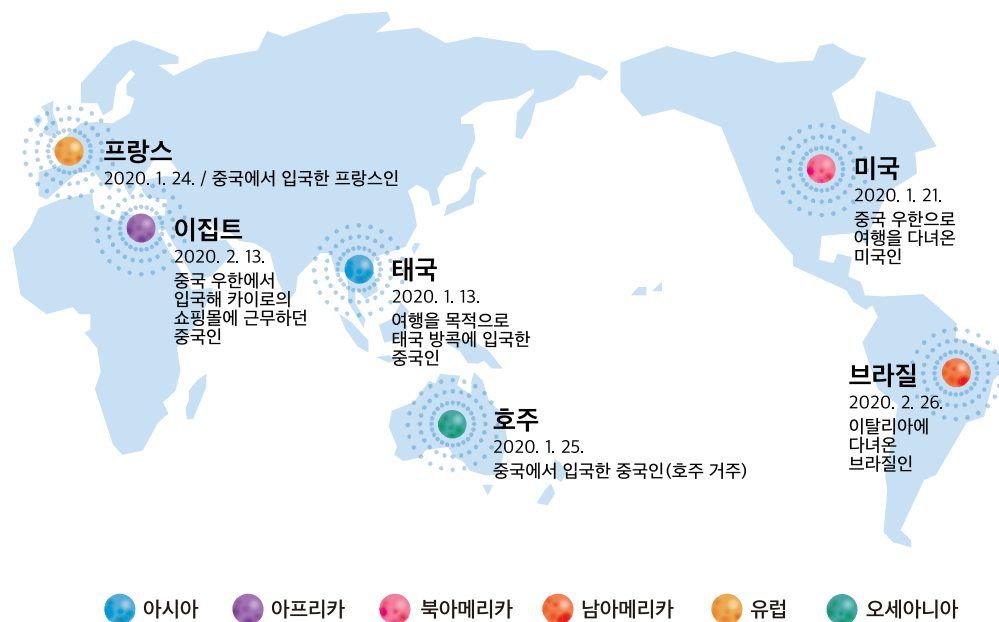
출처 : 여주시 보건소

01

세계의 코로나19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비행기가 여행객들을 태우고 하늘길을 오갔다. 비행기는 국가 간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에게도 가장 편리한 전파 수단이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의 신체와 소지품에 뒤섞여 교묘하게 각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대륙별 첫 코로나19



코로나의 시작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미상 폐렴의 집단 발생이 WHO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13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1월 17일에는 일본에서, 같은 달 20일에는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저지선이 뚫린 것은 아시아 대륙만이 아니었다. 1월 21일에는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그 충격으로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세계 경제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상황이 심상치 않아지자 1월 23일 우한시를 봉쇄했다. WHO도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방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2월 9일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811명을 기록했다. 첫 발생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견잡을 수 없는 코로나19의 전파

2020년 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동아시아 뿐 아니라 이란, 이탈리아 등지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중동과 유럽 대륙으로까지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확산세가 가파른 이탈리아는 축구 리그인 세리에A를 중단하고, 10개 이상의 도시에 봉쇄조치를 내렸다. 이란은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결국 첫 발생 나흘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 중동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자 석유 가격은 혼란을 거듭하고, 증권 시장이 급락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WHO는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다. 3월 중순에는 감염 국가가 170여 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 간 이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거의 모든 국제 행사가 연기 혹은 취소되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24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연기되면서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감염병에 의해 올림픽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변이종의 발생

1) 알파형

가장 먼저 확인된 코로나19의 변이로, 영국에서 2020년 9월에 처음 보고되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기면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1.5배 이상 전파 속도가 빨라졌고 중증도와 사망위험도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12월 28일 처음 유입되었고,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국발 변이'로 불렸다.

2) 베타형

2020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로 면역반응을 저하시키고 전염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1.5배 정도 높고 사망위험도도 증가했다.

3) 감마형

2020년 11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3개의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있어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브라질 변이'로 불렸다.

4) 델타형

인도에서 유행한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감염자 폭증을 주도했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알파 변이보다도 1.6배로 전염력이 매우 높으며 2차 감염률 또한 증가시킨다. 다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낮았다.

5) 오미크론

202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 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우세종이 된 변이바이러스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32대 보유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백신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졌다. 때문에 밀접 접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2차 감염이 발생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편이다. 다만 치명률이 매우 낮아졌다.

6) 스텔스 오미크론

2021년 12월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로 다른 변이와 구분이 어려워 '스텔스'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다행히 국내 PCR 검사는 스텔스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지 않다. 2022년 3월부터는 국내 코로나19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증도와 사망위험도는 오미크론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파생 질병 발생

소아청소년다기관염증증후군(MIS-C)

2020년 2월 무렵부터 유럽에서 보고되었던, 가와사키 증후군과 유사한 소아질환이 4~5월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되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약 4~6주 후에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5월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이 질환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아청소년다기관염증증후군(MIS-C)'이라고 명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아괴질'로도 알려져 있다.

치료제와 백신 긴급 사용승인 시작

바이러스 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신약의 하나였던 렘데시비르가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에서 밝혀지자 2020년 코로나19의 치료제로 동정적 사용과 임상실험이 시행되었고,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12월 2일에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 긴급 사용승인과 접종을 시작한 후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에 이어 미국, 스위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12월 말에는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12월 18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21일부터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시작되었다.

02 국내의 코로나19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방역에 힘을 쏟았다. 그러던 2020년 1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역 당시 이 확진자는 입국 하루 전 몸에 이상을 느껴 우한시의 한 병원을 방문했고, 단순 감기로 진단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진자의 발열 증상을 놓치지 않고 눈여겨 본 담당 직원이 PCR 검사를 실시했다. 직원의 기지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국내 유입과 대규모 감염을 막아낸 사례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방역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로써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발생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2월 26일에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며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5차 대유행



1차 대유행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해져 국내에는 소규모 감염만이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중순, 국내 방역 체계가 무너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다. 집단 감염의 시작은 2월 17일, 발열과 폐렴 증세로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찾은 60대 신천지 교인이었다.

국내에서 31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예배와 결혼식 등에 참석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특히 31번 확진자가 다녔던 신천지 교회에서는 최소 10명이 넘는 감염자가 속출하며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다.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4월 4일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수도권의 방역망에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근무하는 콜센터 건물에는 최소 400명이 넘는 유동 인구가 있었고, 결국 2020년 3월 12일을 기점으로 구로 콜센터발 확진자는 10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 건물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했지만, 경북지역에 이어 수도권의 방역 또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4월 4일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대구·경북 집단 감염이 잦아들자 이번에는 수도권발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2020년 5월 용인 66번 확진자가 주점 1곳과 클럽 5곳을 방문한 것이 밝혀지면서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특히 이 확진자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 기간이 태워 클럽을 방문한 사람만 7,200여명인데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동선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 역학조사가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클럽 방문자 중에는 학원 강사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수강생과 학부모 등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부천의 쿠팡물류센터, 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2020년 5월 25일, 직원 수만 1,300명이 넘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폐쇄된 공간의 특성상 집단 감염은 불가피했다. 결국 5일 만인 5월 29일에 쿠팡물류센터발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서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조치를 시행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는 7월 중순이 지나서야 다소 진정됐다.

2차 대유행

수도권 집단 감염이 진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8월 중순,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45번 확진자로 인한 감염이었는데, 접촉한 지 약 보름이 지나서야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었다. 게다가 밀폐된 공간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의 특성상 전파율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중 일부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 격리 기간 중 도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사랑제일교회의 주도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 종교시설,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었다. 2020년 8월에는 성북구의 한 체대입시학원에서 약 20명의 확진자가,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약 1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 파주의 한 카페에서도 약 6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었다.

3차 대유행

1차 대유행은 대구·경북지역, 2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면, 2020년 11월부터는 전국의 불특정 집단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이 주를 이루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활동력이 커진 바이러스가 느슨해진 방역 조치를 파고들었다. 거기에 알파 변이까지 출현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해외선교기관인 인터콥이 2020년 10월에 경북 상주에서 선교 행사를 열어,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로 인한 확진자가 2021년 1월 기준으로 약 500명에 달했지만, 반 이상의 검사 대상자가 PCR검사를 거부해 정확한 검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교총에서 인터콥선교회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BTJ 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 미검사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2021년 1월에는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 학교와 TCS, CAS 등 23개 교육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시설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의 지역에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4차 대유행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은 국내에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주도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는 국내에 유입되자마자 우세종이 되었다. 2021년 6월에는 홍대에서 모임을 했던 원어민 강사로부터 시작된 수도권 학원가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의 82%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잠복기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거의 모든 인원이 감염된 것으로, 승조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청해부대 집단감염은 단일공간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집단감염으로 기록되었다.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델타 변이의 확산세에 정부는 2021년 12월,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해 백신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방역을 시행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4단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원정 유흥이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풀파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5차 대유행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5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5차 대유행은 이제까지의 대유행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전파력은 매우 높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위중증으로 가는 치명률은 낮아졌다.

자가 진단키트와 신속 항원검사도 대중화되었다. 2022년 2월 3일부터는 전국 호흡기 클리닉과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원에서도 신속 항원검사를 받고 확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시작되었다. 3월에는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엔데믹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3월 30일부터는 확진자가 동네 병원과 의원을 직접 찾아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스포츠 관람장, 대중교통 등에서 음식물 취식이 가능해졌고,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며, 6월 8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되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점차 자리 잡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2년간 굳게 잠겼던 세계의 빗장도 서서히 풀려져 갔다.

03 여수의 코로나19

방역기	2020. 1. ~ 2021. 4.	신천지 사태 등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폭증했지만, 여수시의 선제적 방역으로 대규모 감염 없이 유지 (확진자 77 명)
확산기	2021. 5. ~ 2021. 12.	봉산동 유흥업소 등의 산발적 감염 및 수도권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 (확진자 966 명)
오미크론 폭발기	2022. 1. ~ 2022. 5.	1월 10일 여수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확진자 89,324 명)

여수시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초기부터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시작했다. 2020년 2월 3일에는 ‘여수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 2월 7일에는 여수시 보건소에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유증상자와 사회복지관 및 요양보호시설 종사자 등을 상대로 선제적 검사를 시작했다. 더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 혈액을 확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도 마련했다.

2020년 2월 29일 신천지발 여수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으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준비된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친 계기였다. 또한 여수시는 1차적인 방역에 그치지 않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갔다. 이에 1년 동안 확진자 77명만을 기록하며 대규모 감

염 없이 성공적인 방역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여수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증가하면서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였다. 특히 유흥주점발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수는 코로나19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에 여수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하고,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휴가철에는 엑스포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무료로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 학원, 민간 체육시설,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 더불어 방역패스 도입과 여수시민들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힘입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진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여수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된다.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는 건잡을 수 없이 여수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여수시는 ‘시민 긴급 이동멈춤 기간’을 발표하고, 설 연휴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3월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시, 확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격리 및 치료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맹위를 떨치던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29일, 코로나19 여수 확진자가 2,94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여수시는 현실적인 대책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고, 재택치료의 체계화로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2년 4월 18일부터 여수시도 정부의 방침대로 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수시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향해 한발 한발 내딛게 되었다.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에도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타임라인

2020

- 01.20. 한국 방문 중국인 최초 확진, 위기 경보 수준 격상 (관심에서 주의)
- 01.27. 코로나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위기경보 수준 격상 (주의에서 경계)
- 02.1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명칭 '코로나19' 명명
- 02.20. 첫 확진 사망자 발생, 국내 확진자 1백명 돌파
- 02.23. 위기경보 수준 격상(경계에서 심각)
- 02.26. 국내 확진자 1천명 돌파, '코로나3법' 국회 통과
- 02.2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03.15. 대구·경북 일부 지역 사상 처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
- 03.22.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15일간 운영중단 권고
- 03.30.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04.01.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 결정
- 04.20.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05.06.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 06.10. 전자출입명부(KI-PASS) 전국 시행
- 06.2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 시행
- 08.19.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강화된 조치 시행
- 08.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실시
- 09.01. 국내 확진자 2만 명 돌파
- 09.0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
- 09.1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2021

- 10.1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 11.0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 발표
- 11.07. 세분화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12.0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상향, 비수도권 2단계 상향
- 12.28. 영국에서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 첫 확인
- 02.15.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향
- 02.26. 첫 백신 접종 시작
- 06.20. 4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 07.01. 간소화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07.2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08.0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10.23. 백신접종 완료율 70% 돌파
- 11.0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발표
- 12.18. 코로나19 악화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2022

- 04.18.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
- 04.2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1등급에서 2등급으로)
- 05.02.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여수시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

타임라인

2020

○ 01.23.

의료기관 대응체계 구축

선별진료소 설치
(여천전남병원)보호복 배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 보급

○ 02.03.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시작산업단지 내 사업장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 02.11.

코로나19 전화 상담반
운영 시작

○ 02.24.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가동

● 02.28.

여수 첫 확진자 발생

○ 02.29.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설치 운영

○ 04.15.

자가격리자 국회의원 선거 투표 지원
(투표자 17명)

○ 04.16.

종교시설 방역소독약품 지원



○ 01.28.

의료기관(병원) 대책회의 개최

○ 01.30.

발열카메라 설치 운영
(여수공항, 여천역, 여수 엑스포역 등)

○ 02.01.

감염병 대응 방역대책 본부 구성 운영

○ 02.07.

여수시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시작

○ 02.10.

코로나19 관련 격리시설 지정 운영
(봉화산휴양림 22실)

○ 02.26.~03.22.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모니터링

○ 02.27.~05.31.

1차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 실시

○ 03.09.~07.11.

약국 공적마스크 5부제 운영

○ 03.11.~03.12.

공중이용시설, 취약시설,
관광지 경로당 일제 방역

○ 06.29.

임시검사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운영
(봉화산휴양림 25실)

○ 07.15.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작



- 08.26.~09.21.
2차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 실시
- 11.1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02.10.~02.12.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 02.26.
1분기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 시작
- 11.0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방역패스 시행
- 11.26.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
- 12.25.~01.02.
제1차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기간 운영



- 01.15.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준공
- 02.10.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비
재택치료 효율화 발표
- 04.14.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 및 중단
- 04.18.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 05.02.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2021

- 01.25.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구성
- 02.09.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흥국체육관)
- 03.~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간호 인력 등 26명
AZ백신 접종 시작
- 05.02.~05.05.
봉산동 소재 유흥업소발 확진자 발생 (총 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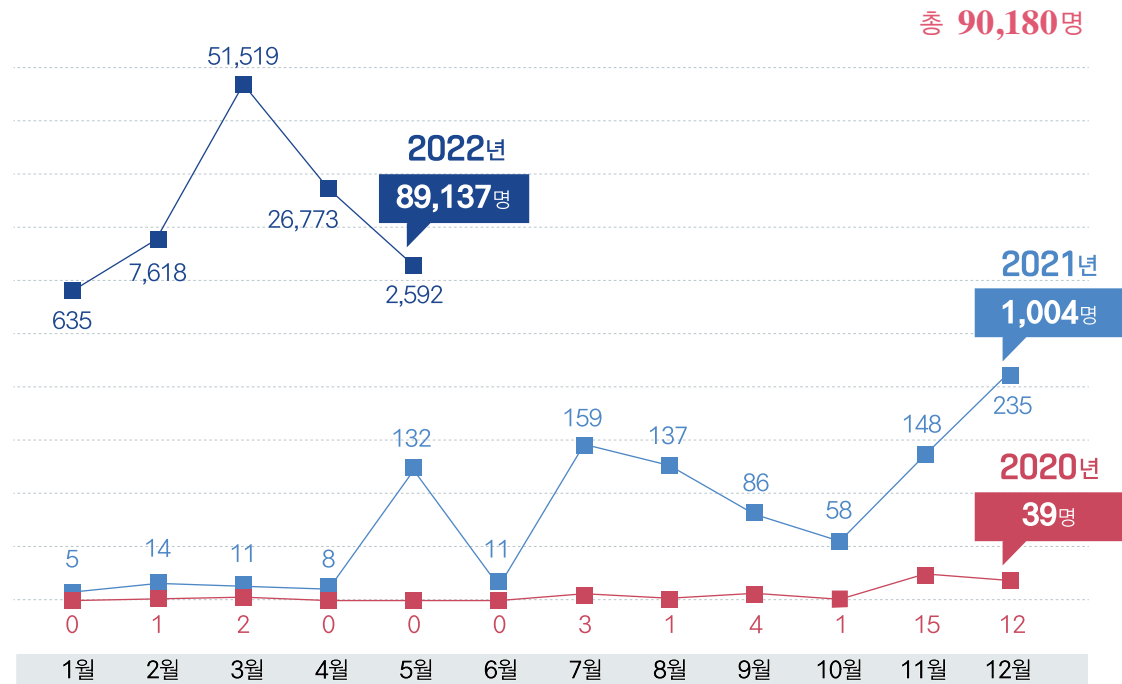
2022

- 01.10.
오미크론 확진자 첫 발생
- 01.26.~02.02.
제2차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기간 운영
- 01.28.~02.02.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 03.14.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시작
- 03.29.
코로나19 최다 확진자 발생
(2,9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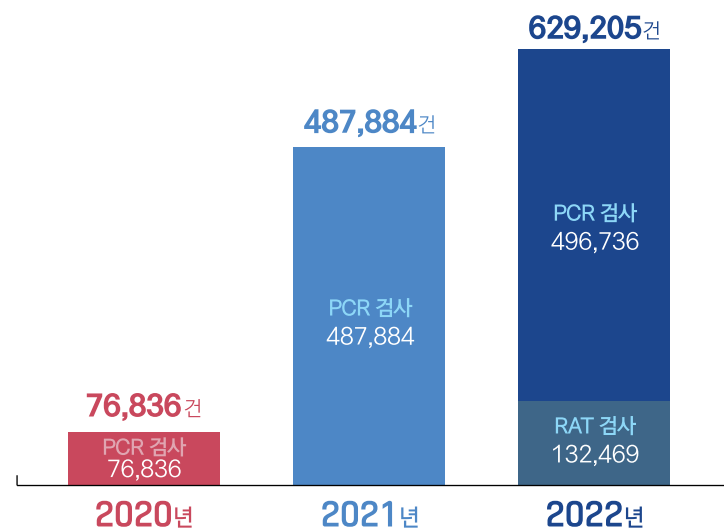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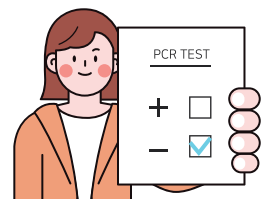
2022.5.10. 기준

여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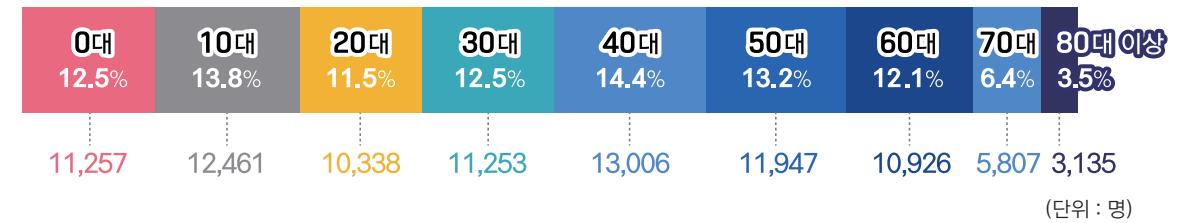
여수 코로나19 검사건수

총 1,163,925 건
(PCR 1,061,456 + RAT 132,469)



여수 코로나19 확진자 연령

총 90,180명 (100%)



구분	계	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2020	39	4	2	9	4	6	10	4	-	-
2021	1,004	101	103	149	110	151	146	156	52	36
2022	89,137	11,152	12,356	10,230	11,139	12,849	11,791	10,766	5,755	3,099

여수 코로나19 핵심지표

(2020 → 2021 → 2022.6)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명)	감염병 의심자 자가 격리(명)	자가진단키트 (개)	생필품 배송 (명)
 148 → 448 → 148	 2,172 → 10,560 → 11,464	 2,172 → 10,560 → 19,491	 863 → 15,500 → 14,670
생활지원비 신청 (가구 / 명)	해제검사 (명)	이탈자 고발 (개)	해외입국자 임시 검사시설(명)
 243 / 767 → 2,449 / 7,146 → 11,358 / 28,993	 2,169 → 10,364 → 10,652	 2 → 14 → -	 (봉황산자연휴양림) 783 → 1,077 → 100

제 2 편

여수시 코로나19 대응백서

코로나19 대응

제1장 대응체계 구축

제2장 방역활동

제3장 지원활동

제4장 협력활동

제5장 백신접종



제1장 대응체계 구축



제1절 정부의 대응체계



01 배경

대구 신천지 집회 참석 20대, 코로나19 여수 첫 확진

발생 초기 최초 발생지의 이름을 따 ‘우한폐렴’이라 불렀던 코로나19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19년 12월 1일이었다. 중국 우한시의 한 수산물 시장이 진원지로 추정되었고, 그해 말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는 27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견된 국가는 최초 발견 이후 50일 만에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알려진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 전염력이 무서웠다. 인접 국가 간 전염병에 대한 비상이 걸린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은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하며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2020년 4월에는 제19대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선거운동으로 집단 감염 우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산발적 감염에 ‘관심’ 단계를 취하며 추이를 지켜보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다시 ‘경계’로 격상하였고, 자연스럽게 전염병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은 더욱 커져갔다.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우한에 머물던 교민 367명을 전세기로 데려오는 등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갔다.

연이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2월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명의의 각 지자체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 업무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과 함께 지역적 상황에 맞게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혼선을 방지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전담부서는 자가격리자 일대일 담당자 지정과 함께 모니터링 등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다. 보건부서는 법정 사무 이행과 격리자 지정 및 해제, 보건 분야 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업무의 능동적 대처를 주문했다.

만일 격리대상자가 사유없이 이탈하는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담부서와 보건부서 직원은 경찰과 공조하여 현장을 확인한 뒤 안심밴드 착용 동의 여부 확인과 함께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시에는 시설로 격리하는 복안까지 담았다.

전라남도의 경우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5일 뒤인 2020년 1월 25일, 설 연휴 고향 나주를 찾았던 16번(여, 43세)와 함께 식사한 오빠가 첫 확진자(22번, 남, 47세)로 분류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시작됐다. 여주시 첫 확진자는 전라남도 확진자 최초 발생 한 달 뒤인 2020년 2월 29일로, 2월 16일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20대(남)가 확진자로 밝혀져 코로나는 전국적 확산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02 대응체계

1) 정부의 대응지침

정부는 코로나19의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토록 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역학조사의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거짓 진술, 거짓 자료제출, 고의사실 누락 및 은폐 금지' 등을 담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안이었다.

또 이 법률안에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조기 인지 및 발생 양상에 주력하는 한편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에 총력을 다하면서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 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2월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위기경보는 아직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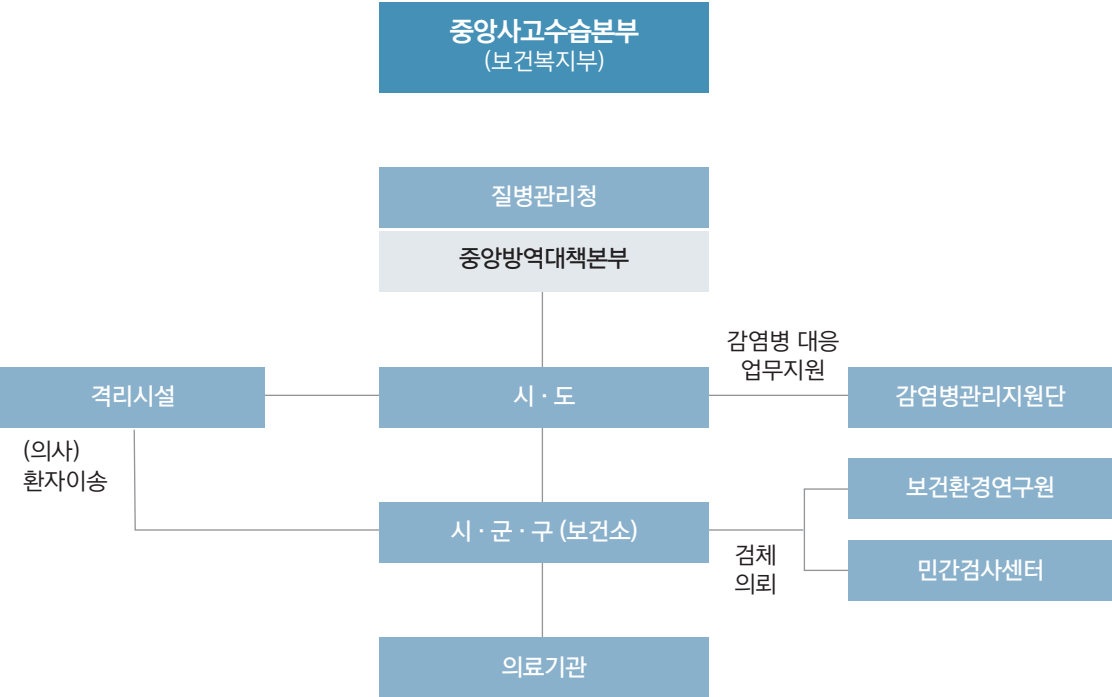
당시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과 제주 입국 잠정 중단 조치가 취해지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처방이 내려졌다. 정부는 심각 단계를 적용한 기구를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했다. 각 지자체에는 지역방역대책반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앙과 각 시·도의 업무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차관) 산하에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으며 각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갔다.

정부대응체계

위기경보단계	대 응 체 계			
	중앙			지자체
심각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전국 지자체)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범정부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중앙·지자체 업무체계



기관별 임무

관련기관	역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입원·치료,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대국민 위기소통지원(질병관리청으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거점병원 기능을 외래진료에서 입원 및 중환자 관리로 전환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필요시 재난 문자 발송 요청
질병대응센터 (권역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자체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 체계 구축 및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원지자체 단독수행이 불가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권역별 방역물자 등 의료대응자원의 공동 관리·활용 지원 등검역조사 과정의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지역 내 격리병상, 격리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보건환경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도 단위 코로나19 병원체 실험실 검사
감염병관리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도 코로나19 감시·역학조사·자료분석 등 기술지원시·도 단위 지역별 맞춤형 코로나19 관리 기술지원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코로나19 신고·보고(발생, 사망, 퇴원)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 환자관리반 : 자원관리→ 병상 배정 및 이송

3) 관리정책

감염병에 대한 관리 지침은 크게 감시와 역학조사, 관리, 교육홍보 등 크게 4가지로 구분,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관리정책 요약

감시	역학조사	관리	교육·홍보·협력
<div><div>• 환자</div><div>- 환자 조기발견</div><div>- 집단발생 조기발견</div><div>• 병원체</div><div>- 바이러스 분리동정</div><div>- 의심 바이러스 확인</div><div>- 유전자분석 등</div></div>	<div><div>• 발생규모 파악</div><div>• 감염원 및 병원체규명</div><div>• 전파 차단</div><div>• 추가 발생 예방</div></div>	<div><div>• 환자</div><div>- 치료실시, 격리</div><div>• 접촉자</div><div>- 발병여부 확인</div><div>- 필요시 격리/ 감시</div><div>• 환경</div><div>- 소독 및 방역조치</div></div>	<div><div>• 지역사회 교육 · 홍보</div><div>- 개인위생</div><div>- 사회적 거리두기</div><div>• 지자체 역량강화</div><div>•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div></div>

4)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정부는 2020년 6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인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시·도 보건연구원과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연계토록 했다.

복지부 조직도 차관 직위 1명을 추가해 복지와 보건분야에 각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했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하는 의미에서였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은 물론 감염병 발생 정보와 환자 정보분석과 관리업무를 주로 맡았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대상이나 집단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현장지원, 검역 감염병의 진단검사, 병원체 감시 등의 업무를 소화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현황

권역	관할 지역	소재지	진단분석과 (검역소 실험실)	관할 검역소	연락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서울	① 인천공항(BL3&2) ② 인천(BL2) ③ 동해(BL2)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02-361-5711 02-361-5712 02-361-5722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군산(BL2)	-	042-229-1512 042-229-1513 042-229-1527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① 목포(BL2) ② 여수(BL3&2)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	062-221-4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출장소)	제주(BL2)	국립제주검역소	062-221-4120 062-221-4121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포항(BL2)	국립포항검역소	053-550-0611 053-550-0612 053-550-0624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① 부산(BL2+) ② 김해(BL2) ③ 마산(BL2) ④ 통영(BL2) ⑤ 울산(BL2)	국립부산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051-260-3715 051-260-3716 051-260-3725

제2절 여수시 대응체계

01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1) 여수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대책본부 구성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산발적이지만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시 보건소는 2020년 2월 1일, 읍·면·동 간호 인력 24명을 포함한 4개 과 17개 반, 191명으로 감염병대응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본부장은 여수시장, 부본부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보건소장이 각각 맡은 가운데 이들은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사무실, 선별진료소 등에 분산 배치돼 임무특성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업무는 상황관리총괄반과 즉각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이송, 키트전달, 환자 이송,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소독, 공중보건의 등 지원관리, 질서 유지, 시설관리 지원, 의료기관 관리, 언론 대책, 전화 상담, 전산 입력, 방문 인원 발열체크 등 16개 분야로 세분화시켰다.



팀별 주요 업무

구분	책임자	주요업무
상황관리총괄반	감염병관리팀장 윤현정 감염병대응팀장 박병철	• 상황 총괄 관리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업무 관리
즉각대응반	감염병대응팀장 박병철	• 확진자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 실시 • 자가격리자 해제시 출장 검체 채취
선별진료소운영반	서경아 팀장(선별) 임경주 차장(검체) 서미순 팀장(접수)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선별진료(역학조사)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체 채취
검체이송반	숙박지도팀장 김경준	•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 검체 이송
환자이송반	위생민원팀장 정혜정	• 확진자 국가지정 격리병상 이송
키트전달반	정신건강팀장 김행숙	• 자가격리자 키트 전달
자가격리자관리반	건강증진팀장 김은정	•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자 관리 등 (유관기관 활용 및 환자 상담 내용)
방역소독반	김종원 차장	•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위한 방역소독
공중보건의지원관리	보건지원팀장 이정숙	• 공중보건의, 보건지소·진료소 인력 자원 관리
질서유지반	이정숙 팀장 정종균 팀장	• 선별진료소 등 질서유지
시설관리지원	시설7급 신정환	• 선별진료소 등 시설관리 및 지원
의료기관관리반	의약관리팀장 이계일	•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의료인 자원관리 및 연계협력관리 • 격리병상 운영, 진료거부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동향파악 등
언론대책반	보건행정팀장 손용봉	• 언론보도 자료 작성 • 언론 브리핑 통한 상황보고 및 각종 유언비어 등 가짜뉴스 대응
전화상담반	만성질환관리팀장 주은주	• 코로나19 관련 민원 전화 상담 및 접수 • 유증상자 선별진료소 안내 등
전산입력반	의료기술8급 오시내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보고대상 입력 • 전화상담, 선별진료소 방문자, 역학조사시행 관련 취합 자료 작성
방문민원발열체크반	보건9급 이영현	• 보건소 방문객 대상 발열 체크 및 발열 감지자 선별진료소 안내

2) 산업단지 및 수산업계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산단사업장 코로나19 방지 특별점검반 운영

여주시는 2020년 2월 3일, 하루 3만여 명이 출·퇴근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산단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산단사업장 코로나19 방지 특별점검반을 만들었다. 산단업무를 관장하는 여수시 산업지원과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이 주축이 된 가운데 여수국가산단과 작·간접적으로 연관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오천산단협동조합, 화양농공단지협의회, 울촌해룡산단협의회, 건설업협의회, 한국노총여수지역지부,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등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나섰다. 대상 사업장은 4개 산단 437개 업체(여수국가산단 294, 울촌1산단 46, 오천산단 40, 화양농공단지 19)로 여수시와 산단업체, 공장장협의회, 노동단체, 건설업협의회가 공동 대응기로 한 것이다.

특히 공장 신·증설 중인 GS칼텍스 MFC현장과 LG화학, Y2C, YNCC현장의 경우 대정비로 1일 약 2만 여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바람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한 우려와 긴장감은 더욱 컸던 상황이었다. 또 산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가동중단에 따른 막대한 재정손실과 근로자 간 밀집 사업장이 많아 코로나 집단감염에 따른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어서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변경사항을 전파하였으며 명절 연휴 기간에는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 운영하기도 했다.

특별점검반 9개 기관은 단체 대화방(카카오톡)을 만들어 코로나19 상황 정보를 공유하면서 4개 산업단지 44개 업체에 근무하는 21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진단검사(전원 음성)와 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더불어 75회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별 변경사항을 전파했으며 매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발열체크, 업체 휴게실과 구내식당 85개소에 대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갔다.

근로자 가운데 대구나 경북지역을 다녀온 32개 업체, 332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출장 및 휴일 관외 방문 자제를 당부하면서 복귀 시는 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인근 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통근버스 지정좌석제,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지정좌석제 ‘호평’

산단사업장 특별점검반의 활동 가운데 GS칼텍스 MFC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근버스 지정좌석제 운영과 통근버스 탑승 시 사전 발열 체크 후 차량 탑승을 유도한 사례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산단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와 점심시간 시간분할제, 식당 지정좌석제 운영 등은 근로자 간 접촉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장 근로자 컨테이너 휴게실 실명제 도입, 확진자 발생 시 근접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진단검사를 독려해 집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빛나기도 했다.

선원 임시생활시설, 수산사업장 담당지정제로 체계적 인력 관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수산업 분야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2020년 6월 24일, 해양수산부의 항만방역 등 관리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해외입국 선원에 대한 격리가 의무화 되면서 여수시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본국 귀국 전까지 임시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운영했다. 이에 필리핀 289명, 인도 157명, 미얀마 117명 등 총 753명의 입소자가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43일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임시생활을 했다. 이러한 임시 생활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후 2021년 10월 27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근해어선, 연안어선, 수산물 냉동냉장업, 양식어업 등의 수산업 사업장 36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대책이 수립되었다. 이들 사업장에는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사업장 방역 및 근로자 관리상황, 행정명령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2년 5월 2일까지 지속된 담당 지정제를 통해 총 12,409회 분의 자가진단키트를 배포하기도 했다. 사업장 특성상 도서지역, 해상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담당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코로나19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수시는 2020년 2월 3일, 본청 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대한 총력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시장이 차장을, 보건소장은 통제관, 건설교통국장은 총괄지원반, 재난안전과장은 지원담당관, 보건행정과장은 담당관 임무를 각각 맡았다.

총 19개 부서와 방역대책본부 4개소, 15개의 각 지원부서로 꾸려진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협조사항 지원을 우선으로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지원과 예방을 위한 각 부서 및 협업기관 역할 조정을 하면서 예상 상황을 종합한 뒤 이를 중앙이나 관련 기관에 정보를 공유해갔다. 또 부서나 기관별 사전 대응 활동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필요 시에는 재난관리자원 등 자재와 정비를 도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비나 위기 때마다 긴급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전염병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썼다.

관광철 쏟아지는 방문객 대상 방역활동 ... 휴일도 반납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2월 3일부터 6차례에 걸친 긴급회의 21회와 기자회견 18회, 국소단장 일일 상황보고 532회, 영상회의 593회 등을 가지며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부서별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길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차단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컸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가장 큰 수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2020년 2월 7일 이후 코로나 청정지역에다 관광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여수였기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도 상춘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휴일이나 연휴를 잊은 채 관광객들과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공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해 나갔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소독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생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영향을 받아야 했던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추진일지

2020	1. 21.~ 2. 24. 2. 26. 2. 26. 3. 2.~ 8. 21. 9. 24. 11. 13. 11. 9. 12. 16. 12. 20.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중앙·도·시)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당부 권오봉시장 기자회견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시장주재 긴급회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부서 확대 운영 코로나19 대응 국소단장 일일상황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입장문 발표 코로나19 대응 추석 연휴 부서별 방역대응 보고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민관 합동 방역동참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방역 정부합동 특별점검 실시
2021	1. 7. 1. 15. 2. 15. 5. 4. 5.17.~5.23. 5. 24. 7. 16. 7. 22. 7.26.~8.1. 7. 30. 8. 23. 9.9.~9.22. 9. 26. 9. 30. 10. 20. 11. 1. 11. 7. 11. 22. 11. 24. 12.7.~1.2. 12. 13. 12.25.~1.2. 12. 26.	「사회적거리두기」 도내 시·군 간 교차점검 실시 코로나19 여수시민 감사서한문 발송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행 여수시민 '긴급멈춤주간' 운영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시행 여수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 코로나 극복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운영 코로나19 특별 방역비상대책회의 민관 합동 코로나19 방역동참 캠페인 실시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실시 코로나19 대응 취약분야 긴급대책 회의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 관계부서 영상회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시행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 대책 회의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 참석부서 확대 초등학교발 다수 확진 관련 긴급 대응 회의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연말연시 모임 및 이동자제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 멈춤' 운영 목욕장 및 유흥주점 코로나19 발생 긴급대책 회의
2022	1.10.~1.12. 1. 16. 1. 23. 1.26.~2.2. 1. 31. 2. 6. 2. 7. 4. 21.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외국인근로자 확진 대응 관계부서 긴급대책회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 관계부서 긴급대책회의 오미크론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 이동 멈춤' 운영 설 연휴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영상회의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서 긴급대책회의 오미크론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계획 관련 영상회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시설운영상황 점검회의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4) 역학조사

전파 위험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원을 파악하고 전파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부터 감염병관리팀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역학조사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2일 전부터 이동 동선, 카드결제내역, GPS 추적 등을 조사하여 동선에 대한 CCTV확인 및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만전을 기울였다.

확진자 역학조사, 1일 평균 2천여 명 · 최고 2,900여 명

하지만 2021년 유흥업소 종사자 확진 등 확진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력 부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2021년 7월 23일부터 27개소 읍·면·동의 간호 인력을 일부 동원해 2주 교대로 보건소 역학조사 지원팀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2021년 5월에는 확진자 증가로 심폐소생술 교육실을 역학조사 상황실로 개조, 근무실로 사용했다.

2022년 1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PCR 검사 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확진 인정이 되면서 관내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었다. 이에 27개소 읍·면·동 간호인력 전원이 역학조사 등 코로나 대응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보건소 업무도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모든 직원이 역학조사에 투입되어 하루 평균 2천여 명, 최고 2,900여 명의 확진자 역학조사를 수행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최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해 기존에 1:1로 확진자를 담당하던 체계를 변경해 확진자 본인이 휴대전화로 직접 입력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 방법이 변경되었다. 이에 하루 2천여 명의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의 거짓 진술,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자가격리로 인한 불만사항이 발생해 역학조사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역학조사원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졌다. 이들은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2022년 5월에서야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5) 즉각 대응반 운영

'22년 5월까지 6백회 넘게 출동, 역학 및 방문조사 펼쳐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곧바로 확진자 역학조사는 물론 접촉자와 환경관리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즉각 대응반도 편성, 운영했다. 즉각대응반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대응팀이었다. 만일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면 질병관리청과 전라남도 역학조사반 합동으로 조사하는 계획도 세웠다. 2020년 2월 28일 여주시 보건소에 설치된 즉각대응반은 보건사업과장이 총괄 반장을, 감염병대응팀장이 반장을 각각 맡았으며 역학조사반(11조 22명), 자가

즉각대응반의 주요 업무와 역할

단계	주요업무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접촉자 정보를 통해 규모, 경위, 증상발생 후 동선 등 파악 • 접촉자 즉시 자가격리 조치, 유증상자는 신고 후 검사 실시 • 집단시설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대응 시행 고지
현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상황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역학조사 계획, 우선순위 등 설정 • 업무분장 • 역학조사 : 환자 동선과 감염경로 파악하고 및 시설·환경 관리 • 현장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적절한 소독조치 전까지 일시 이동제한 조치)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폐기물관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 관리(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 접촉자 자가격리, 증상 능동감시 •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시설 폐쇄, 접촉자 격리 등 조치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 보고(1일 1회) • 사망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격리 해제 검사반(10조 20명), 방역소독반(2조 4명) 등 3개 반, 26명(보건행정과 8명, 식품위생과 4명, 건강증진과 6명, 보건사업과 8명)이 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 현장대응팀은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동시에 CCTV, GPS,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 등 접촉자를 파악했다.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여부도 결정했다. 확진자 방문 장소는 방역소독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1차 임시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과정과 관내 발생지역에서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와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정이나 격리장소를 직접 찾아가 검체를 채취했다. 또 해외 입국자와 접촉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 격리해제 전날인 13일째에 격리장소를 방문, 다시 검체를 채취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즉각대응반 설치 이후 2021년 3월 말까지 출동 및 역학조사는 총 415회 실시했으며, 10개 조 22명을 투입해 해외 입국자와 접촉자 3,663명에 대한 방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여수시에서 해외 입국자의 임시 격리시설로 사용하던 봉황산자연휴양림이 보건소와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근무시간 외 입국자에 대한 검체 실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전날에 최종 검사를 위해 자택 등 격리장소를 방문하여 검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특히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때에는 음압병상이 있는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까지 이송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고 치료 후나 격리해제 시 귀가조치를 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방역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잖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인력이 부족해 전문분야가 아닌 기간제, 공무원, 정규직 등 다양한 인력이 즉각대응반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초과근무가 되지 않는 기간제와 공무직은 주중 근무시간에만 업무가 가능해 현장 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자연스레 정규직에게 출동이 집중되어 업무 수행과 과로로 인해 즉각대응반에 편성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하지만 즉각대응반 운영 초기 역학조사반(2조 4명), 접촉조사반(3조 6명)으로 운영하다 2020년 4월 초 중국과 유럽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검사 업무를 즉각 대응반에서 수행하면서 역학조사와 접촉자조사반을 5개 조 10명으로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인력난을 유연하게 대처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갔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2022년 2월 7일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를 시행하게 되면서, 즉각대응반 출동 역학조사업무는 중단하고 자가격리 해제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즉각대응반은 2022년 5월까지 총 611회 출동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4,961명의 해외입국자와 접촉자의 방문 검사를 시행했다. 업무를 역학조사와 현장대응팀으로 이원화시켜 확진자 등의 정보파악은 물론 시설물관리, 행정명령 등 일련의 행정 조치들을 감염병관리팀이 전담 수행하여 대응 능력을 키웠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의 역학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늘려야한다는 숙제를 얻었다.

6)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 운영

자가격리자가 생기면서 여수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시미화과장을 총괄로 하며, 1일 1명의 담당자가 배치되어 자가격리자가 음성 판정 시 “생활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라 수거해 처리하도록 했다.

•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7)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대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시작된 2020년 3월 6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시는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아 공동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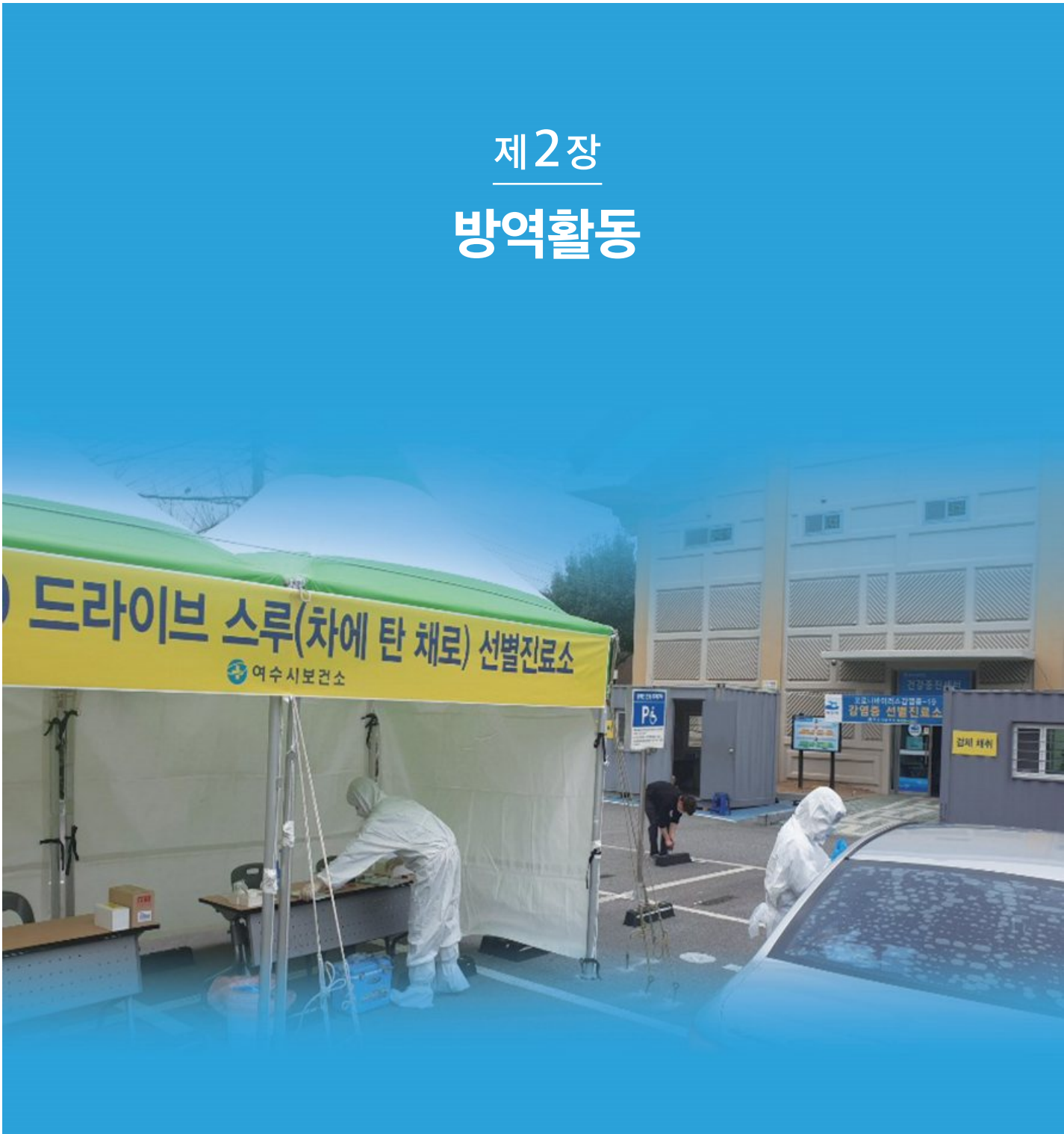
2020년 10월에는 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코로나19 예방·방역물품을 시설별, 역할별로 구분하여 중복 구입을 방지하고 공동 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에도 힘썼다.



☉ 코로나19 공동대응 물품구입 현황

구분	품목	수량	비고
여수시	워킹스루 부스 덴탈 마스크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물티슈 라텍스 장갑	3대 600박스(50매) 24박스(500매) 500개 600개 405박스(100매)	보건소 재난안전과
순천시	전신소독기(소독 부스) 워킹스루 부스 자동 손 소독기 이동형 에어컨 수술복(상하의)	1대 3대 5대 3대 200개	보건소 순천의료원
광양시	KF-94 마스크 체온계	80박스 160	관내 어린이집

제2장
방역활동



제1절 현장 방역

01 코로나19 방역소독

'20년 2월부터 방역소독 활동 본격화

2020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정부는 비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은 2.5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를 썼다. 이 기간 동안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으며 타 지역 이동이나 귀성, 여행, 모임 자제 등을 요청했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이나 식사, 소모임을 일절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끝나던 2020년 2월 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지역 128명을 비롯해 경기 82명, 인천 8명, 강원 7명, 충남 5명, 충북 18명, 전북 2명, 전남 3명, 광주 24명, 경남 11명, 경북 10명, 부산 12명, 대구 12명, 울산 1명, 제주 1명, 검역 12명으로 336명이 증가한 7만 8,84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224명이며 사망자는 10명을 더해 총 1,435명(치명률 1.82%)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일부 업종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 등을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여수시는 다행히 아직

장소별 방역활동

계	다중 이용시설	취약시설 경로당 등	임시 검사시설	아동 시설	상가 밀집	관광지	기타 시설
4,804	1,903	1,458	180	215	138	124	786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2월 1일 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 코로나19 임시검사시설, 관광지 등으로 사람들로 붐비는 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거주 공간에 대해 신속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3,054회에 걸쳐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연안여객터미널, 경로당, 관광지, 노래연습장, 상가, 교습소, 교회, 학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도서지역·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또 읍·면·동에 살균소독제 1,296통을 배부하였으며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시설, 아동생활시설, 대학교 기숙사, 대합실 등 1,000여 개의 시설에 방역소독용 살균소독제 1,920통(락스 2L용)을 배부하기도 했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교회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용 약품 1,570통(알콜 4L용)을 지원,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락스 1.5L용 6,349통을 지원하여 수시 소독을 독려했다.

2020년 3월 11일부터는 이틀간 군과 경찰, 여수시 합동으로 시가지 다중시설과 상가 밀집지역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활동을 벌이며 올바른 소독방법,

소독의 일반원칙, 환기, 냉·난방기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며 코로나19 예방활동 전력을 다했다.

방역물품 구입이 어려운 도서 지역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친 2022년 상반기까지 배부된 방역물품은 자가검사키트 3만 6,940개, 마스크 119만 4,000개였다. 또한 음식점과 관내 사업장에는 현수막 배너 1,100장, 포스터 1만 2,500매, 전단지 14만 6,000매를 배포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방역을 독려했다.

○ 방역활동 주요일지

- 2020. 1. ~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용 방역물자 배부
(보호복, 장갑, 페이스선퉴드, 고글, 마스크, 헤어캡, 덧신 등)
- 2020. 1. ~ ○ 여수엑스포역, 여천역, 여수공항, 전남대학교 발열카메라 지원
- 2020. 3. ~ ○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봉황산) 방역물자 배부
- 2020. 6. 15. ○ 여수경찰서 보호복 배부
- 2020. 7. 13. ○ 여수교육지원청 손소독제 배부
- 2020. 7. ~ ○ 읍·면·동 민원창구 비밀차단 투명 아크릴 설치
- 2020. 8. 25.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역물자 배부
- 2020. 1. 21.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방역물자 배부
- 2020. 2. 10. ○ 해외입국자 운송차량 보호복, 마스크 배부
- 2020. 2. 25. ○ 여수 7391부대 방역물자 배부
- 2020. 3. 19. ○ 신기항 발열 감시용 라텍스 글러브 배부
- 2020. 4. 25. ○ 여천시외버스터미널 손소독제 배부
- 2020. 8. 31. ○ 여수소방서 방역물자 배부
- 2020. 11. 30.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0. 1. 17. ○ 외국인 고용사업장 검사용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0. 2. 9.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선제검사용 자가진단키트 1차 배부
- 2020. 2. 16. ○ 도서지역 보건지소 방역물자(방호복, 키트 등) 배부
- 2020. 2. 21.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선제검사용 자가진단키트 1차 배부
- 2020. 3. 4.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선제검사용 자가진단키트 2차 배부
- 2020. 3. 15. ○ 코호트격리시설 5개소 방역물자 배부
- 2020. 3. 18.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선제검사용 자가진단키트 2차 배부
- 2020. 3. 18. ○ 코호트격리시설 4개소 방역물자 배부
- 2020. 3. 24. ○ 코호트격리시설 2개소 방역물자 배부
- 2020. 3. 31.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선제검사용 자가진단키트 3차 배부
- 2020. 3. 31. ○ 코호트격리시설 2개소 방역물자 배부
- 2020. 4. 1. ○ 코호트격리시설 2개소 방역물자 배부
- 2020. 4. 25.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선제검사용 자가진단키트 3차 배부
- 2020. 4. 26. ○ 건강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0. 4. 27. ○ 요양병원 12개소 방문면화자용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0. 5. 2. ○ 장애인시설 27개소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0. 5. 4. ○ 노인시설(복지관 등) 68개소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0. 5. 6. ○ 아동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0. 5. 10. ○ 외국인주민지원단체 4개소 자가진단키트 배부

02 코로나19 검체이송반 운영

여수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체이송반을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3개 과 14명이 순환 근무하며 1일 2명이 투입된 검체이송반은 코로나19 환자 가검물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 공무원 14명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별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이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214회 2만 5,944건을, 2021년에는 4만 6,715건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송했다.

03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첫 발생 후 드라이브스루 방식 추가 ... 검사시간 단축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6일 여수시보건소 주차장 내에 몽골텐트와 컨테이너를 활용한 검체 채취시설을 설치한 뒤 2020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선별진료소는 주간 4명, 야간 1명 등 하루 5명이 일하며 총 19명이 번갈아 근무했으며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가 배치돼 검체를 채취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채취한 검체는 4℃로 유지하여 수송배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된 뒤 3중 포장하여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검사를 의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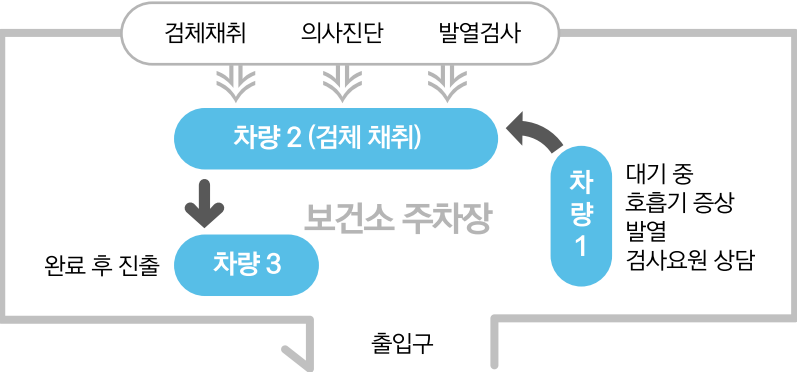
여수지역 첫 확진자 발생한 2020년 2월 29일, 검사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자 선별진료소에 드라이브스루를 추가로 설치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선별진료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선별진료 건수 증가나 선별진료 인원 동선에 따른 환경소독 공간 축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 2차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컨테이너 내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2020년 3월, 해외 입국자와 더불어 관내에서 2명의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오자 선별진료소 업무는 더욱 가중됐다. 이에 6월 들어 보건소 인원 19명과 중부보건지소 인원 23명을 더한 42명이 검체 채취반으로 추가 투입되었다. 7월에는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보건소 직원 18명과 중부보건지소 20명 등 총 38명이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를 맡아 처리했다. 격리지역인 봉황산 자연휴양림으로 일종의 출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2월 21일에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 여수항을 방문한 거대 상선이 22일 새벽, 출항을 앞두고 선원의 고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이를 후에 나온다는 기관들의 말에 배 관계자가 애를 태우자 여수시가 국립 여수검역소에 신속 검사를 요청, 배를 출항시킨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요양병원과 요양원, 80대 이상 응급 폐렴환자 등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과 함께 여수검역소 검사소를 통해 102명을 신속히 검사해 병원 입원과 상급기관 전원 조치로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다. 근무자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레벨D(보호복) 및 2시간 이상의 마스크 착용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선별진료소 근무자와 역학조사 대상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고, 도 역학 조사관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애로사항은 늘어만 갔다.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핵심사업 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기준
선별진료소 운영(개소)	2	15	10
선별진료소 이용 인원(명)	76,836	487,884	629,205

●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흐름도





확진자 급증, 진남경기장·국동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하지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시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진남경기장, 국동항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했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유증상자와 확진자를 분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1월에는 산발적인 학교 감염을 막기 위해 진남경기장과 망마경기장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열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2022년 1월, 여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자, 선별진료소는 덩달아 분주해졌다. 오미크론 우세지역 검사·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진남경기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텐트를 추가로 설치해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2년에만 신속항원검사 13만 2,469건과 PCR 검사 62만 9,205건이 시행되어 방역의 빈틈을 메울 수 있었다.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 준공

신종 감염병과 전파력이 강한 호흡기 질환 대응을 위해 여수시는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2021년 착공해 2022년 1월 준공 후, 2월부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04

코로나19
전화상담반
운영

2020년 2월 초,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전화상담 민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2월 11일 보건소 3층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내에 총 10명으로 '코로나19 전화상담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코로나19를 둘러싼 가짜뉴스나 유언비어가 많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던 상황이었다. 예상대로 코로나19 상담 전화는 폭주했다. 대부분 해외 입국자로 사전 안내조치와 임시검사시설, 자가격리 등 과정을 묻는 전화상담이 주를 이뤘다. 2020년 3월 말 기준, 상담 건수는 총 1만 9,762건으로 미국 입국자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97건, 중국 187건이었다. 코로나19 전화상담반은 자가격리까지의 전 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입국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일관성있는 행정 추진에 큰 힘을 발휘했다.

여수시는 2021년 1월부터 시청 콜센터와 민간 콜센터(대화도시가스, 식스대리운전, 69대리운전)등의 콜센터에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상황정보 제공을 위한 전담상담사를 배치했다. 또한 상생국민지원금 안내를 위한 전담상담사 3명도 배치했다. 콜센터 직원들은 시민 공지와 상황 문의에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로 만족도를 높였다.



또 여수엑스포역과 여천역은 1일 3교대를 통해 24시간 발열감시 근무요원을 투입했다. 여천시외버스정류장과 여수공항, 신기항, 백야항에 대해서는 많게는 1일 2개조를 투입해 대중교통에 대한 선제적 발열 검사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3월 한 달 동안 1일 6명씩 근무조를 편성(총 174명 투입)해 여수지역을 방문하는 승객 전원을 상대로 발열검사를 실시했다.

매일 민원인들이 찾는 본청사와 여서청사, 문수청사, 보건소, 교통관제센터는 전문방역업체를 동원해 매주 수요일 방역과 함께 화장실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으며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주력했다.

2월 말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본청과 27개 읍·면·동, 9개 별관(출장소 및 자치센터) 모두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 발열 체크 및 출입 통제 가능한 안면인식 발열체크기 총 36대를 도입, 설치했다.

청사 외곽에 대한 경계도 강화했다. 2020년 3월 5일에는 본청사, 여서청사, 문수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건물 외곽에 발열자 검출을 위해 각각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주 출입문을 제외한 출입구는 모두 봉쇄했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던 발열 감시 근무는 2022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다.

05

공공시설물
방문·관리 철저

비접촉 발열체크기·열화상카메라 도입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초기 방역활동의 초점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함께 접촉을 피하거나 불안요인을 차단하는데 맞춰졌다. 여수시는 2020년 초 학동 1청사는 물론 민원실과 문수청사, 여서청사, 여수시의회, 보건소, 중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이순신도서관 등 모든 청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1일 26명의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투입해 방문자들의 발열을 감시했다.

06

공공시설, 비대면·긴급방역 및 휴관

1) 종합사회복지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출입자 명부 관리 만전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주된 전파경로가 대면이나 직접접촉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먼저 공공시설에 대한 비대면 또는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용자가 많은 쌍봉, 소라, 문수, 미평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20년 1월 31일부터 감염관리 책임자(방역관리자)를 각각 지정함과 동시에 종사자 및 이용자 출입자 명부를 작성했다.

시설종사자들에게는 1일 2회씩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며 매일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당부했다. 손세척제를 비치하고 소독 및 환기, 체온계 사용을 일상화시켰다. 식사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고 띄어 앉기와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실내외 프로그램은 4㎡당 1명의 기준을 세워 운영토록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프로그램은 축소 운영하거나 중단했다. 2020년 2월 26일 이후 긴급돌봄서비스는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제공했고, 이날 이후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1차 휴관 및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결식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에는 대체식과 도시락을 5일분씩 33회 제공했다.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봄꽃 식재와 대청소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친데 이어 6월 5일까지 마스크 4,000장 제작과 함께 시설별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을 재개했지만 7월 7일, 2차 휴관과 함께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8월 8일 3차, 11월 16일 4차 휴관을 거친 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 2월 1일 다시 문을 연 뒤 2021년 3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휴관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2021년부터는 기저질환자 2명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솔선수범했다.

2) 복지시설

사회복지 생활시설 11개소, 1:1 전담 공무원제 운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던 2020년 2월, 여수시는 여성복지시설 5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개소, 청소년시설 2개소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일대일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며 관리했다.



전담 공무원들은 매일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발열 체크와 함께 체크리스트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애로사항 청취, 건의사항 반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2020년 한 해 308일 동안 3,388회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나섰다.

여성과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특별했다. 총 4개소인 여성복지이용 시설의 경우 2020년 1월 30일 이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뒤 매일 시설 내 소독과 청소, 환기를 통한 전염병 예방에 나섰다. 종사자 및 시설물 이용자들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점검도 생활화했다. 불필요한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타지역 방문자나 방문자 접촉 시에는 시설 이용을 만류했다.

이후 여수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격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자 시설물에 대한 휴관 조치를 취했다. 2020년 2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8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모든 여성복지시설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정상 출근해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대면이 불가피한 의료나 법률 분야 등 일부 프로그램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등 휴관에 따른 이용 공백 최소화에도 공을 들였다.

노인복지시설 34개소, 1:1 간부 공무원 전담제 운영

여수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노인 생활시설에 대한 1대1 간부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도움과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 제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 총 34개소가 대상이었다. 이들은 2021년 3월까지 총 178회에 걸쳐 시설을 방문하여 발열 체크 및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시설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정성을 다했다.

2020년 4월에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숙박비 등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에 여수시장과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후원금을 마련해 5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2,040만 원을 전달했다.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제한적 접촉면회 시 입소자와 가족에게 보호복, 신발커버,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을 지원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금강원 역시 종사자 15명과 사회복지무원 3명에 대한 선제적 PCR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2021년 11월부터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해 생활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했다.

3)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2020년 1월 말부터 상당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2019년 12월, 웅천지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최신식 도서관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문을 열었던 이순신도서관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대면으로 운영돼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전남동부권 최대 규모인 이순신도서관은 1층에 난중일기가 전시돼 도서관과 박물관 기능을 합친 '이순신 라키비움'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화면을 보며 조종할 수 있는 거북선이 있어 이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2층에는 3D프린터를 경험할 수 있는 '상상창작소'가, 3층과 4층에는 평생학습실 등이 자리하며 4차 혁명기술이 집약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온라인 대체·도서대출 24시간 드라이브스루 운영

이처럼 이용자들의 큰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이순신도서관은 코로나19 정국으로 프로그램 또한 '상상창작소',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 아카데미'의 3개로 축소 운영했다. 그마저 '길 위의 인문학'과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연으로 대체했다.

그중에서 '상상창작소'는 코딩교육, 무한상상 창조교실(3D 프린터 활용), 크리에이터 창작소(인 미디어 영상 제작 및 편집교육), 키즈 앤 로봇코딩(로봇코딩 체험교육) 4개 강좌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 운영했다. 2020년 136회, 1,118명이 참여했으며, 2021년 들어 3월 말까지 32회, 25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순신도서관은 2020년 3월부터 도서 대출 회원을 상대로 24시간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고 일반자료실 소장 도서 예약 수령과 자율 대출 반납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순신도서관을 비롯한 쌍봉, 환경, 돌산, 소라, 율촌 등 6개 여수시립도서관은 4차례(2020.2.27.~5.4./ 7.7.~7.20./ 8.22.~9.27./ 2022.1.29.~2.6.)에 걸쳐 휴관하기도 했다.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37개소, 이동도서관(새마을) 임시 휴관도 병행됐다.

여수시청에 '스마트도서관' 오픈 '호응'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용은 가능하더라도 자료실과 학습실 이용은 중단하였으며 이순신과 쌍봉도서관 구내식당은 문을 닫았다. 도서관 특성상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북드라이브 및 무인예약 대출기를 활용한 도서 대출과 디지털도서관(전자책,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 더불어 2021년 2월에는 여수시청 1층 후문 로비에서 신간·청림도서 400권을 구비해 여수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들이 비대면으로 자율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대략 1,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1,708권의 도서를 이용했다.

4) 시청 내 시설

가. 구내식당

한 방향 식사·투명 가림막 설치

하루 500명 안팎이 찾는 여수시청 내 구내식당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여수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월 2회였던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4회로 확대했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도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자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

시설운영은 비대면체제로 전환했다. 3월 9일부터 마주보기 식사를 금지한 '한 방향 식사'가 추진되었으며 개인용 위생 비닐장갑을 사용해 음식을 담았다. 식당 대기 줄 역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대화는 금지토록 했다. 배식 때나 식사 중 대화도 금지했다. 이에 앞서 3월 4일부터는 외부인들의 구내식당 출입도 차단했다. 8월 들어 투명 가림막을 설치, 운영하는 등 구내식당도 철저한 위생과 청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나. 직장 어린이집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7일, 전체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한 시청 직장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를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등으로 교육했다. 직장어린이집 현관에서부터 발열 체크 후 영유아와 부모 출입을 가능토록 했으며 손 소독제와 소독액, 마스크(영유아용, 교직원용), 발열 체크기를 지원했다.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2회의 발열 체크를 실시해 만일 37℃가 넘을 경우 곧바로 귀가 조치와 함께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휴원 기간에도 재난안전 앱 '안전 디딤돌'을 통해 수시로 코로나19 상황을 알렸다. 전체 교직원들에게는 문진표를 작성토록 했다. 또한 이동 동선을 관리해 접촉 우려 시에는 영유아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5) 여수시 보훈회관

여수시의 보훈단체 8곳이 자리해 유동인구가 많은 보훈회관도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여수시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통보했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휴관이 불가피해졌다.

보훈단체별로 3회에 걸쳐 마스크 1만 150장이, 1회에 걸쳐 신속항원키트 200개도 배부했다. 적극적인 방역과 휴관 조치로 보훈회관 내 집단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보훈회관
휴관기간

휴관일	운영재개
2020. 3. 3. ~ 2020. 8. 2.	2020. 8. 3.
2020. 8. 22. ~ 2020. 10. 12.	2020. 10. 13.
2020. 12. 8. ~ 2021. 2. 14.	2021. 2. 15.
2022. 1. 26. ~ 2022. 4. 17.	2022. 4. 18.

6) MICE시설

여수지역 내 13개소의 컨벤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에도 전념했다. 마이스 시설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데다가 머무는 일정도 길어 특별히 신경 써야 했다. 이에 여수시는 3개 반 19명을 컨벤션시설 관리 점검반으로 편성하고 2020년 2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다중시설 감염증 예방수칙과 대응요령에 대한 자체 교육 점검에 나섰다. 이와 함께 컨벤션 시설별로 체온계와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 안내문을 배부, 부착하며 경각심을 일깨워갔다.

7) 주요 관광시설

공용시설물 수시 소독·방역관리요원 배치

여수시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갖춰나갔다. 관광시설 30개소와 숙박 시설 20개 업체, 관광안내소 16개, 직영시설 2개, 위탁시설 3개소 등 총 71개소가 관리대상이었다. 이들 시설관리 전담반은 관광과장 외 직원 22명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종사자 및 방문객들의 발열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며 정기 방역소독 외에도 손잡이 등 다중 접촉이 많은 공용시설물 소독을 수시로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다. 또 시설별 방역관리자 면담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을 권고했다.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10까지는 ‘황금연휴 방역대책 현장 점검반’을 확대 운영했다. 관광사업체에 대한 물품도 지원했다. 1차로 손 소독제 202병과 마스크 300개, 소독용 에탄올 150병을, 2차에는 손 소독제 300병, 소독용 에탄올 150병을 각각 지원했다.

관광시설 2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요원 96명을 배치해 소독과 방역활동에 힘쓰도록 도왔다. 2021년 3월 말까지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64.4%가 줄어들었지만, 민간업체와의 관광시설 방역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은 낚시객과 관광객이 다수 찾아오는 국동항과 소호항에서 입·출항하는 낚시어선 313척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낚시어선은 선내 공간 제약으로 거리두기가 어려워 더더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승선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발열 체크 등을 통해 보다 꼼꼼하게 점검했다. 2020년에는 1,819회, 2021년에는 4,136회, 2022년에는 1,027회의 관광시설 지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8) 여객선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설치해 발열 체크

2020년 3월 초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3,500명을 넘자 국내 방역은 말 그대로 비상체제였다. 다행히 여수 지역은 신천지발 확진자가 1명만 나온 상태여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갔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3월 23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도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잦은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26개와 여객선사 7개사, 여객선 12척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대합실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신기항과 백야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뒤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담당자를 투입해 매일 발열 체크를 했다. 엑스포항과 연안여객터미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거문도항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각각 설치해 발열 체크 업무를 맡았다.

여수시는 또 여객선 승선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안내문을 여객선터미널 주변과 선사, 선박에 각각 부착했으며 상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해 갔다. 선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도 막았다.

2021년 기준 터미널에서 발열 체크를 한 이용객만도 30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차도선의 경우 선실이 비좁아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관리에 애로사항도 많았다.



9) 지역자활센터

여수시는 2020년 2월 26일 '전남여수·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응에 들어갔다. 시설 이용자나 시설 종사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발열 체크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주 방역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2020년 3월 들어서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휴관과 함께 사업들을 중단했다. 직원들에 대한 소양과 직무교육도 하반기로 연기했다.

4월 20일에는 시설 방역 이후 운영을 재개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2020년 8월 31일과 12월 8일, 다시 운영을 중단했다. 지역자활센터 휴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직원들에게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 생계 곤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갔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힘쓰면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위생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물품을 배부하기도 했다. 2022년 2월에는 종사자 및 참여자의 3차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

1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외국인이 주로 찾는 시설이니만큼 더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야 했다. 이에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늘려 대면 이용을 줄이고자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관 조치가 내려졌고, 휴관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튜브 및 비대면 영상교육을 통해 센터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했다.

11) 도로변 및 공원

2020년 3월, 여수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도시 방역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위탁 업체인 여수축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제단 1개 반을 투입해 시가지 도로변에 방역 소독을 지원키로 했다. 여수시 농장 주변, 도로변 및 농가 진입로, 철새도래지가 그 대상이었다. 방역 소독은 2021년과 2022년까지 지속되어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막았다.

방역 소독 내역

구분	권역	방역소독 대상
2020년	1권역	쌍봉동, 소호동, 화장동, 선원동, 시전동(흥국상가) 도로변 및 공원
	2권역	서강동, 중앙동, 총무동, 종화동(낭만포차), 오동도 입구 도로변 및 공원
2021년	1권역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돌산읍 주요 농가 진입로
	2권역	소호동, 학동 등 도로변
2022년	1권역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돌산읍 주요 농가 진입로
	2권역	소호동, 학동 등 도로변

12) 공중화장실

2020년 1월, 여수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공시설 방역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여수시는 긴급히 청소·방역 업체 17곳을 고용해 공중화장실 115개소에 방역 약품을 배부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특히 이용객이 급증하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및 하계 휴가철에는 집중적으로 청결에 힘써 코로나19 사전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공중화장실 방역 및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방역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늘려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3) 공영 자전거

많은 여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영자전거도 방역 대상이 되었다. 여수 내 공영자전거 대여소 46개소에 있는 자전거 400대를 일 1~2회 분무 방역하고, 대여소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2022년 5월 기준 약 714회의 소독이 실시되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확립되었다. 더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부착해 두었다.

07
의료취약계층 · 노인 방문관리

비대면 AI-IOT 건강관리 서비스

코로나19 초기 여수시는 예방을 위한 방역에 주력하면서 방문보건 대상자, 재활 등록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도 주력했다. 2020년 2월 3일부터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개인별 위생 교육도 실시했다.

이외에도 건강 어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AI-IOT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를 파악해 가면서 기저질환 등에 대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2021년 3월 말까지 방문대상자에게는 2만 8,714개를, 재활 등록장애인에게는 2,217개, 치매 어르신에게는 2천 개의 마스크를 각각 전달했으며 8,605명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420명에게는 손목 활동량계(381개)와 체중량계(335개), 혈압계(215개), 혈당계(132개)를 각각 지급하기도 했다.

개인별 전담인력 배정, 마스크·소독제·식사 배달

의료취약계층 방문 관리는 개인별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관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2월 26일부터는 노인들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중단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어르신들을 관리했다. 총 219명이 수행한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를 통해 대상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9만 2,115매와 손 소독제 4,070개를 지원했으며 8,587세대에 생필품 세트를, 1만1,082세대에는 각종 식품 꾸러미를 각각 전달했다. 또 비대면 시기임에도 식사 배달을 지속하고, 유선으로 매일 안부를 물으며 건강상태를 체크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경로 식당 5개소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경로 식당 무료급식 대상인 어르신들이 있는 880가구에 복지관 종사자들이 대체식을 직접 배달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돌봄 활동을 강화했다.



08 집단감염 우려시설 집중관리

1) 노래방·장례식장·영락공원 등

방역용품 지원·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독려·이용자 제한 등

여수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한 관리 점검에 더욱 신경을 썼다. 우선 노래연습장 134개소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PC방 159개소, 오락실 60개소, 영화·공연장 12개소 등 총 367개소를 집중관리 방역대상으로 삼고 문화예술과 6개 팀과 노래연습장여수협회 공동으로 방역지침과 협조 사항을 당부해 갔다. 이들 시설물과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용품 지원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일정 간격 유지 등을 지도하면서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독려했다.

총 8개소인 장례식장의 경우 2020년 2월 25일부터 장례식장 감염병 대응 수칙을 적용, 이행여부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점검했다. 여수시는 장례식장 근무 시간표를 정해 출입구에 담당자를 배치하였으며 바닥에는 최소 1m를 유지하라는 스티커를 부착, 개인 간 거리를 유지토록 했다.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나 QR 코드 생성, 운영을 권고하는 한편 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음식물 역시 간소화하며 보조 출입구를 폐쇄하고 테이블 간 거리는 1m로 유지하며, 이용자는 50인 이하로 제한토록 지도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장례식장 조문객 수는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영락공원도 중요한 방역 대상이었다. 여수시는 2020년 3월 13일부터 10명의 전담 직원을 투입해 영락공원 건물 3개소(승화원, 추모의집 I, II)를 매일 1회 이상 락스 및 에탄올을 사용해 전체 소독을 실시했다.



2) 종교시설·집회

종교시설 전담반 가동, 현장 점검과 계도 병행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산발적이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였고, 여기에는 종교모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수시는 2월 초부터 기독교 629개소, 불교 54개소, 천주교 10개소, 원불교 2개소, 기타 4개소 등 총 699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문화예술과 6개 팀 35명을 종교시설 전담반으로 지정하고 지역 종교단체 연합회와 협조체계를 만들어갔다. 우선 이들 종교시설을 상대로 집회나 행사 자제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전화나 문자, 현장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사전예방을 당부해 갔다.

여수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3월 22일부터 종교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되자 집회 중단을 권고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출입자명부 작성,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 종교시설 별로 여수사랑 상품권 30만 원씩과 손 소독제, 에탄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3)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집

특히 여수시 전담반은 매주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예배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현장 점검과 계도로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념했다. 일부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열감지기를 설치하는가 하면 교인 식별용 바코드 명찰을 배부하기도 했다. 또 간격 유지를 위해 표식을 부착하기도 했으며 점심 식사를 제공하던 일부 교회는 개별포장 된 떡이나 김밥 등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기도 했다.

휴원 조치·긴급돌봄시스템 운영

4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 조치도 불가피했다.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휴원 조치됐다. 여수시는 휴원 기간 동안 긴급돌봄 체계로 운영시스템을 바꿨다. 하루 평균 440여 명이 돌봄 혜택을 받았다. 종사자와 아동복지교사는 정상 근무토록 하면서 급식이나 아동학습지도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미등원 아동에게는 대체급식과 돌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관리했다. 1일 2회 발열 체크와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아동센터마다 격리실을 별도로 두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소독은 전문업체에 의뢰, 방역 소독을 하거나 1일 1회 이상 자체 소독을 하도록 했다.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나래행복센터도 예외는 아니었다. 총 네 곳의 아이나래행복센터는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7명에 달하는 돌봄시설이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2021년 1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열 체크와 격리실 마련, 자체 소독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

여수지역 어린이집 114개소(국공립 20, 법인 22, 민간 62, 가정 33, 직장 7)에 대한 긴급보육도 실시했다. 휴원 조치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취약자인 영유아에 대한 감염 예방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어린이집 휴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정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휴원 시에는 여수시가 보육교육을 통해 보육 공백을 메웠다.

방역 소독 내역

다함께 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1차	2020. 2. 27. ~ 6. 21.
	2차	2020. 7. 7. ~ 7. 25.
	3차	2020. 8. 22. ~ 10. 2.
어린이집	1차	2020. 2. 27. ~ 5. 31.
	2차	2020. 8. 26. ~ 9. 21.
	3차	2021. 7. 22. ~ 7. 30.
	4차	2021. 11. 19. ~ 11. 26.
	5차	2022. 1. 27. ~ 2. 4.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 여부, 자체방역 상황 등도 상시 모니터링 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 집단 감염지역 방문 또는 방문자와의 접촉자는 별도로 관리, 조치했다. 어린이집 별로 마스크, 손 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소독용품, 아크릴 가림막 등도 지원했다. 여수시 보육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외에도 맞벌이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190개소, 242대에 대해서는 탑승 시 발열 체크와 함께 이로 인한 출발지연을 홍보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2022년 2월부터 3월 동안에는 여수시내 어린이집 133개소가 업무 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어린이집 비상체계를 구성하고 종사자 및 아동 코로나19 의심자와 확진자가 발생 시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보육 활동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보육시설 대상 방역 실시·비대면 장난감 지원도

더불어 희망일자리사업에 지원한 인력을 활용해 2020년 8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여수지역 어린이집 8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해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고, 방역에 지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며,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찾아 집 앞에 놀잇감을 놔두는 비접촉 방식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놀잇감 지원 사업은 총 669명의 아동에게 비대면 장난감을 지원해 부모들의 육아를 도왔다. 또한 관내 보육교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36회에 걸쳐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해 전문성을 함양했다.

09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3천여 명 신도명단 확보, 탐문 및 현장조사 ‘발 빠른 대처’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여수시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2020년 2월, 전남도에서 신천지에 대한 집회 금지 및 강제폐쇄 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여수시도 신천지 집회시설 총 23개소에 자진폐쇄와 방역소독을 요청하고 6개 팀의 직원이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26일, 3,869명의 신천지 신도명단을 확보한 여수시는 일일문답표를 작성,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신천지 신도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하루 18명을 투입해 대구방문, 확진자 접촉, 발열 등 증상 유무를 확인했다. 이들을 조사하는 데만 29일, 연인원 522명이 동원됐으며 2,926회 걸쳐 점검하고 확인하는 현장 활동이 계속되었다.

활동 기간 동안 신천지 신도들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회(예배) 장소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수시는 끈질긴 추적과 탐문 조사를 통해 신천지 집회시설 23개소(교회 1, 부속기관 22)를 찾아내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10

해외 입국자 관리

2020년 2월 19일, 여수시는 신천지 교회와 시설들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 및 자진폐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전남도 지침에 따라 신천지 교회 집회금지 및 폐쇄 명령 시행 명령서를 부착했다.

문화예술과 6개 팀 35명은 신천지 시설에 대한 1대 1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현장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유증상자 91명을 찾아내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66명은 음성으로, 증상 호전(단순감기)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검사시설 격리 조치로 코로나 전파 차단

2020년 3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내 역시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외 입국자들을 상대로 한 특별한 관리가 불가피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대부분은 승용차나 KTX를 이용해 정보파악과 안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여수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에 들어갔다. 정부로부터 통보된 입국자는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가격리 13일째에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제와 함께 귀가 조치했다.

이에 앞서 2020년 3월 17일에는 중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전원에 대한 입국 보류 조치를 취했으며 입국 시에는 철저한 자가격리 조치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21년 1월 18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1일 이내 진단검사로 예방 활동을 강화했으며 오전과 오후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이상 발열과 인·후통 등 건강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했다. 또 해외 입국자들에게 공항 검역 전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설치, 입력하도록 해서 위치파악이나 입국자 건강상태 및 증상 유무 등을 확인했다.

2020년 3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국한 1단계 해외 입국자는 구례(농협연수원)와 나주(KPS 한전연수원, 농식품부 교육원)에 설치된 임시 검사시설로 격리 조치했다. 2단계인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해외 입국자는 화순 금호리조트로, 3단계인 2020년 6월 이후 해외 입국자는 여수시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임시 시설로 각각 격리 조치했다. 2단계까지 전라남도가 관리 운영하다 3단계부터 각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여서 조정한 것이다. 이 같은 65회에 걸친 특별수송 지원 정책 덕분에 44개국 해외 입국자 506명이 코로나19 전파 없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었다.

2021년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략에 따라 14일에서 10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되었고, 2022년 3월 10일부터는 PCR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검사를 간소화했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총 2,022명의 대상자가 생활했던 봉화산 자연휴양림 임시검사 시설도 해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22년 5월 9일 기준으로 아시아와 중동, 미주 등지에서 총 6,087명의 해외 입국자가 여수를 찾았으며, 그중 98명이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외입국자 현황

(2022.5.9. 기준/명)

구분	계	아시아				중동 (사우디)	미국 (미주)	유럽	호주 뉴질랜드	기타 (남미, 아프리카 등)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동남아					
누계	6,087	919	167	28	2,047	340	1,016	898	75	597

검사 및 관리현황

(단위 : 명)

구분	검사결과				조치현황			
	계	양성	음성	미검사	계	휴양림	자가격리	이송
누계	6,087	98	5,989	-	6,049	1,997	4,027	25

행정명령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20.3.2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나. 처분이유

-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하여 감염병 차단 및 지역확산 방지
- 유럽·미국 및 그 외 지역에서 환자 발생 증가로 전체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지속관리를 위해 행정명령 필요

다. 처분내용

- ①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시·군에서 관리
- ②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 시·군에서 관리
- ③ '20.3.2.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 신고 및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 ④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3.26.(목))” 지침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전라남도지사

특별행정명령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20.5.6. 부터 해외입국자 중 여수시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0.5.6. 부터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격리 행정명령 해시까지

다. 처분이유

-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원 검사 및 입시설 등 자가격리 시행으로 감염병 차단 및 지역확산 방지
-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여수시 도착 즉시 보건소에 자진신고 후 1차 검사결과 음성판정 시 까지 자체 입시설에서 격리 받도록 특별 행정명령 필요

라. 처분내용

- ① '20.5.6.부터 유럽, 미국 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여수시 도착(자가용, 전용 KTX 이용 등)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시 까지 여수시 안내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자가(입시설) 격리 포함격리 의무 실시
- ② 위를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의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제1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여수시장

11

선거 대비



1)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전후 방역소독 ... 증상자 이용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마스크를 쓴 채 투표가 가능한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초,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도 2020년 4월 14일에 있을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말에는 총선 연기론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야당인 통합당은 총선 연기론에 부정적인 견해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총선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코로나19 시국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방문을 꺼리기 일쑤였고, 운동원들이 모여 세를 과시할 수 있는 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악수 대신 팔꿈치나 주먹 인사가 등장했으며 간격과 이동제한, 방역지침 준수 등 모든 선거운동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야만 했다.

여수시는 총선 일정을 계획대로 준비해 나갔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대한 공을 들여야 했다.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 115개소와 개표소였던 흥국체육관에 대한 방역, 소독은 물론 투표자 관리까지 세세한 준비를 해나갔다. 우선 2020년 4월 10일부터 이를 동안 진행될 사전투표에 대비해 27개소 투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환기 등을 실시했다.

2) 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무원 자가진단키트 제공 ... 코로나19 격리자 투표권 보장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러낸 여수시는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과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방역 및 투표 절차는 성공적으로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마쳤다. 먼저 투표 사무원 및 개표 사무원에게는 1인당 2개의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격리자들의 투표권 보장이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거소투표신고를 지원하고, 별도 대기 장소를 마련해 안내요원을 배치했다. 또한 선거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코로나19 격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대선과 지방선거도 추가 확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12

선제 검사

요양병원·노숙인 복지시설·신천지 신도 대상

예방이 최선의 치료제라는 기조 아래, 여수시는 요양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상대로 철저한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2020년, 신천지가 집단 감염을 통해 대유행의 시초가 되자, 여수시에서도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다.

여수시는 3,869명의 신천지 신도명단을 확보하여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29일간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코호트 격리와 확진자 업무 배제로 시설 내 추가 감염을 막을수 있었다.



여수시는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키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약국 및 판매업소 자가검사키트 보유량을 조사하고, 공급을 확보해 1개소당 평균 60개의 자가진단키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가진단키트 소분 판매를 허용해 시민들이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가 늘어남에 따라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3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안정화
및 대면처방

선제 검사 내역

일시	시설	대상인원
2020. 3. 10.	신천지 관련 고위험군	16명
2020. 3. 13.	신천지 관련 고위험군	39명
2020. 5. 12. ~ 5. 30.	서울 이태원 클럽 등 주변 방문자	104명
2020. 5. 20. ~ 7. 31.	단계적 개학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019명
2020. 6. 19. ~ 6. 20.	복지관 개원에 따른 종사자	229명
2020. 10. 6.	노숙인 시설(금강원) 생활자 및 종사자	60명
2020. 10. 12. ~10. 20.	인구주택총조사 종사자	127명
2020. 11. 27.	농림어업총조사 종사자	62명
2020. 12. 24. ~12. 31.	겨울방학기간 행정인턴	121명
2020. 12. 30. ~12. 31.	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169명
2021. 1. 12. ~ 1. 15.	버스, 택시 종사자	1,775명
2021. 1. 13. ~ 1. 15.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179명
2021. 1. 25. ~ 1. 26.	종교관련 비인가 교육시설(TCS국제기독교학교, 빛보라국제기독교학교)	96명
2021. 1. 27. ~ 1. 31.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310명
2021. 1. 28. ~ 1. 2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제근로자	46명
2021. 2. 1. ~ 2. 5.	게임제공업 종사자	45명
2021. 2. 3. ~ 2. 5.	폐차장 종사자	17명
2021. 2. 5. ~ 2. 14.	노숙인시설, 거리 노숙인	42명
2021. 2. 18.	노숙인 복지시설(금강원) 생활자	42명
2021. 2. 22. ~ 3. 31.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로자 등	3,433명
2021. 2. 23. ~ 3. 11.	2021년도 신학기 전국단위모집 학교 기숙사	425명
2021. 2. 24. ~ 3. 11.	남도학숙 입사생	47명
2021. 2. 26. ~ 3. 13.	여수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	405명
2021. 3. 2. ~ 3. 8.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38명
2021. 3. 3. ~ 3. 14.	전남학숙 입사생	4명
2021. 3. 8. ~ 3. 1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68명
2021. 3. 15. ~ 3. 26.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58명
2021. 3. 15. ~ 3. 17.	목욕탕 및 사우나 종사자	392명
2021. 3. 15. ~ 4. 3.	어린이집 종사자	1,598명
2021. 3. 25. ~ 3. 30.	장례식장 종사자	60명
2021. 4. 12. ~ 7. 31.	섬 복지 사업 활동 자원봉사자, 수행기관 직원 등	82명
2021. 11. 23. ~11. 2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17,559명
2022. 2. 27. ~12. 29.	목욕장, 유흥업소 이용자, 종사자	1,056명

제2절 방역 행정

01 문화예술 시설 행사·공연 취소 및 연기

선제적 방역·지역사회 감염 차단 목적

2020년 2월 3일 여수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여수 문화홀, 예울마루 등 시설운영자와 단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행사나 공연 취소를 요구했다. 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라는 단서도 달았다. 많은 예술인들과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2월 3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제98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제8회 영유아 페스티벌,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월드 페스티벌 및 재외외국인 한마당 행사 등 상반기에 계획됐던 각종 재향 행사는 물론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이 모두 취소됐으며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 여수문화홀, 여수민속전시관 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 문화공연이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 이 같은 소식은 보도자료나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2021년 3월 말까지 마칭페스티벌 외 49건(4억9,500만원)의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여수음악제 등 19건은 연기되었다. 2020년 2월 20일 계획되어 있었던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학술세미나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밖에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 여수문화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68건의 행사가 취소나 연기되었으며 여수민속전시관에서 상시 개최하던 토요 체험 프로그램 행사도 1년여가 넘도록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공포는 문화예술계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다.

02 비대면 온택트 관광체계 전환

SNS팀 구성, 비대면 온택트 관광트랜드 선도

2020년 들어 사람들이 붐비는 여수시 유명관광지는 철저한 방역수칙이 적용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2월 28일 이후 직접적인 관광지 방문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여수시 관광홍보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SNS 8개 채널과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관광마케팅을 했다.

여수시는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 해마다 1,300만 명이 찾아오는 해양관광도시로 인지도를 높인 터라 몰려올 봄철 행락객에 대한 대응태세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상춘객들의 인기를 차지했던 영취산 진달래 축제, 여수 대표 축제인 거북선축제를 비롯하여, 2020년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율촌 '반월들녘 유채꽃 향연' 축제는 물론 여수시 농업경영인대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한국 슬로우푸드 페스티벌, 친환경 인증사업자 및 단지 순회교육 등의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또한 매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치렀던 향일암 일출제 행사도 전면 취소했다. 여수시는 대신 여수관광 SNS 팀을 꾸려 여수섬길, 거문도와 하화도 등 여수의 섬 여행지, 여자만 갯노을길, 가사리 갈대밭, 예술의 섬 장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비대면 여행지 발길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관광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취재를 통해 생동감을 더했고 글과 카드뉴스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온라인상에 ‘국내 언택트 여행’, ‘섬여행 가볼 만한 곳’, ‘비대면 관광’으로 여수를 소개하는 취지로 2021년 3월 말까지 1,287건의 게시글을 올려 939만 3,481건을 노출시켰고, 1만8,673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결과 조회 수는 2백만 건을 넘었으며 노출 건수는 2억 1,427만 2,679건이나 됐다.

간접적으로 여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택트 랜선여행 콘텐츠’로 만든 웹드라마와 웹툰 ‘호점몽’과 유명 유튜버들이 참여해 만든 ‘초마드’, ‘빅마블’ 등 여수시 비대면 여행지 탐방 영상도 누리꾼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 작품은 각종 SNS 상을 휩쓸어 여수는 비대면 온택트 관광트랜드 선도 지자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2020~2021.3월 말 기준)

● SNS분야 수상실적

일시	내용
2020. 4. 24.	한국광고홍보학회 광역·기초단체 공공PR대상, 최우수상
2020. 8. 22.	웹드라마 ‘호점몽’ 서울웹페스트 베스트드라마상
2020. 9. 25.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2020. 11. 12.	‘올해의 SNS’ 유튜브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2020. 12. 12.	웹드라마 ‘호점몽’ 아시아웹어워즈 베스트웹시리즈상



03

각종 교육프로그램 전면 수정

1) 보건민원 및 건강프로그램

잠정 중단 및 교육인원 하향 조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에서 맡았던 일반진료와 한방, 구강 진료는 물론 제 증명 및 물리치료 등 보건 민원업무도 중단됐다.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보건 민원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공중보건과는 선별진료소 및 지역 검체 의사로 배치됐으며 나머지 충원된 인력은 보건소 방역비상반으로 편성, 운영됐다.

여수시는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던 심폐소생술 교육도 잠정 중단했다. 심폐소생모형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은 대면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2,500명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교육 인원을 1,200명으로, 다시 8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2020년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4일부터 31일까지,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이 중단되면서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교육 중단이 장기화되자 보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질병관리청 교육 동영상을 연결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홍보해 갔다.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상당수 프로그램의 차질도 불가피했다. 2020년 2월 5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여수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과 접촉자 관리, 선제적 대응에 사활을 걸었다.

이날 이후 어린이 건강 가꾸기, 건강한 돌봄 놀이터,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재활 프로그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간 재활 프로그램, 임부요가, 아름다운 캘리그래피, 태교 공예,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센터 상설교육 등 건강·보건 관련 상당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6월부터는 프로그램을 다시 정상화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2020년 8월 22일부터 또다시 잠정 중단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이렇듯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던 업무들은 2022년 5월부터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부터 재개되었다. 여수시 보건소는 2년 여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기획해 갔다.

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던 학생,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과 학교지원 프로그램이 연기되었으며 강의실 대관도 중지됐다. 시민 외국어 교육 역시 연기되는 등 수강생이 50인 이상 모일 수 있는 강의는 모두 폐지됐다.

하지만 프로그램 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잇따르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2020년 7월 22일에는 테크니션 스쿨과 행복교육지원센터, 성인문해교실, 시민외국어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일부 재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교육 시설과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3월 8일 기준, 관내 사설 학원과 교습소 총 701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 377개소가 휴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농업인 교육, 농업인 대학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운영되었으며, 발생상황에 따라 과정별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2)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50인 이상 강의 전면 중단·과정별 온라인 교육 실시

여수학숙과 평생학습관,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과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여수학숙의 경우 학생 입사를 연기 조치한 뒤 시설 방역과 관리에 집중했다. 평생학습관은 상설 프로그램과 함께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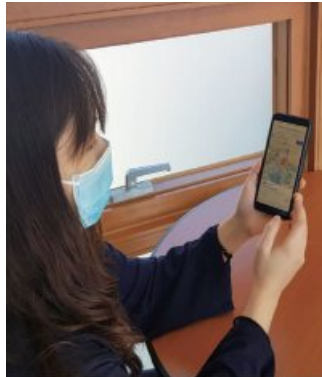
04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약국 115개소 대상, 마스크 판매상황 1:1 모니터링

정부는 마스크와 소독제의 사재기와 밀수출 근절대책을 담은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렸다. 마스크 대란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구입조차 힘든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20년 3월 5일 자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한 요일에 1인, 2매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크 5부제'였다. 4월 27일에는 1인 구매 한도를 3매로 확대해 갔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 제한조치 이후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6월 1일, 요일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5부제를 폐지했다. 정부는 6월 18일 이후 마스크 1일 구매 수량을 10매까지 확대한 뒤, 7월 12일 시장공급체제로 전환하며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했다.

여주시 역시 마스크 수급 상황은 타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당수 약국이나 대형마트에는 ‘마스크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시민들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주시 공적 마스크 5부제는 정부 시행 지침으로부터 나흘 뒤인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4개월 여 동안 관내 전체 약국 115개소를 통해 운영했다. 이들 약국 1개소에 1명씩, 총 115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판매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앞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소로 지정된 약국 대부분은 선착순 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 때문에 새벽부터 기다리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긴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여주시는 여주시약사회와 함께 판매시간, 중복구매 확인 등 원활한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한 논의를 해나갔다.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휴대폰 ‘마스크 알리미’ 앱 이용 재고 수량 확인

주마다 공적 마스크 판매약국 현황조사와 더불어 휴일에는 적게는 20개소에서 많게는 60개소의 약국을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 운영하며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불편을 줄였다. 공적 마스크 판매약국 홍보는 관련 실과소와 읍·면·동에 당부하는 한편 시와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했다. 여주시는 직원 1명을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동향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마스크 판매처 및 공급량을 확인해 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2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적 마스크 300여만 장을 공급·관리했다. 마스크 재고 수량은 ‘마스크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렸다.

약국에서 우선 판매하던 기존의 마스크 판매 방식도 바꾸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을 추가해 판매소를 총 143개소로 늘렸다.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구매 시 여주시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가맹점 신청이 되지 않은 약국을 상대로 여주시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도서 지역인 남면과 화정면, 삼산면 주민들에게는 여성단체, 봉사단체들이 직접 만든 수제 마스크가 전달되는 등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시민들의 봉사활동과 미담이 쏟아졌다.

여수경찰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 불법행위에 집중단속으로 힘을 보탰다. 각 순찰차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 목록을 부착하고 판매 시간대 별로 순찰을 강화하는 거점 근무를 실시했다.

개인위생 소독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공적 마스크 판매처 내에서의 질서위반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판매처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적 마스크 구입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야 했는데, 여주시는 이들 3종을 창구(400원)나 무인민원발급기(200원)에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도 폈다. 당시 발급된 증명은 창구 10만4,992건, 무인민원발급기 1만3,264건, 총 11만8,186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4,300만원 이었다.

05 각종 훈련 연기 및 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던 2020년 3월 이후 대부분의 훈련도 취소 혹은 연기됐다. 여주시는 먼저 3월 19일로 예정되었던 제414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을 취소한데 이어 한 달 뒤인 4월 23일로 계획된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도 취소했다.

또 2020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던 을지태극연습 훈련을 하반기인 9월로 연기했으며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충무훈련 역시 11월 9일과 10일로 축소, 연기했다. 이에 앞서 5월 27일 예정된 제415차 민방위 날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역시 다시 한번 취소했으며 9월 22일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개최를 준비했던 지진대피훈련도 취소했다.

대신 민방위 대원들을 상대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했다. 2020년 9월부터 12월, 2022년에는 4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1~4년 차 대원과 기술지원대 등 약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이 이루어졌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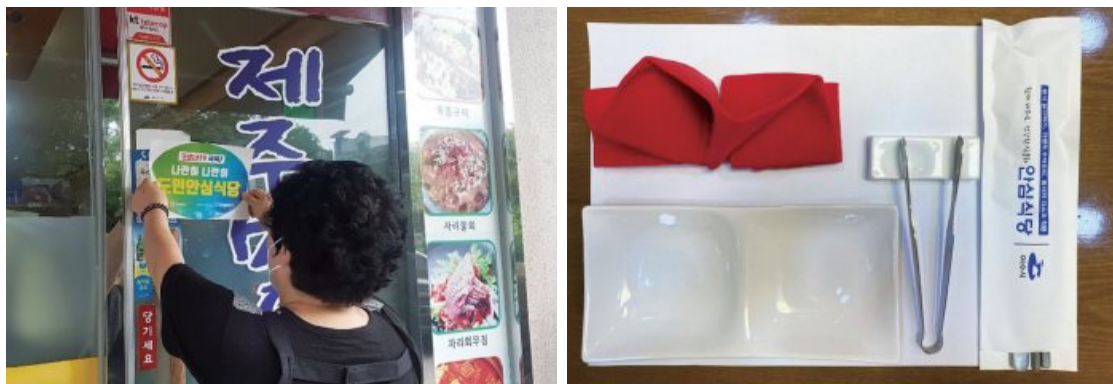
도심 안심식당
운영

총 159개소 지정 ... 분기별 철저한 점검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 신천지 집회로 집단감염과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평범한 일상은 점차 사라져갔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관광지는 물론 직장인들의 모임과 회식도 자제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상춘객들로 붐벼야 할 3월에도 관광지는 썰렁했다. 관광도시 여수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예약은 취소되거나 연기되기 일쑤였고, 도산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시작됐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도심안심식당제를 운영했다. 위생과 환경을 바꿔 코로나19 지역확산도 막고 손님들에게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식당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었다. 식당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도심안심식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음식을 덜어 먹는 도구'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3대 실천과제를 반드시 준수해야했다.

여수시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로 업소를 우선 지정하여 업소당 1인 찬기와 집게, 개별 수저집, 위생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이들 식당에 대한 홍보는 지역방송(kbc)과 시 홈페이지, 여수 맛집 어플리케이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총 159개소를 도심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여수시는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두 차례 적발 시 지정을 취소했다. 잦은 점검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업소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돕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07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 금지

교회와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요양병원에 부모를 둔 자식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환자 면회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여수시도 3월 20일 요양병원 11개소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쉽게 풀릴 줄만 알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 금지는 7월29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요양병원발 집단감염 사례가 다시 나타나면서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요양병원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가 또 내려졌다. 이후 11월 14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시 한번 면회 금지 조치를 내려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요양병원이 취약계층인 노인들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서였다. 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수위도 올렸다. 여수시는 2020년 3월 27일부터 요양병원에 근무 예정인 신규 간병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8월 21일에는 요양병원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및 병원업무 시 동선 최소화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2020년 말, 12월 17일부터 이를 동안에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일주일 뒤인 2020년 12월 23일에는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종사자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등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 사항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1년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1월 4일부터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했다.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면회가 허용되는 시간도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 모두 2차례였다.

08

낭만·청춘 버스킹 공연 중단



비대면 온라인 버스킹으로 대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자 여수시는 버스킹 등 거리문화공연을 일제히 중단하고, 연기시켰다. 여수시의 낭만 버스킹은 특히 여수 밤바다와 낭만포차가 전국적 유명세를 타면서 찾는 이들이 많았고 버스커들도 선호하는 공연이었다. 여수시는 2020년 4월 들어 24일부터 공연이 예정됐던 낭만버스킹과 청춘버스킹, 문화예술브랜드사업, 토요일상설공연 모두를 중단시켰다. 거리공연 개최 여부를 지역문화예술단체와 3차례의 협의 끝에 무기한 연기 혹은 중단키로 한 것이다. 관광객 유치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였다. 또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단체가 합동으로 방역 점검반도 편성했다. 이들 공연 가운데 낭만버스킹과 청춘버스킹은 비대면, 온라인 버스킹으로 대체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여수 밤바다를 홍보하는 방안이었다.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됐다.

문화예술브랜드 사업과 토요일상설공연은 취소했다. 하지만 소규모 공연이나 불가피한 공연이 있을 시에는 관람객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및 비치, 체온계와 손 소독제 비치, 공연장 주변 소독, 마이크 덮개 준비, 방역관리요원 추가 배치 등 세심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알리는 현수막도 부착했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오프라인 거리문화공연을 추진할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음을 감안해 공연을 취소·연기하는 조치는 계속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멈춰 있던 버스킹공연도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다.

09

코로나19 관련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치료 및 격리 생활로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여수시는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대책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및 그 가족, 이외에도 코로나 대응 종사자 등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이었다. 여수시는 이들에게 상담은 물론, 마음돌봄키트를 제공해 심리 안정을 돕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2022년 6월 22일에는 코로나19 현장 대응인력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전라남도 위탁기관인 호남권트라우마센터에서 6월부터 8월까지 각 시군을 순회하며 운영했다. 여수시보건소에서는 15명의 현장 대응인력이 '마음안심버스'에 참여해 정신건강평가, 안정화 프로그램, 재난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옴니핏(브레인 트레이닝)을 이용, 스트레스를 측정하기도 했다.





제3절 홍보 활동



01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대량 제작·배포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현수막·전단·포스터 등 배포

2020년 새해, 대다수 언론의 헤드라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었다. 지구촌 곳곳을 위협하는 팬데믹 상황을 경고하며 예방만이 백신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위험성, 예방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야 했다.

여수시는 2020년 새해 들어 현수막, 포스터, 전단, 리플릿, 판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홍보에 돌입했다. 2020년 2월 20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및 행동요령을 담은 현수막 60개를 제작, 주요 거점과 27개 읍·면·동에 설치했다.

3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유흥업소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 45개소에 "발열 등 증상자 업소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 500장과 전단 4만 장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내용을 담은 현수막 92개를 만들어 읍·면·동과 주요 간선도로, 관광지 등에 설치하기도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KI-Pass)를 도입하고, 추석 연휴 이동 자제 홍보물, 야외 다중밀집지역 예방 행동수칙 등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 전단,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와 행동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2022년 초에는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이동 멈춤 홍보 현수막과 6대 생활방역수칙 홍보 현수막 등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2년 4월까지 현수막 894개, 포스터 총 12,730장, 전단지 12만 6,000장, 리플릿 2,000장, 마스크 스트랩 2,000개, 핫팩 2,000개, 피켓 8개를 각각 제작, 배포하였다.

02

공중화장실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실천 현장점검

여수시는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세부지침' 실천을 위해 115개소의 여수지역 공중화장실에 안내 스티커 2,700매를 제작, 배부했다. 이를 위해 거리 유지 홍보를 위한 바닥용 스티커 2종과 손 씻기 안내, 이용자수칙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벽용 스티커를 제작하였고, 공무원과 시민평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홍보물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03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



코로나19로 여수시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여수시는 의료,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양상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이에 2020년 7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웅천 장도 '아트카페'에서 현장패널 11명과 그 외 SNS 패널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의료, 경제, 교육, 문화관광,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 여수시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페이스북 생중계로 시민들과 여수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04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

27개 읍·면·동 2,700명 시민 참여

코로나19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자 여수시는 SNS(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여수시장이 직접 참여해 읍·면·동별 시민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2021년에는 2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2년에는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7개 읍·면·동 2,7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었다.

05 착한 임대료 감면 운동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임대료 감면 성과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2월과 2020년 12월에 걸쳐 두 차례 착한 임대료 감면 운동을 홍보했다. 1차로는 사설 전통시장 11곳과 상점가 2곳을 대상으로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캠페인을 전개해 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318개 점포에 임대료를 감면했다. 2차로는 관내 건물주 9,4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홍보 현수막 게첨을 통해 혜택을 안내하고 독려해갔다.



06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월 2회 이상 전통시장 방문 ... 24개 실과소 및 읍·면·동 참여

여수시는 전통시장 소비 위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2020년 3월,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추진했다. 직원들과 읍·면·동별로 월 2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 물품을 구입하고 골목 식당을 이용하자는 취지였다.

여수시는 5월부터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유관기관과 각 단체, 시민들을 상대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과 여수시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SNS와 '여수이야기' 채널에 전통시장 방문 인증사진을 올려 공감대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섰다. 이에 24개 실과소 및 4개 읍면동이 참여해 약 1,158만원의 전통시장 매출을 달성,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제4절 생활 속 거리두기

01 배경과 과정

업무·일상·여가 등 상황별 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절충형 방역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사회 활동이 감소되어 사회 기능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감염의 경로를 최소화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비의료적 방역 방식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 방역과 집단방역으로 구성, 운영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행동지침이 뒤따랐다. 여기에는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사시 행동지침, 공중위생, 개인위생, 공간 방역, 심리 방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높아서 정부가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칙을 만들어 제공한 것이다.

개인 방역의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집에 머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며, 손을 자주 씻고, 실내를 자주 환기하며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됐다. 집단방역은 집단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았다. 사람들이 자주, 또 가까이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 방역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방역 원칙에는 방역관리자의 지정과 운영 및 공동체의 방역지침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02 세부지침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진 2020년 4월 12일,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기본수칙(안) 가운데 '개인 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22일에는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개인 방역은 기본수칙과 보조수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집단방역은 기본수칙을 정리한 가운데 보조수칙은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24일 31개 분야에 걸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본격화했다.

이 초안은 생활 속 상황을 업무·일상·여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적었다. 업무는 일할 때(사업장·회의·민원창구·우체국 등) 4분야이며, 일상은 이동(대중교통)과 식사(음식점·카페/스터디 카페), 공부(도서관, 학원/독서실 등), 쇼핑(대형유통시설·전통시장·중소슈퍼), 특별모임(결혼식 등 가족 행사, 장례식장), 종교 생활(종교시설) 등 10개 분야였다.

여가는 여행할 때(호텔/콘도·유원시설·야영장·동물원·국립공원) 여가나 시설물(야외활동·공중화장실·이/미용업·목욕업·공연장·영화상영관·박물관/미술관·야구장/축구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피시방·유흥시설)을 이용하는 등 17개 분야를 다뤘다. 이 세부지침 초안에는 각각의 분야마다 개인 방역과 집단방역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총괄로, 각 분야마다 소관 부처를 두어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각각의 세부지침은 기본지침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사용자·방문객과 책임자·종사자를 구분하여 역할과 책임에 따라 지체별로 시행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출장과 교육을 자제하고, 회의는 되도록 온라인이나 영상을 통해 진행하며, 노동자 책상을 재배치하여 최소한 1~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영화관·유원시설·종교시설 등에서는 입장객의 수를 조절하여 개인 간 간격을 최소한 1~2m 이상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고, 호흡기 증상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5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상황과 대상에 따라 구분된 31개의 세부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03

여주시 '생활 속 거리두기'

1) 민원실 선제적 대응 2시간마다 환기·투명아크릴 설치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민원실 등은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이에 여주시는 민원근무자들에게 가장 먼저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들 민원창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문과 방역수칙 등을 게시하고, 민원접수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용공간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기자의 안전거리 안내표시로 거리두기를 실천토록 했다.

또 민원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일일점검표를 작성, 방역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조치도 내렸다. 27개 읍·면·동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총 220개의 비밀을 차단하기 위한 투명 아크릴을 설치해 대면접촉을 피하도록 했다.



2) 전통시장 방역

시민들의 실생활은 물론 관광형 재래시장으로 관광객들의 이용이 잦은 여주시역 전통시장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도 소홀할 수 없었다. 여주시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소독 활동을 벌였다.

진남시장, 제일시장, 수산시장, 수산물특화시장, 중앙시장, 서시장, 교동시장, 중앙선어시장 등 전통시장과 함께 중앙동 건어물 상가, 도깨비, 흥국상가 등 상점가 13개소를 방역·소독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는 방역·소독을 지원함과 동시에 총 252개의 살균·소독제를 지원, 비치토록 했다. 공설시장인 덕양, 봉산, 쌍봉시장은 매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썼다.

청년 상인들을 위한 방역 활동에도 전념했다. 여주시는 2020년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청년몰에 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 청년몰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을 시작으로 청년상인 회장을 시설 방역 관리자로 지정,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주문했다. 청년 상인들에게는 중국 웨이하이가 지원한 마스크를 개인별로 지급하였으며 방문자들에게는 한 방향 식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방문록 작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청년몰 상인들은 상가 내 테이블 수를 줄이고, 무인 주문 시스템(키오스크)을 도입, 운영하는가 하면 모바일 주문 앱을 활용한 포장 배달과 담당구역 배정 및 순번제 청결 활동 등을 하며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3) 도시공원 방역

열화상 카메라·이용수칙 안내판 설치

여수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여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와 웅천 장도공원,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등 방문객이 잦은 도시공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이날 이후부터 매일 오동도 12명, 장도공원 2명, 아이나래 놀이터에 3명씩, 총 17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오동도와 장도공원에는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방문객들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 체온을 측정했다. 이들은 모든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출입하도록 했으며 마스크를 소지하지 못한 방문객들을 대비해 마스크도 별도로 준비했다. 오동도 음악분수와 도시공원 수경시설(바닥분수) 운영은 중단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이용객들에게는 매표소에서 발열 체크와 함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손목밴드 착용 후 입장하도록 통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원 이용수칙을 담은 안내판 128개를 만들어 도심 공원 곳곳에 배치했다. 도심 공원 주변 주요 간선도로에는 현수막 50개를 제작, 공원 이용에 대한 방역수칙을 홍보하며 안내문자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협조를 당부했다. 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나 운동기구,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체방역은 매일 매일 해나갔다.

거리두기 따라 이용률 제한 ... 특별 점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공원 이용에 대한 수위도 조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이용률을 50%로 제한했으며 주요 도심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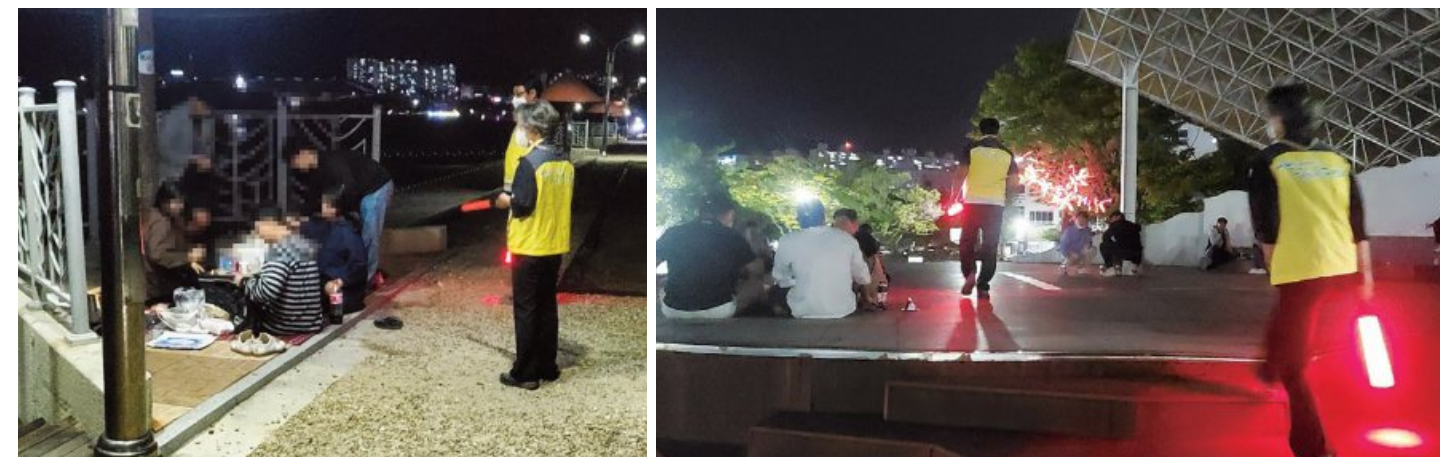
9개소에서는 10분 간격으로 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한 공원사용을 불허하고,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는 운영을 중단했다. 장도공원 내 전시관은 폐쇄했으며,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이용은 30%로 제한했다.

연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에는 오동도 탐방로를 폐쇄하는 한편 해돋이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2021년 1월 1일 오전 10시까지의 오동도 입구도 폐쇄했다.

장도공원 역시 이 기간 동안 문을 닫았으며 도심 주요공원 4개소는 공무원들을 직접 투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고함지르지 않기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하는 활동을 벌였다.

2021년 5월 17일부터는 주요 도시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해 하루 14명의 점검 인원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오동도, 거북선 공원, 성산공원, 이순신광장에서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더불어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하루 3명의 인원이 야간에 주요 도시공원 일원을 돌며 음주와 취식 이용객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약 414건을 적발하여 지도 처분을 취했다. 또한 주요 도시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통해 645건의 계도가 이루어졌다.



④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도시공원 조치사항

단계	조치사항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50% 제한 운영 •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 설치 • 주요 9개 도시공원 내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 실시 (10분 간격)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 공원사용허가 불허 •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운영 중단 • 웅천 장도공원내 전시관 폐쇄 • 웅천 친수공원 야영장 30% 제한~폐쇄 등 탄력적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수막 게시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 공원사용허가 불허 • 공원내 4인 이상 집합금지 계도 •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운영 중단 • 웅천 친수공원 야영장 운영 중단 • 웅천 장도공원 내 전시관 폐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수막 게시 • 공원 내 안내방송 실시
일상회복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인 이상 모이는 행사 공원사용허가 불허 • 공원 내 12인 이상 집합금지 계도 •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개방 • 웅천 친수공원 야영장 개방(수용인원의 50%)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수막 게시 • 공원 내 안내방송 실시

4) 다중이용시설 긴급 점검

가. 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 중점 관리

코로나19의 확산성은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주된 이유로 꼽히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는 주요 위험시설 중의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여수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 시행되던 2020년 5월 6일부터 클럽이나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일반·휴게음식점 등 관내 6,21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관리에 들어갔다.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5명은 이들 식품접객업소 들을 상대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제한적 허용 시설별 운영 및 준수사항 여부를 체크했다. 유흥시설 4개 업종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밀착밀도가 높은 감성주점은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14일간), 2차례에 걸쳐 더 강도가 높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로 영업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감성주점으로 분류된 업주들은 ‘주변 일반 음식점 영업형태와 같은데 자신들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과 함께 지도점검이나 행정지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 관광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이었던 관광숙박 180개소와 아·미용 1,086개 업소, 목욕탕 84개 업소, 농어촌민박 115개소 등 공중위생업소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4명)은 2020년 5월 9일부터 이들 숙박시설과 아·미용업소, 목욕업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지침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이들은 업종별, 업소별 방침(지침)을 안내하며 방역방법과 개인위생관리 등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필요시에는 전남도와 함께 합동 점검을 펼치며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도왔다.

다. 결혼식장

예부터 조상 대대로 중요시했던 관혼상제에도 코로나19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누구나 축하해야 할 혼례 역시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지켜야 할 수 있는, 코로나19를 피하진 못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정도, 단계별로 때로는 50명, 때로는 100명 등으로 하객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수시는 2020년 5월 30일 이후 매주 여수지역 결혼식장 11개소에 대해서 거리두기 단계적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여수시 가족문화팀 5명은 이들 결혼식장을 돌며 하객 전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손 소독제 비치, 예식 전후 방역 실시 여부, 예방수칙 안내문 게재,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점검했다. 결혼식장은 자유업종으로 시나 도에 소관부서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지만, 가족문화팀이 관리·점검을 맡은 것이다. 이들은 2021년 3월 말 기준, 50여 회에 걸쳐 70여 건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결혼식장을 통한 집합감염 사례나 환자는 발생하지 않아 모범을 보였다.

라. 공중화장실

코로나19는 개인 위생의 중요성과 주변 환경이 오염될 경우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 고령자, 노약자들의 건강관리를 더 당부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에도 적극 나섰다.

여수시는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 5월 6일 이후인 20일부터 공공 부문 공중화장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들어갔다.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공중화장실 관리팀은 육지 지역 69개소와 도서 지역 28개소 등 97개소를 중점관리, 점검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내용 등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스티커 2종으로 만들어 화장실에 부착했다. 바닥용은 2m 거리유지(최소 1m)를, 벽 부착용은 손 씻기 내용과 화장실 이용수칙을 적었다.

또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청사와 읍·면·동 화장실에도 이 같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광종합대책반과 시민평가단이 현장 방문을 통해 스티커나 안내문에 대한 훼손,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는 일일 점검체계로 전환, 현장 활동을 강화하며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힘을 쏟았다.

마. 대형마트

2020년 8월 26일, 여수시는 대형마트 출입문에 발열 체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만일 발열 체크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에 의한 것으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대형마트들이 코로나19 예방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여수시는 이를 근거로 이마트 여수점과 롯데마트 여천점, 롯데마트 여수점, 대형마트 3개소에 대해서 총 7개의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시식 코너 운영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매장 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금지시키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대형마트 운영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았다.

바. 해수욕장, ‘안심해수욕장’ 운영 및 조기 폐장

무더위와 휴가철로 이동이 많은 여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웠다. 거리두기만 한다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함과 계속되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활에 대한 피로도도 여름 피서객이 많아질 가능성 때문이었다.

여수시는 관내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42일간을 해수욕장 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코로나19 예방활동을 벌였다. 만성리와 방죽포, 장등, 안도, 유림, 모사금, 무술목, 웅천 해수욕장 등 8개소가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신도심에 위치하며 청춘 야영장으로 인기가 높은 웅천 해수욕장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하게 하는 ‘안심해수욕장’으로 지정, 운영했다. 이용자가 적을 시에는 현장예약도 받았다. 방역 요원은 매일 45명씩을 투입했다.

12개소에 발열 체크대를 설치했으며 의심환자 발생을 대비해 격리 텐트 8개 동도 만들었다. 해수욕장 출입구를 유도하는 울타리 420m를 설치했으며 파라솔은 3m 간격으로 설치하고 구멍조끼 대여와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 이용 모두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해수욕장 이용은 하루 3개 시간대로 나누어 각 구간 별로 최대 1천 명이 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해수욕장 이용 수칙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65개를 만들어 8개 해수욕장 주요 도로변과 8개 해수욕장에도 설치했다.



손목밴드 15만 개를 제작, 정상체온인 경우에만 밴드를 착용한 뒤 해수욕장 입장을 허용했다. 개장 기간 동안 여수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12만 3,1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지만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통상 8월 말이었던 해수욕장 폐장일을 8월 21일 자로 조기 폐장한 것은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폐장 이후에도 피서 행락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을 대비해 공무원 등 관리인력을 배치해 입수금지 지도와 방문객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2021년에는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남도 해수욕장을 추가로 운영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2020년에 비해 1일 3명의 인력을 더 투입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발열검사소 또한 작년 대비 1곳을 더 추가 설치해 13곳에서 운영하고, 방역 홍보물은 80개, 안심밴드는 19만개, 소독물품은 247개로 각각 수량을 대폭 늘려 배포했다.

웅천 해수욕장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수용인원 이상의 밀집 이용을 제한했고, 이용자가 적을 경우 현지 서면 예약을 가능하게 해 2년 연속 시민들의 방역과 편의를 모두 배려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여수시 해수욕장 내에서 확진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해수욕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 해수욕장 방역 내용

운영기간	발열 검사소	방역 홍보물	발열 체크기	소독물품 배부	안심밴드 배부	구명조끼 소독
2020년	12	65	20	208	15만개	21,270
2021년	13	80	23	247	19만개	29,121



제5절 사회적 거리두기



01 배경과 과정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감염 예방 캠페인이자 정부의 통제수단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국민 행동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 행동지침으로 나누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던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유지됐다.

국민 행동지침으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연기 혹은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직장이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될수록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 거리를 두도록 했다. 개인위생과 관련해서는 손 씻기와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는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직장에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고 탈의실과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 것을 개인 행동지침으로 요구했다. 이 밖에 마주 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컵이나 식기 등은 개인물품으로 사용하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등이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란 표현을 권장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근거에서 나온 지침이었다.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공기감염 경우에도 효과적이라고 봤다.

1) 2020. 3. 22. ~ 4. 19.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15일간 운영중단 권고

정부는 2020년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 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에 대해 15일간의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15일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 2020. 4. 20. ~ 5. 5.

완화된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완화해 5월 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은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춘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3) 2020. 5. 6. ~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행

정부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3월 22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45일 만이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됐다. 또 종교시설과 체육시설·학원·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운영자제 등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연기가 거듭됐던 초·중·고교의 등교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4) 2020. 6. 28.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해 시행

정부가 6월 28일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5) 2020. 8. 19.

서울·경기·인천지역, 2단계 격상(8.16.) 및 강화된 조치 시행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정부는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인천도 추가하면서 수도권 전역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내려졌고, 해당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6) 2020. 8. 23. ~ 9. 20. 2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8월 22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나, 다만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됐다. 또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이나 활동은 금지됐다.

7) 2020. 9. 4. ~ 9. 1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

정부가 9월 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8) 2020. 9. 14. ~ 9. 2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

정부가 2주간(9월 14~2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9) 2020. 10. 1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0월 12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8월 16일 2단계 상향 이후 57일, 비수도권은 8월 23일 이후 50일 만이다.

다만 확산세가 크게 줄지 않은 수도권과 감소세가 뚜렷한 비수도권 간 1단계 적용 지침을 차별화했다. 즉,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으로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됐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m²(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적용됐다.

10) 2020. 11.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 발표

정부가 11월 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및 2.5단계를 신설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구분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보조 지표
1단계	생활방역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수도권: 100명 미만 - 타 권역: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	①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수도권: 100명 이상 - 타 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	
2단계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다음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전국 800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11) 2020. 12.~ 2021. 1.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정부가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했다. 수도권은 5명 이상 집합 금지하도록 했다.

그뒤로도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17일까지 더 유지되었다.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이후 설 연휴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헬스장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12) 2021.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했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7월 4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고,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13) 2021. 7.~

4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정부가 6월 20일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7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이 해당한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유행/인원제한	권역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대응	일집·일파·일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14) 2021. 11.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2차 접종률도 70% 초반대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당초 세웠던 11월 집단면역 계획이 달성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가능해졌다.

15) 2021. 12.

45일 만에 멈춘 일상회복,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연일 악화 중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화된 거리두기’가 12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됐다.

16) 2022. 2. ~

소상공인 고통 절감 위해 영업제한 시간 조정

정부는 2022년 2월 4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지속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증환자의 수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2월 18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고통 절감을 위해 2월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의 제한을 10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3월 5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연장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기존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7) 2022. 4. 18.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만에 해제

정부는 2022년 4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02

‘사회적 거리두기’ 용어 통일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한 것이다.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다. 기존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됐다.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여러 참고지표를 바탕으로 단계를 조정했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기존 3단계 구분을 좀 더 세분화시킨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놴. 이 지침에는 직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추세에 따라 생활방역 수준을 1단계로, 지역유행 수준을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수준을 2.5단계와 3단계로 구분했다. 시설 종류와 규모, 유행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감염상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지표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 10명 이상)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중 1 충족시 격상) ①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중점관리 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제한	유흥시설집합 금지	집합금지	집합금지
일반관리 시설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제한 확대	이용인원제한 확대	대부분 운영중단	필수외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 시설착용의무화	실외초포츠착용 의무화	실내전체및 위험실 외활동착용의무화	실내전체 및 실외 2m 이내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부과	
모임·행사	500명 이상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콘서트 등 인원제한	100인 이상금지	50인 이상금지	10인 이상금지
기관·기업	적정 비율 재택 근무 실시 권고 (전 인원의 1/5)	적정 비율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스포츠 경기	50% 입장 가능	30% 입장 가능	10% 입장 가능	무관중경기	경기중단
학교수업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고등학교 2/3)	밀집도 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
종교활동	좌석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좌석수 30%모임 식사금지	좌석수 20%	비대면 영상 20명 허용	영상1명 허용
박물관·도서관	가능	50%이내	30%이내		운영중단
체육시설	가능	50%이내	30%이내	운영중단	
경륜·경마장	50%이내	20%이내	운영중단		
공원·휴양림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시설폐쇄				시설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 (2020. 11. 1. 발표, 2020. 11. 7 시행)



03 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1) 유흥시설 집중 관리

집합 금지·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 위생용품 지원도 병행

대구 신천지와 요양원 등을 진원지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4월 6일부터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차,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태원 클럽(유흥주점)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2020년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강경함도 보였다.

여수시는 식품위생과장 등 23명을 유흥시설 점검반에 투입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실시했다. 유흥시설 369개 업소, 단란주점 168개 업소, 콜라텍 3개 업소가 점검 대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여부, 제한적 허용 시설별 준수사항(마스크 착용, 체온계 비치, 출입자 명부작성 등)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마스크 4천 장과 함께 락스 등 위생용품 지원도 병행했다.

2) 방역 사각지대 (외국인 등) 관리

8개국어 홍보물 배포, 방문조사, 방역용품 지원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였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나 방역지침을 어느 정도 숙지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이들 외국인들을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라 판단하고, 2020년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에 외국인을 지원하는 NGO단체의 도움이 절실했다.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등 4개의 NGO단체와 여수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해당지역 이·통장들이 함께 나섰다.

여수시는 우선 이들과 사업장별, 건물(숙소)별 거주인원을 파악하며 직업, 국적, 성별, 연령대를 조사했다. 감염병 예방수칙과 유증상자, 보건소 검사 등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외국어 홍보물을 8개국어로 만들었다.

방역에 필요한 설문조사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한정기로 했다. 미등록 외국인들이 숨어드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은 많았다. 여수시는 총 2,095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을 찾아내 거주 현황을 작성한 후 대면을 통해 개인방역 등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산업 10개소, 유흥업소 100개소 등 사업장 200개소를 돌며 방문조사도 실시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20개소도 파악했다. 또 이들 외국인들에게는 마스크 5,320매와 손 소독제 300개 등 개인방역용품을 지원했다.

2021년 3월부터는 43개소 131명을 대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변경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고, 외국인고용 사업장에는 3회에 걸쳐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했다. 더불어 백신접종 이행을 당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공지사항을 전달, 12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주에 한번씩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도 실시했다.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의 홍보로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3) 개학 앞둔 학생 진단검사

학부모 긴장 해소·발 빠른 대응에 역점

2020년 초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갔다. 3월 개학을 앞둔 시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자녀건강에 대한 학부모 걱정도 컸다. 교육당국은 개학 시기를 3월 26일, 4월 6일, 4월 30일 등으로 계속 미루고 원격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비대면 온라인 개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인프라 부족, 수업일수 문제, 개인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접속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양으며 개학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학습능력 저하를 우려하며 자녀들 관리가 어려운 학부모들의 불만을 커져만 갔다.

이에 교육당국은 단계별로 오프라인 개학, 학교 문을 열기로 했다. 우선 2020년 5월 20일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5월 27일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6월 3일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은 6월 8일에 각각 개학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시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수소방서, 각 학교와 대응체계를 구축해 놓고 1m 이상 자리 배치, 개인 위생·방역용품 비치 등을 마쳤다. 또 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점심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매일 2차에 걸친 발열 체크를 진행했다.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의 방역활동 지침도 공유해 놓고 있었다.

여수시는 개학이 임박해지자 학생들을 상대로 2020년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실시했다. 학생들의 진단검사는 2020년 7월 31일 기준, 어린이집 49명, 유치원생 40명, 초등학교 411명, 중학교 374명, 고등학교 927명, 기타 218명 등 총 2,019명이 대상이었다. 검사 결과 3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가격리시키며 발 빠르게 대응해갔다.

4)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명령

2020년 6월 중순, 대전 방문판매업체발 코로나19 확진자가 50여 명에 다다른 지역에서 n차 전파가 잇따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종교시설이나 학원 등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이미 노출된 상태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판매홍보관 등 방문판매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활동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방문판매업 주요 고객은 전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아 긴장감이 더했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방문판매업 97개소에 대한 1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발령했다. 상품설명회나 교육세미나 등 홍보나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를 모두 차단했다. 미등록이나 미신고, 타 지자체 등록 신고업체 할 것 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했으며 장소를 불문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나 판매 행위 일체를 금지시켰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2020년 9월 5일, 2차로 연장됐다. 이후 9월 12일 홍보관 운영업체 2개소를 제외하고 행정명령을 해제한 후, 2021년 1월 19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모두 해제했다.

여수시는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출입제한 고지문을 부착했으며 시설 이용객들에게는 출입명부(전자) 작성, 영업장 집합금지를 알리도록 했다. 또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미등록업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읍·면·동에 방문판매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며 관리를 해나갔다.

영업주에게는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및 벌칙조항 등을 공문이나 문자로 알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에 나섰으며 4회에 걸쳐 전남도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5) 해외입국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해양경찰교육원, 43일간 753명 입소

2020년 6월 24일 정부는 항만방역 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입국 선원에 대한 격리를 의무화시켰다.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본국 귀국 전까지 임시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6) 보건사업· 프로그램 제한

하루 전인 6월 23일, 러시아인 선원 16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나온 뒤 러시아 선박과 관련된 유증상자 여부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따른 긴급 조치였다. 러시아에서 하선한 선장이 최초 감염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여수국가산단이 입지한 여수지역 역시 외국 선박들의 입출항이 잦은 곳이어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예방활동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는 이미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20년 2월 8일, 중국과 필리핀을 거쳐 광양항에 입항한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 운반선 선원 가운데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인 2명이 이를 알리지 않고 선박 선실에 개별 격리 조치된 사실이 알려져 긴급히 방역당국이 진단검사에 투입됐다.

종전에는 화물 선박만 입항이 허가되어 있고 선원들은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입국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수시는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외입국 선원 임시생활시설로 정해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43일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시설 입소자는 총 7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필리핀 선원이 전체 38.4%, 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157명(20.8%), 미얀마 117명(15.5%)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인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등을 해결해 주며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며 전염병 예방에 공을 들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8월, 인근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2020년 8월 말 기준 여수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명인 반면 순천시는 60여 명으로 심각했다. 순천시는 특히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오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최근 2주간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순천을 방문한 자녀, 확진자와의 동선이 겹치는 사람, 발열 상태, 증상 등을 파악하는 등 말 그대로 비상상황을 연출했다.

여수시는 순천시와 접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커지자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사업특성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와

재활등록 장애인들의 문화체험, 출장 치매 검진, 치매 예방프로그램, 섬 지역 통합의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2020년 8월 21일부터 모두 중단시켰다.

또 1대1 대면 사업으로 추진했던 방문 보건관리사업과 재활 보건의료서비스,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건강상태 전화 모니터링과 문자발송 등으로 바꿨다. 비대면 사업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물품이나 구호물품 필요시에는 방문하여 전달했다.

아울러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재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자조모임 등 재활치료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10~15인 이하 소규모 단위로 운영했으며 1~2m 거리두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7)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소 개소, 1년 동안 7,885건 상담

여수시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재난심리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확진자, 자가격리자와 가족, 코로나 대응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상담소를 열었다. 재난심리지원서비스는 재난정신건강 단계별 반응을 체크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심층사정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심리지원 관련 자료는 '마음 건강 안내서'를 활용했으며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와 연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들에게는 정신건강심리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심리지원서비스는 1년여 동안 3,782명이 7,885건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입을 통해 시민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 성공적 일상복귀를 도왔다.

8) 대표축제·행사 줄줄이 취소

비대면 공모전 및 사진전시회 등 대체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예방은 사람들의 모임을 미리 차단해 접촉을 피하는 방안이 최우선이었다. 여수시는 관광도시 명맥을 잇게 해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았던 대표 축제와 행사 모두를 전면 취소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나섰다.

먼저 해마다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여수영취산진달래 체험행사를 취소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봄 당시 20만 명이 행사장을 찾을 만큼 인기있는 축제였으나 코로나19를 의식해 2020년, 2021년 3월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다만 산신제 행사만 조용하게 치른 뒤 혹시 등산객들이 올 것을 대비해 현장 방역근무를 시행했다.

매년 40만 명이 찾는 여수시 대표축제인 제54회 '여수거북선축제' 역시 취소하고 고유제만 올렸으며 2020년 8월, 스무 번째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도 취소했다. 여수밤바다 유명세와 더불어 2020년 10월에 계획되었던 '2020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미디어 공모전 및 사진전시회를 통해 행사를 알렸다.

9) 각종 행사 취소·프로그램 제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은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에 맞춰 재여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시민 등 1천여 명이 모여 치를 예정이었던 2020년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월드 페스티벌 및 재여외국인 행사'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한마당 잔치를 취소했다.

감염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와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전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2020년 9월 1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영유아와 보육관계자, 학부모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질 예정이었던 '제8회 영유아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했다.

또 연중행사로 어린이들과 보육교사 등이 한데 모여 치른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보육교직원 문화의 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여수이주민 센터 한가위 행사 모두를 전면 취소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적 참여를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했던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20년 9월 21일부터 3일 동안 계획됐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훈련 대신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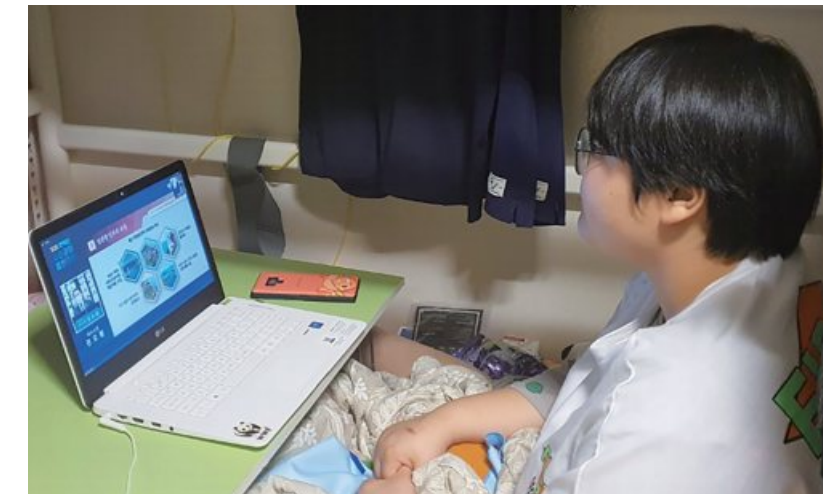
10) 비대면 '시민과의 열린 대화'

동별 참여 인원 100명 이하로 제한 ... 영상대화방 접속

한 해 시정 홍보는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해 매년 초 진행하던 시민과의 대화는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했다. 다만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실시했다. 비대면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해당 지역 읍·면·동과 영상을 통해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휴대폰이나 PC(노트북) 등을 통해 영상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눴다.

프로그램은 권오봉 전 여수시장의 영상 인사와 더불어 시정 성과 및 운영계획, 주요 시정 현안을 영상으로 설명했다.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 온택트 라이브 뮤직 타임도 운영했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이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또 건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은 서면 접수처를 운영, 시정에 반영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역할과 행정의 신뢰도, 만족도를 더한 비대면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동별 참여 인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줌(Zoom)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1) 시내버스 감축 운행

1일 19대, 146회 감축 운행 ... 중·고등학교 등·하교 6개 노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이후 학교마다 개학이 연기되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여수시는 2020년 2월 19일부터 시내버스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인 점을 감안해 1일 19대, 146회에 이르는 시내버스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감축 운행된 노선은 총 6개 노선(2, 80, 81, 88, 555, 777번)으로 대부분 중·고등학교 등·하교 노선이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12) 공공·민간체육 시설물 관리

총 347개소 대상, 시·체육회·경찰서 등 합동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에도 큰 변화를 줬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든 활동이 제한되었다.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각별한 이용과 관리, 대중 예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벌였다. 공공체육시설 47개소와 민간체육시설 300개 동 총 347개소가 대상이었다. 주관부서인 체육지원과는 물론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여수시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여수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과 방역 지도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약 2년 간 33,697회에 걸쳐 체육단련장을 포함한 민간체육시설만 378개소를 점검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공공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

일시	추진 내용
2020.7.3. ~ 7.6. (1차) 8.22. ~ 10.11. (2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공공체육시설 폐쇄)
12.8.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30%제한)
2021.2.15.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6.14.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행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 70%)
7.16.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금지, 스포츠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 50%)
7.26. ~ 8.1.	여수시민 긴급멈춤 주간 (공공체육시설 휴관)
8.2.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집회 : 50명 이상 금지, 행사 : 50명 이상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11.1. ~	단계적 일상회복 : 1차 개편 (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 수용인원50%)
12.18.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가능/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음식섭취 금지)
2021.12.23. ~ 2022.1.16.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 목욕탕 운영 중단 (관내 사우나 시설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지역확산 방지)
2022.2.4.~2.10.	실내 공공체육시설(수영장) 휴관
2.19. ~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출입자 명부작성 중단/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가능/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실내 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 50%)
3.5. ~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가능/접종 구분 없이 2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실내 체육시설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4. ~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거리두기 해제/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5.2.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실내체육시설, 실외 50인 이상 참석 행사, 실외 50인 미만 행사 경우도 체육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권고)

민간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

일시	추진 내용
2020.8.22.~9.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민간체육시설 중 정부 고위험관리시설 20개소 운영 중단, 체육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방역수칙 지도·점검, 정부·도·경찰서 합동 지도 점검 실시, 소독약품 지원 및 방역 실시 : 주 1회/여주시 지원 비접촉 체온계 무상지원/88개소 고위험시설(GX류) 방문자 정보관리 [전자출입명부 등록])
12.8.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체육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방역준수 지도·점검, 정부·도·읍면동·경찰서 합동 지도 점검 실시)
2.15.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준수 지도·점검, 정부·도·읍면동·경찰서 합동 지도 점검 실시)
2021.5.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4㎡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6.14.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행 (6㎡당 1명 인원 제한, 정부·도·읍면동·경찰서 합동 지도 점검 실시)
7.16.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행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7.22.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수영장 22시~오전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샤워실 운영 금지, 민간체육시설 소독제 및 마스크 지원)
11.1. ~	단계적 일상회복 : 1차 개편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운영시간, 밀집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 80개소 소독약 배부 및 올바른 소독방법 지도·점검)
12.18.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음식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실외체육시설 : 운영제한시간 없음, 정부·도·읍면동·경찰서 합동 지도 점검실시-방역패스 및 운영시간 제한 지도점검)
2022.2.19.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 22시~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출입자명부 관리 중단, 080안심콜 중단, 민간체육시설 KF94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 정부·도·읍면동·경찰서 합동 지도 점검실시-방역패스 및 운영시간 제한 지도점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안내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원 안내)
3.5.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잠정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 22.3.1.~, 실내체육시설 : 23시~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4.18.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해제, 실내체육시설 내 취식금지 : 4월 25일부터 취식 허용)

방역반 구성 및 점검 기간

분류	점검반 구성	점검 기간
1)	체육지원과, 여주시 도시관리공단, 여주시체육회	
	▲ 체육지원과 (공공·민간체육시설) - 상황관리반 : 4명 (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팀장, 담당주무관) - 현장점검반 : 26명 (6개조/ 2인1조)	2020.3.23. ~ 2021.7.23. (16개월)
	▲ 도시관리공단 (신고시설 점검·지도)	
	▲ 여주시체육회 (미신고 시설조사 지원)	2020.3.23.~2021.5.13.(14개월)
2)	체육지원과, 읍·면·동, 여수경찰서	
	▲ 체육지원과 (공공·민간체육시설) / 5개팀 191개소	2021.7.26. ~ 2022.4.22. (9개월)
	▲ 읍면동점검반 (신고시설 점검·지도) / 22개팀 189개소	
	▲ 여수경찰서 (경찰합동점검) / 8개조 (2인1조) ※ 순찰차 및 정복경찰관	

13) 낭만포차 자체 방역단 구성

매일 1시간 예방방역·업주 대상 행동수칙 교육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본격화되던 6월, 여수 밤바다 여행 코스 중의 하나인 낭만포차에 대한 코로나19 집중 방역에 돌입했다. 2명 1개조를 지도 점검 반으로 편성한 여수시는 낭만포차 자체 방역단과 함께 매일 3명씩 6개조를 투입 해 영업 전인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코로나19 예방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은 포차 주변에서부터 광장, 화장실, 배수구, 난간 뒤편, 방문객 동선 구간에 걸쳐 광 범위하게 실시됐다.

지도 점검반은 낭만포차 영업 전 업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등 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포차 마다 손 세정제를 출입문 입구에 비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도록 계도했다. 포차 주변에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알리는 현수막과 야광 입간판, 피켓 등을 설치해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포차 종사자 전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줄서기를 금지시키는 대신 대기자 명단을 작성, 전화로 알려 순서대로 입장토록 조치했다. 2021년에만 약 20만 3,520여명의 관광객이 낭만 포차를 찾았지만,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성공적으로 방역이 마무리 되었다.

14) 전남도내 첫 공무원 재택근무 실시

1일 평균 3백명(20%) 재택근무

여수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당시 순천과 광양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3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여수시 일부 직원들이 순천에서 출·퇴근하고 있었고 순천지역 확진자는 폭증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여수시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큰 시기였다. 이에 여수시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사적 모임 자제, 부서 회식 금지, 불필요한 대인접촉 자제 등 출퇴근 외의 외출을 삼가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며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행했다. 12월 19일까지 실시된 여수시 공무원 재택근무는 필수인원과 현장근무자를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746명이 대상이었다.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우선 권장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위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사전 등록(승인)하는 한편 서울행정시스템을 활용, 자택에서 출·퇴근 여부를 입력토록 조치했다. 외출을 삼가고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자가격리에 준하는 조치였다. 또 숙직 대체휴무나 발열 감시 근무일과 재택근무일이 가급적 일치하도록 편성해 민원 대응 등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수시 공무원 재택근무는 하루 평균 약 3백 명(20%)의 직원이 부서별, 자율적으로 이용했으나 민원(복지)서비스 등 대민업무가 대부분인 지자체 업무 특성상 참여율과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12월 21일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했다. 변경된 재택근무 비율은 직원의 3분의 1, 실제 약 20%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최대 10% 범위 내로 한정했다.

여수시는 2021년 4월 19일, 업무 효율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등으로 재택근무제를 전면 폐지했다.



여수시청 전직원 선제 검사

15)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등록·미등록 근로자 총 3,612명 검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숨은 확진자를 발견하는 것이 방역·예방 활동 못지않게 큰 과제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불법 입국자가 많아 특별한 관리를 해야만 했다. 여수지역은 수산양식이나 선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면서 심각성이 더했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1차 점검은 희망사업장으로 인재화학, 부영건설, 덕천개발, 진성원앙 등 4개 업체 179명에 대한 선제 검사였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2021년 2월 22일부터는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미등록된 외국인들을 찾아 모두 검사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우선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이해와 지원을 위해 무료검사와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1,784매를 배부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40여 일간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2차 검사에는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3,138명과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295명 등 총 3,433명이 검사를 받았다. 1,2차 합계 3,612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선제 검사 결과 30대 확진자 1명을 찾아냈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순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 조치했으며 일부 접촉자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부서별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현황 (2차 기준) (단위 : 명)

구분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유학생	기타
3,433	963	20	1,012	439	299	209	491
관리부서	수산경영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식품위생과	교육지원과	



업무·일상·여가 등 상황별 수칙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동의 방역·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각 읍·면·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는가 하면 자원봉사를 통해 예방수칙 홍보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을 합쳤다. 마을 단위 행사나 축제는 취소하거나 모두 연기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집합장소에 대한 방역은 민·관이 하나되어 움직였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예방활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 방역을 일상화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들이 빛난 방역·예방 활동이었다. 최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려 힘과 지혜를 모은 읍·면·동 방역·예방활동을 간추렸다.

읍·면·동 방역·예방활동

구분	일시	내용	비고(참여인원)
서강동	’20.2.1. ~ 7.31.	해태동백타운, 서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9명(공무원, 자율방역단 8명)
울촌면	’20.2.3. ~ 12.31.	다중시설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공무원 10여 명
광림동	’20.2. ~ 8.	경로당(취약지역),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50여 개소 일제 방역소독	30여 명 (공무원, 자율방역단)
화양면	’20.2. ~ 12.	다중이용시설(경로당,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방역 소독	30여 명 (직원 및 자율방역단)
동문동	’20.2.3. ~ 12.31.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지침 홍보(20개소) (통장회의 14회, 마을방송 14회)	10명
광림동	’20.2.3. ~ 8.26.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지침 홍보(40개소) (마을방송, 홍보전단)	17명
묘도동	’20.2.8.	제20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취소 (농악놀이, 불꽃놀이, 달집태우기 등)	주민 200여 명
미평동	’20.2.20.	경로당 무료방역(미평동 경로당 외 11개소)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 8명
여서동	’20.2.21. ~ 3.1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다중 집합시설 방역 (경로당, 버스정류장, 육교 등 다중집합시설)	20여 명
울촌면	’20.2.25. ~ 7.31.	경로당 및 취약지 마을 방역(주 2회)	40여 명(직원, 이장 등)
묘도동	’20.2.27.	다중집합장소(경로당7, 마을회관5, 버스승강장5 등) 청결활동 및 방역소독	12명(GS칼텍스5, 자생단체5, 직원2)
월호동	’20.2. ~ 10.	다중이용시설(경로당 등) 방역소독	8명(자율방역단)
화양면	’20.2. ~ 12.	자생단체(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 등) 예방수칙 교육 및 주민 홍보	주민 80여 명
월호동	’20.2. ~ ’21.3.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예방수칙 교육 및 주민 홍보	45명
화정면	’20.2. ~	다중이용시설(경로당, 여객선대합실, 관광지 등) 방역소독	자율방역단, 직원
문수동	’20.2. ~ 12.	문수동 일원 및 경로당 등 취약지 집중방역 (경로당15, 사회복지·종교시설, 버스승강장 등)	자생단체회원 100여 명
삼산면	’20.3.5./3.12~13.	여객선터미널, 거문리상가, 손죽도,초도 방역소독	26명(직원, 이장단)
울촌면	’20.3.6.	민관합동 위생취약시설 방역소독	3개 조, 30여 명 (새마을회 회원, 직원)
시전동	’20.3.6.	다중집합시설(신기시장, 경로당, 버스승강장) 17개소 방역	15명(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소라면	’20.3.6.	다중이용시설(버스승강장 등) 20개소 방역	30여 명(새마을회 회원, 직원)

구분	일시	내용	비고(참여인원)
여천동	’20.3.6.	다중이용시설(버스승강장 등) 30개소 방역	15명(새마을회 회원, 직원)
대교동	’20.3.6. ~	‘함께하는 민간특별방역단’ 가동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방역)	30여 명(통장단, 주민 자치위원, 공무원 등)
화양면	’20.3.7.	다중이용시설(공중목욕탕, 복지시설) 방역	주민자치위원 10여 명
돌산읍	’20.3.7. ~ 8.	다중집합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70개소 방역소독	44명(자율방역단)
삼일동	’20.3.9./3.12./ 3.18.	다중집합시설(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50개소 방역소독	30여 명(새마을협의회회,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직원)
동문동	’20.3.9. ~ 10.31.	요일 순번제 방역봉사 추진(관내, 주요관광지 중심)	통장협의회 등 5개 단체
한려동	’20.3.10. ~ 8.13.	다중집합장소(경로당, 체육시설, 주택밀집지역) 방역소독 6회	자생단체, 직원
만덕동	’20.3.11.	다중이용시설(노인주간보호센터, 버스승강장 등) 35개소 방역소독	15명(직원5, 자율방역단 10)
삼산면	’20.3.12.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직원 15명
중앙동	’20.3.13./ 5.6.	주요관광지 및 주민생활공간 일제방역 (5월 연휴기간 코로나19 안정화 방역)	70여 명(주민자치위원, 통장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묘도동	’20.3.13.	전 세대 살균제 방역소독 (총 611세대, 경로당7, 어린이집, 교회 등)	18명(청년회,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쌍봉동	’20.3.19.	쌍봉·제일·진남시장 상가 자율방역	8명(시장 상인회)
여서동	’20.3.20.	경로당 10개소 방역	10명(한화솔루션 봉사단)
소라면	’20.3.30. ~ 4.3.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다중이용시설 63개소 대상)	20여 명(직원)
국 동	’20.3. ~ ’21.3	취약지 및 다중이용시설(보육원, 체육시설 등 38개소) 방역소독	20여 명(자율방역단)
서강동	’20.3. ~ 7.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10회 (월 2회)	20명(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미평동	’20.3. ~ 8.	학교·다중이용시설,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방역소독 (11회)	109명(자생단체, 봉사단체, 주민 등)
한려동	’20.4.8./ 7.17	코로나19 예방수칙지키기 캠페인	20여 명(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직원 등)
남 면	’20.4. ~ 지속	다중이용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대합실, 공중화장실 등) 집중 방역소독 (24개 마을)	28명(마을자체방역단 24, 직원4)
쌍봉동	’20.4.3.	버스정류장 등 편의시설 방역소독	30명(자치위원 20, 21세 기 로터리클럽 회원 10명)

구분	일시	내용	비고(참여인원)
여서동	'20.4.15.	관내, 마을안길, 하수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취약지 자율방역	5명(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시전동	'20.4.20.	신기시장, 버스승강장, 경로당 청결활동 및 방역	25명(주민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남 면	'20.4.25.	제7회 면민화합 한마당행사 잠정 연기	주민 1,500여 명
시전동	'20.4.29.	‘황금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홍보’ 캠페인 (다중 인원 이동구간 4개소)	75명(통장협의회, 직원)
동문동	'20.4.29./ 5.4./8.31.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 (해양공원, 낭만포차 등 주요 관광지)	30명(통장협의회, 자생단체, 직원)
울촌면	'20. 4월경	반월마을 유채꽃 축제 취소	
만덕동	'20.5.4.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방역(22개소)	19명(통장단)
광림동	'20.5.6./8.31./9.23.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70명(통장단, 자치위원, 직원)
시전동	'20.5.7.	신기시장·버스승강장(28개소)·경로당(31개소)·주요도로변 상가 방역	50여 명(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둔덕동	'20.5.7.	경로당 운영재개를 위한 방역(7개소)	10여 명(자율방역단)
쌍봉동	'20.5.14.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쌍봉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2개소)	30여 명(자치위원, 직원)
주삼동	'20.5.20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다중이용시설 5개소)	20여 명(통장협의회, 직원)
충무동	'20.6.16./8.14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공원·어린이집·버스승강장) 청결 및 방역	30여 명(직원, 새마을 남녀협의회)
만덕동	'20.6.19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복지시설) 방역(23개소)	주민자치위원회
시전동	'20.6.20. ~ 7.31.	흥국상가(150개소) 및 상가 내 주요도로변 방역	흥국상가상인회
삼일동	'20.6.22.	경로당 18개소 방역	10여 명(GS칼텍스, 직원)
문수동	'20.6.25.	경로당 15개소 에어컨 청소 방역	20여 명(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직원)
충무동	'20.7.8.	생활 취약지(빈집,하수구,쓰레기집하장 등) 방역	16명(통장협의회)
둔덕동	'20.7.8.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둔덕11호 광장, 둔덕삼거리)	20여 명(통합협의회)

구분	일시	내용	비고(참여인원)
주삼동	'20.7.9.	다중이용시설(버스승강장 등) 방역 및 결핵동	20여 명(새마을회, 직원)
여천동	'20.7.20	경로당(20개소) 에어컨 청소	20여 명(새마을지도자회원, 직원)
월호동	'20.8. ~ '21.3.	경로당(11개소)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방역물품 배부	50명(직원, 노인회장, 경로당이용자)
충무동	'20.8.13	경로당(9개소) 청결활동	25명(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미평동	'20.8.25	여주시 부서중 최초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QR코드 인증 시스템)	
화양면	'20.8.27. ~	코로나19 방역수칙 마을 방송(매일 2차례)	31명(마을 이장)
충무동	'20.5.14.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관내 일원)	50여 명(통장, 새마을지도자)
여서동	'20.8.28. ~	취약계층 안부살피기 추진 (복지대상자 447세대)	10명(복지지원팀, 맞춤형복지팀)
묘도동	'20.9.23.	추석연휴 ‘이동멈춤’, ‘가족간 거리두기’ 캠페인 및 청결활동 (이순신대교 홍보관 일원)	새마을부녀회
여천동	'20.9.28	추석연휴 ‘이동멈춤’, ‘가족간 거리두기’ 캠페인 (시외버스터미널~성산공원 대로변)	80여 명(자생단체 회원, 직원)
울촌면	'20.9.28.	덕산마을 방역(추석 명절맞이)	10명(바르게살기협의회, 직원)
여천동	'20.9.29.	추석맞이 다중집합장소(시외버스터미널 등) 방역	20여 명(바르게살기협의회, 직원)
국 동	'20. 9월 중	‘국동 한마음 나눔행사’ 취소	주민 1,000여 명
소라면	'20. 9월 경	제13회 여수여자만 갯벌노을체험행사 취소	3만여 명
소라면	'20. 11월 경	제2회 소라면 농·특산물 행복장터 취소	주민 2천여 명
묘도동	'20.11.6.	제27회 묘도동민의 날 및 제6회 여수이순신대교 축제 취소	주민 1천여 명
여서동	'20.7.20	종교시설(33개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준수 협조 요청	10명(직원)
남 면	'20.12.28./12.30.	이장회의 권역별 분산 개최(3개 권역)	
동문동	'21.3.19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해양공원 일대)	20명(세계로 3대시민운동 실천본부, 직원)



제3장 지원활동



제1절 여수형



01 전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

1)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시민 1인당 25만 원 ... 총 692억여 원 지급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던 2021년 1월,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어 자체 예산으로 여수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동안 생활 불편과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해 준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 위한 조치였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8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다문화 가족 등 여수시민 28만 5천여 명으로, 예산은 712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여수시는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은 계좌 입금으로 일주일 내에 처리했다. 외국인 중 다문화 가족과 1월 18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신고자도 출생신고를 마칠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1년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첫 주인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했다. 2월 8일부터 26일까지는 전 시민이 신청 가능하도록 5부제를 해제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가족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해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따로 신청하도록 했다. 선불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여수 지역 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수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 27만 9,721명 가운데 98.1%인 27만 4,467명이 신청해 총 692억여 원이 지급됐다. 신청하지 않은 5천여 명은 상당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이의신청을 두고 지원을 해 나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이들에게 써 달라는 기부자가 많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여수시는 기부를 원하는 시민의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를 받았으며 추후 세입으로 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여수시민들의 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상위 10개 업종이 전체 사용 금액의 60%, 사용 건수의 64%를 차지했고 총 사용 업종은 188개로 시내 전역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루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여수시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전시민 1인당 20만 원 ... 총 545억여 원 지급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관광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만 갔다. 시민들 또한 지속된 모임 금지와 긴급 이동멈춤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져 있었다. 2022년 1월부터는 여수지역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여수시는 긴급 이동멈춤에 적극 협조해 주고 코로나19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시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힘입어 지체없이 진행되었다. 신청기한은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25일이며,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2021년 12월 27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었다.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활용해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전 시민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전 세대 우편 발송으로 신청서가 동봉된 안내서와 홍보물을 배부해 신청서 사전 작성으로 지급 소요 시간을 단축했다.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방법은 선불카드와 여수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 현장에서 바로 지급했다. 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하고, 훼손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일상회복지원금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수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의 최종 신청률은 98.55%로, 대상자 27만 6,762명 중 27만 2,758명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최종 지급금액은 약 545억여 원으로 오랜 경기 침체에 활기를 잃어가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었다.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내역

(단위 : 명/천원)

지급 대상	신청률	신청 수 (A+B)	계	오프라인(A)		계	이의신청(B)		지급 금액
				선불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상품권	
276,762	98.55%	272,758	271,039	164,014	107,025	1,719	1,278	441	54,551,600

02

코로나19 격리자·확진자·사망자 지원

1)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생활지원

여수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했다. 생활수칙 안내문에 따른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들이 대상이었다.

먼저 2020년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로 1회 1개월분을 지급했다. 2022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주민등록표상 가구 내 격리자 수 기준으로 1회 1개월분을 지급했다. 또한 2020년 3월 6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자가격리자 29,261세대 33,025명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33,025세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생활필수품은 다양한 즉석식품 및 생필품 등 3만 7,000원 상당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급액

(단위 : 가구/명/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4.30.기준)
지원가구	12,908	243	2,449	10,216
지원인원	37,094	767	7,146	29,181
금 액	8,838,263	193,784	2,005,508	6,638,971

🔗 지급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생필품 지원현황

(단위 : 명/박스/천원)

운영기간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현황	지원예산
	계	개인	봉황산		
계	33,025	30,788	2,237	33,025	1,046,990
2022년	15,055	14,955	100	15,055	578,718
2021년	16,446	14,863	1,583	16,446	449,943
2020년	1,524	970	554	1,524	18,329

🔗 생필품 내역

품목	즉석밥	짜장 라면	라면	카레	짜장	생수	초코 파이	물티슈	누룽지	볶음 김치	김
수량	4입	5입	5입	1개	1개	2리터	1개	100매	150g	200g	9단
가격	6,000	5,000	4,000	2,000	2,000	1,800	3,700	2,000	3,500	4,000	3,000

2)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전파방지
비용 지원

여수시는 2020년 2월 29일부터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자 전파방지 비용을 지원했다. 장례비는 인당 1천만 원으로 격리 기간 내에 사망한 확진자가 그 대상이 었다.

🔗 장례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자	110명	1명	5명	104명
유족 장례비용(정액)	1,000,000	10,000	50,000	940,000
예방조치 비용(실비)	155,477	2,187	12,014	141,276

03
의료·유관 기관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가 계속 됐다. 각 기관과 단체들과 하나 되어 혹시나 모를 방역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방역물품은 정부에서 지급한 보호장비 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여수시는 2020년 1월, 재난안전기금을 통해 선별의료기관 4개소와 유관기관 3 개소, 임시검사시설,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을 했다. 우선 선별진료소와 의료기 관과 해외입국자 수송요원에게 개인보호구를 구입, 지급했다. 관내 유관기관인 경찰과 해경, 소방서 또한 출동 업무 시 유증상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어서 보호복을 미리 구입해 지급했다.



☉ 코로나19 방역물자 지원현황

(단위 : 벌, 통, 개)

배부처	라면	레벨D 보호복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50컬레)	살균티슈	알콜 (4리터)
계	13,815	4,141	5,350	1,224	2,410	400	60
여천전남병원	4,039	600	2,350	274	700	100	15
여수전남병원	2,365	450	1,000	100	700	100	15
제일병원	2,315	400	1,000	100	700	100	15
한국병원	1,915	400	1,000	100	300	100	15
여수소방서	100	100					
여수경찰서	101	101					
여수해경	20	20					
교통과	610	300		300	10		
여수교육청	300			300			
보건지소	800	600					
진료소	1,120	1,120					
봉황산휴양림	130	50					



04

시설 및 단체 지원

☉ 코로나19 방역물자 지원현황

(단위 : 벌, 통, 개)

구분	지원일자	지원대상	시설수 / 인원	지원수량(개)
총계				268,605
1차	2022. 3. 3.	소계	257	44,550
		어린이집	135	26,425
		노인사회복지시설	124	18,125
2차	2022. 3. 7.	어린이집	133	15,000
3차	2022. 3. 10.	임신부	783	8,625
4차	2022. 3. 17.	소계	327	44,624
		어린이집	133	14,960
		노인의료복지시설	30	3,420
		재가노인(주야간)	32	5,660
		노인공동생활가정	3	80
		재가노인(방문요양)	59	9,440
		학대피해아동쉼터	1	39
		장애인주거복지시설	14	62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	318
		노숙인시설	1	275
		아동복지센터	4	387
		지역아동센터	40	423
		다함께돌봄센터	5	45
		임신부	선착순	8,950
5차	2022. 3. 17.	어린이집	133	29,900
6차	2022. 3. 28.	소계	124 / 18,772	56,144
		노인의료복지시설	30	3,420
		재가노인(주야간)	32	5,660
		노인공동생활가정	3	80
		재가노인(방문요양)	59	9,440
7차	2022. 3. 30.	기초수급자 등	18,772	37,544
		어린이집	133	29,900
8차	2022. 4. 8.	사회복지시설	338	39,862
9차	2022. 4. 25.	사회복지시설	10	3,300



1) 여성·아동시설 방역물품 지원

5종 16만여 개 물품 ... 열화상카메라·가림막 설치 지원도

여성과 아동시설 등 코로나19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과 물품 지원도 실시했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함께 소형마스크 구매가 어려웠던 가정 및 어린이집 마스크 구입에 여수시가 직접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2020년 2월 4일부터는 여성복지시설 9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어린이집 144개소 등 여성·아동시설 224개소에 대한 방역물품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하며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벌였다. 이들 시설에는 마스크 15만 3,723매와 손 소독제 8,453개, 체온계 414개, 살균소독제 1,074개, 붙이는 체온계 4,500매 등 총 5종 16만8,173개를 지원했다.

2021년에 들어서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상대로 한 방역물품 지원은 계속됐다. 여수시는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 어린이집 14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0개소 등 아동시설 180개에 대해서 총 7,860만 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와 손 소독 디스펜서, 아크릴 가림막 설치를 지원했다.

2) 노인·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지속적인 방역물품 지원 ... 기관 단체의 방역소독 봉사 '호평'

여수시는 2020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여수지역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물품 지원활동을 벌였다. 지원대상은 노인

복지시설 129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 경로당 526개소 등 총 683개소이다. 여수시는 이들 시설에 비접촉식 체온계 590개와 손 소독제 1만54병, 마스크 4만3,950개, 락스 3,622병, 항균 물티슈 5,786개를 각각 지원했다. 또 2021년 초에는 노인과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제한적 접촉 면회 시 사용되는 보호용구(보호복, 신발커버,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225세트를 노인과 장애인시설 51개소에 각각 지원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종사자와 314명의 장애인이 생활 중인 13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7,209개와 손 소독제 28병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노인 및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물품도 지원했다.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의 노인 1개 단체와 장애인 11개 단체에 대해서 손 소독제 총 52병과 면 마스크 1,750매를 각각 지원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6개소에 마스크 8,320매와 자가진단키트 450매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기업체와 자원봉사자 및 읍·면·동 자생단체 등 후원단체들은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봉사활동을 펼쳐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3) 민간체육시설

가. 방역물품 지원

여수시는 2020년 3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민간체육시설 164개소에 대한 방역지원활동을 벌였다. 방역의 경우 매일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던 것과 별도로 시 주관으로 매주 1회 방역 지원을 했다. 또 손 소독제 등 소독약품과 비접촉 체온계 88개의 물품도 지원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민간체육시설 300개소를 대상으로 지급된 전남형, 정부형 긴급재난금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 홍보와 함께 손 소독제(500ml) 724병과 마스크 2만 6,000개를 배부하는 등 이들을 관리, 지원해갔다.



나. 시설·업소당 50~200만 원 지원

찾은 영업시간 제한과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등으로 민간 체육시설의 경영 위기는 매우 컸다. 여수시는 이들 민간체육시설이 매출 감소와 운영 중단 등이 폐업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며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원된 민간체육시설 생활 안정자금은 체육도장과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업 463개 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볼링장, 탁구장, 특공무술 등 자유업 175개소, 총 638개소가 대상 시설이었다. 지원자격은 2020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거주하는 민간체육시설 대표자로 한정했다.

4)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지급

단체·공연업체·예술인 50~100만 원씩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된 가운데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커져만 갔다. 여수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폈다.

먼저, 2020년 6월 3일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수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대상은 음악과 무용, 연극, 공연, 전시 등 전문문화예술단체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여수시에 둔 단체였다. 또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문화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꼽았으며 법정운영비 보조금 단체나 개인사업자, 단순 동호회 모임은 배제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선별된 79개 단체에 단체별 50만 원 상당의 여수 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총 3,95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공연 업계도 지원 대상이었다.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공연 관련 업체가 늘어나자, 여수시는 도비 40%와 시비 60%를 투입해 공연 관련 업체에 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연간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으로 개업 시기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 규모가 감소하고,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상 주업종이 관련 코드에 해당하는 업체 혹은 기타 공연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었다. 2021년 9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시행된 이 사업으로 20개소, 총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5) 교육시설 (학원·교습소) 지원금 지급

휴원율 54% ... 총 691개소 50만 원씩

학원이나 교습소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이 가중됐다. 여수시는 학원과 교습소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전부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을 권고해왔다. 그 결과 여수지역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이 54%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모범을 보이며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020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상대로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541개소와 교습소 150개소 등 총 691개소였으며 개소당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총 3억 4,55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폐원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 목적이었다.



6) 종교시설 지원금 지급

밀적접촉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 우려가 큰 시설 중 하나가 종교시설이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사태가 대유행으로 번지던 사례를 경험하며 종교 시설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더욱 컸다. 정부(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한 후 시선은 더욱 집중됐다.

여수시는 관내 689개 종교시설에 지속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 집회 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진행 등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 종교 등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을 상대로 30만 원씩, 총 2억 6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협력관계를 유도해 갔다.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4월 9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28일부터 지급되었다.

0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1만1천여 개소 대상 다양한 물품 지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가장 민감했던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도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여수시는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 1만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락스,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장갑, 살균 소독제, 위생 도마, 찬기, 수저집 등 8개 품목 5만 7,710개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는 식품접객업소 6,397개소에 비대면 온도측정기 6,266세트, 마이크 덮개 1,465세트를 배부했으며, 2022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식품공중위생업소 7,000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42,000매를 배부했다.

2) 다중이용시설·피해기업 지원

가. 방역물품 지원

여수시는 2020년 2월부터 1년 동안 다중이용시설 50여 개소와 피해 우려 중소 기업들을 돌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들 다중이용 시설과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해 하루 5명씩, 연인원 1,165명의 공무원을 투입 했다.

우선 컨벤션시설과 박람회유치기념관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에 손 소독제 50 개, 발열 체크기 14개를 지원했다. 또 13개 학회가 치른 MICE 회의 시에는 손 소 독제와 마스크, 위생장갑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약취소와 매출 하락이 우려되는 여행, 숙박, 음식점에 대해서도 신규 자금 지원과 기존 금융계약 연장 을 주도하며 경영 안정에 힘썼다.

여수시는 또 2020년 4월 9일과 13일 2회에 걸쳐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방 역물품을 지원했다. 지원된 방역물품은 1회용 마스크 8,655매와 손 소독제 1,000개로 다중이용시설인 외식과 숙박업소가 주 대상이었다. 마스크는 중국 우호 도시인 리수이시에서 후원한 1회용 마스크였다.

나. 재난지원금 지급

위생업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운 영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총 1억 9500만원의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2021년 12월 27일에는 자율휴업(2021.12.27. ~ 2022.1.2.)에 참여하는 목욕장을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목욕장 내의 미용실, 음 식점, 매점 등에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 방역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 사업자들을 지원했다.

방역물품 지원 현황

품목	업종	지원업소수	업소당 지원개수	합계
합계 (10개 항목)		15,928		58,010
락 스	소 계	8,335		6,806
	일반음식점	5,209	1	3,058
	휴게음식점	849	1	849
	제과점	92	1	92
	민박업소	360	1	360
	숙박업소	360	1	360
	집단급식소	58	5	290
	도시락제조	27	5	135
	수산물시장	87	3~5	369
	모범음식점	140	1	140
	관광지주변음식점	833	1	833
	유흥주점	320	1	320
마스크	소 계	1,313	235	25,210
	유흥주점	320	5	1,600
	여수 맛 애플리케이션 음식점	711	10	7,110
	시민할인업소	72	200	14,400
	목욕장업	84	10	840
	이용업	126	10	1,260
면마스크	소 계	4,959	19	22,130
	일반음식점	3,058	5	15,525
	휴게음식점	849	5	4,245
	제과점	92	5	460
	미용업(헤어)	530	2	1,000
	미용업(피부)	430	2	900
손소독제	소 계	629	5	825
	일반(도민안심)	98	3	294
	농어촌민박	350	1	350
	숙박업소	181	1	181
위생장갑	소 계	98	2	196
	일반(도민안심)	98	2	196
투명마스크	소 계	98	2	196
	일반(도민안심)	98	2	196
살균소독제	소 계	98	1	98
	일반(도민안심)	98	1	98
위생도마	소 계	98	1	98
	일반(도민안심)	98	1	98
1인찬기·집게	소 계	150	45	6,750
	일반(도민안심)	150	45	6,750
개별수저집	소 계	150	1,250	187,500
	일반(도민안심)	150	1,250	187,500

3)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이자 보전·융자 규모 확대 등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자 우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 규모와 이차보전을 확대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안전정책을 펴 나갔다. 2020년 1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융자를 당초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차보전을 위한 재원 역시 9억 원 이던 것을 12억 원으로 3억 원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5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추천했으며 대출금리 연 3%를 2년간 지원하기도 했다. 여수시의 이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 3,303개 업체가 289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이나 제조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융자 한도 2억 원 내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여수시는 2년간 이들 기업에 지원하는 이자 2.0~2.5%를 당초 3억 원에서 3억 8,300만 원으로 늘려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며 자금난 해소를 도왔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돕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에 1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2명의 직원을 각각 배치시켜 소상공인 지원 구비 서류 접수 등의 업무도 도왔다.

또한 2020년 4월 9일과 13일, 2회에 걸쳐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및 다중이용시설에 1회용 마스크 8,665매와 손 소독제 1,000개를 지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MICE 개최 인센티브 행사를 개최 시 손 소독제와 발열체크기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4) 전통시장 방역 물품 지원

여수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시장, 교동시장, 수산시장, 수산물특화시장, 진남시장 등 여수지역 전통시장 14개소와 상점가 2개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체방역 소독 물품을 지원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미리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들 상인에게는 마스크 1만2,345매와 손 소독제 160개, 비접촉식 체온계 32개, 방역 소독제 222개 등 5종, 1만2,759개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흥주점 지원금 지급

업소당 30만 원 ... 92% 수령

여수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정부 권고로 휴업이나 영업 중 준수 사항을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 유흥업소에 대한 지원은 2020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방역 소독과 체온 체크, 출입자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이행한 업소들이 대상이었다.

여수시는 클럽과 유흥업소 370개소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0만 원씩, 총 1억 1,100만 원을 지급했다. 지역경제를 위해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신청업소는 339건, 91.6%가 이를 수령했다.

6) 노래연습장업 지원금 지급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노래연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여수시는 노래연습장업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여수시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이며,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다.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18개소에 1억 1,180만 원을 지원했다.

7) 집합금지 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632개 업체 각 100만 원씩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2021년 5월 16일 이전에 여수시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로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소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업종	담당부서	지원대상	지급건수	신청률
합계	2개 부서	631	631	100%
유흥시설5종·홀덤펍	식품위생과	511	511	100%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120	120	100%

8) 장례식장·결혼식장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집합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에 여수시는 2021년 9월 30일, 전남도와 함께 관내 8개소의 장례식장에 각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2021년 10월 29일에는 결혼식장 8곳에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해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9) 여수시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업체당 100만 원, 2천여 개소 14억 원 ... 불평등 해소

여수시는 정부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었지만 온라인 신청이 미숙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 소상공인사업체 2만 990개소 중 정부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2,000여 개 업체로 업체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2022년 5월 3일 기준으로 총 1,378개소에 13억 7,8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정부 방역지원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여수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나서기 위한 것이었다.

06

관광·운수업체 및 종사자 지원

1) 대중교통 운수업체

가. 방역물품 지원

버스와 택시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대중교통 운수업에 대한 방역물품은 2020년 2월 3일 1차에 이어 2월 23일, 3월 9일, 3월 24일, 4월 9일, 9월 23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지원했다. 택시의 경우 법인택시 627대와 개인택시 810개가, 시내와 농어촌버스 업체 9개소가 각각 지원대상이었다. 이들 대중교통 운수업체는 승객들의 감염병 예방이 주된 임무여서 개인위생에 관련된 방역물품을 주로 지원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방역물품 지원현황

구분	합계			여수시			전라남도 및 자매도시 후원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계	36,017	194	402	25,225	194	402	10,792	0	0
택시(1,437)	26,145	149	267	18,035	149	267	8,110	-	-
버스(190)	9,872	45	135	7,190	45	135	2,682	-	-

나.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되자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들도 급감했다. 택시 이용을 통한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감도 없진 않아 택시 이용률은 갈수록 떨어졌다. 이로 인해 택시 등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수시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상자는 택시업체 종사자 1,371명을 비롯해 전세버스 410명, 시내버스 330명, 화물업체 1,646명 총 3,575명이었다.

여수시는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펼쳤다. 이에 18회 동안 여수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8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 2020년 6월에는 여수시 법인택시협의회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민을 후원하고자 백미 20kg 200포를 기탁해 서로 돕는 진정한 나눔의 뜻을 함께하기도 했다.

☉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지급시기	지원인원	지원액(1인)	사업비
계	12개 사업	18회 지급	중복지급		8,106백만원(국비5,572 도비861 시비1,673)
개인택시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2020. 5.	810명	50만원	405백만원(도비40% 시비60%)
	새희망자금 지원	2020. 11.	810명	100만원	810백만원(전액 국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2021. 1.	808명	100만원	808백만원(전액 국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지원	2021. 5.	808	100만원	808백만원(전액 국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2021. 9.	808명	80만원	649백만원(전액국비)
	소 계			430만원	3,480백만원(국비3,075 도비162 시비243)
법인택시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2020. 5.	627명	50만원	313백만원(도비40% 시비60%)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	2020. 11.	527명	100만원	527백만원(전액 국비)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	2021. 2.	538명	50만원	269백만원(전액 국비)
	전남도 긴급 민생지원	2021. 2.	538명	50만원	269백만원(전액 도비)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	2021. 5.	554명	70만원	388백만원(전액 국비)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	2021. 9.	563명	80만원	450백만원(전액 국비)
	소 계			400만원	2,216백만원(국비1,634 도비394 시비188)
전세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1. 6.	323명	50만원	161백만원(전액 시비)
	전라남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도비 지원	2021. 2.	389명	50만원	194백만원(전액 도비)
	소득안정자금 지원	2021. 5.	387명	70만원	271백만원(전액 국비)
	소득안정자금 지원	2021. 9.	410명	80만원	328백만원(전액 국비)
	소 계			250만원	954백만원(국비599 도비194 시비161)
시내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	2021. 9.	3개사(330명)	80만원	264백만원(전액 국비)
	시내·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2021. 10.	8개사(185대)	대당 약190만원	369백만원(도비 111, 시비 258)
	소 계			270만원	633백만원(국비 264 도비 111 시비 258)
화물차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0. 6.	1,646명	50만원	823백만원(전액 시비)

2) 해운분야

가. 방역물품 지원

고객층이 다양한 해운 분야도 철저한 방역이 급선무였다. 이에 여수시는 여객선 대합실 6개소와 여객선사 7개사, 도선사 7개사에 방역기와 발열 체크기, 마스크 등을 지원해 방역과 선사들의 코로나19 예방과 경영난 해소를 도왔다.

나. 지원금 지원, 3개 선사에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 70%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여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에 2021년 2회, 2022년 1회에 걸쳐 긴급 유동성 재정지원을 시행했다. 엘에스윙핑(주)(여수-거문 항로), ㈜인천해상(신기-여천 항로, 여수-연도 항로), 태평양해운(주)(여수-둔병 항로, 백야-낭도 항로)의 3개 선사가 그 대상이었으며 이들은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 지급액의 70%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여객선사의 경영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다.

3) 관광시설
방역물품 지원

관광사업체와 주요 관광시설 71개소에 대한 방역물품도 공급했다. 관광시설 30개소와 숙박시설 20개소, 관광안내소 16개소, 직영시설 2개소, 위탁시설 3개소에 대해서 손 소독제 502병과 마스크 300개, 소독용 에탄올 220병, 체온계 14개 등을 각각 지원했다.

4) 여행업체
긴급 지원

92개 업체 200만 원씩 2회 지급

코로나 19로 여행 인구가 급감하면서 여행업체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여수시는 2차에 걸쳐 여행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20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여행사 117개소가 대상이었으며, 업체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지원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마찬가지로 업체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차에서는 총 92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탰다.

07 취약계층 지원

1) 아동급식 확대

기존 주말 지원에서 평일까지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학교마다 휴교 기간은 늘어났다. 여수시는 돌봄 공백으로 자칫 끼니를 챙기지 못할 유아, 초·중·고 저소득층 결식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확대했다. 2020년 2월 10일 이후 지속된 여수시 급식 지원사업은 1식당 4,500원에 해당하는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수지역 832명을 상대로 펼쳐졌다.

종전의 학생급식은 토·일과 공휴일에 국한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격일·격주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되면서 학업 일정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자 평일까지 확대 지원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9년 2억 7,517만 원이던 급식비는 2020년 4억 7,400여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도시락업체를 노인일자리아사업과 연계 운영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며, 도시락업체 중단(2020년 2월 10일~4월 5일, 8월 30일~9월 7일)시에는 대체식품을 지원하여 결식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2) 북한이탈주민 방역물품 지원

여수시는 상대적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게 방역물품, 마스크를 배부했다. 2020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남하나센터 여수협력사무소에서 배부된 방역물품 지원 행사는 북한 이탈주민 총 153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10매씩 배부됐다.

또 여수자매도시인 중국 저장성 리수이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가 보내준 마스크 6만 5,000매 가운데 1,700매를 북한이탈주민 330명에게 배부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함께 여수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지역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다.

3) 중국자매도시 기증 방역물품, 취약시설 배부

여수시는 중국 자매도시가 기증한 마스크를 취약계층과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배부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여수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저장성 리수이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가 마스크 6만 5,000매를 여수시에 기증했다. 여수시는 전통시장 등 16개소 1,628명에게 7,345매,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재활시설 등 23개소 625명에 5,955매 등 감염병 관리 취약시설과 단체 40개소에 각각 마스크를 지원했다. 기증 물품 전달은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에 기여하면서 자매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는 데 큰 몫을 했다.

4)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생계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특수직 종사자·프리랜서·공공근로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수시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중단 또는 제한되면서 많은 차질을 빚었다. 사업중단에 따른 무급휴직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생계불안도 커졌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상대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할 경우 월 50만 원씩 2개월 지원하며,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103건, 총 5,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총 1,611건, 8억 6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생활 안정을 도왔다. 이 같은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신청자가 270명이나 초과해 사업비가 부족했으나 여수시는 전남도와 협업, 타 지자체의 잔여 사업비를 긴급 배정하게 만들어 적합자 전원에게 지급하게 해 코로나19 대응 수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여수시는 공공근로자 316명과 지역공동체 사업 근로자 63명 등 총 379명에게 휴업수당도 지급했다. 사업이 중단됐던 2020년 3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의 임금을 지불한 것이다. 평균임금의 70% 수준이지만 총 1억8,300여만 원을 지급하며 일자리와 생계안정을 돕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2020년 4월 8일,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생계 보호를 위해 활동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41명에게 3개월분, 총 1,10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5)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지원'

여수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전방위 방역 활동을 펼치면서 인력난에 고심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마다 휴업, 영업시간 연장 등을 반복해야 했던 식품접객업소 6,250개 업소에 대한 점검·관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에 여수시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쳤다. 2020년 10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시민 10명을 선발한 뒤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368개, 단란주점 169개 업소, 뷔페 19개 업소, 일반음식점 480개 업소를 돌며 식품접객업소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방역 관련 위생용품, 홍보물 배부 등의 생활방역 지원업무를 맡았다.

이에 앞서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된 1차 희망일자리 사업은 10명을 선발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800개소를 돌며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무를 소화하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2021년 2차는 2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일반·휴게음식점 3,798개소를 찾아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6) 농·축산농가

가. 경영안정지원·용자사업 추진

여수시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축산농가를 상대로 경영안정 지원, 용자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농가에 대한 용자지원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용자금 상환 기간을 1년간 유예시키며 축산업 경영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또 졸업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는 경영절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화훼 농가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들여 24개 농가에 경영절감 사업을 진행하며 농업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을 폈다.

나.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로 농촌의 영농철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을 우려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7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정책도 함께 폈다. 운영 기종은 총 83기종 152대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여수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타지역 농업인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2021년 사업으로 다시 연장해 농업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22. 4. 30. 기준)

구분	임대농가수	임대건수 (임대기계수)	임대일수	임대수입 (천원)	임대료 감면액 (천원)
2020년	1,138	1,486	1,787	40,683	28,232
2021년	1,256	1,615	2,057	42,931	42,931
2022년	403	534	721	14,752	14,752
합 계	2,797	3,635	4,565	98,366	85,915

08

정책 및 행정 지원

1) 전국 최초
학생 가정
농·수산물 꾸러미
공급

시·교육청 협업 통한 ‘상생프로젝트’ 전국 확산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지원이 중단된 학교무상급식비(식품비)로 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해 꾸러미 형태로 학생 가정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여수시는 1차 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예산을 활용해,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39,188명에게 친환경농산물 14억 9백만 원어치를, 이후에도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29,415명에게 여수산 반건조 생선 꾸러미 8억 8,200만 원어치를 지원했다.

더불어 2차로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28,659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는 남도장터 쇼핑물 포인트 11억 4,600만 원어치를 제공해 자율 구매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였다.



이러한 도·시·교육청 간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힘내세요!! 코로나19 극복 꾸러미 지원 상생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여수시는 국내산 농산물 100%를 원료로 사용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가공품으로 납품하도록 해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했다. 농어촌에는 판로를 개척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며 학생들에게는 휴교 중에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였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현황

(단위 : 명/천원)

구분		대상	물품	인원	금액
1차	농산물 꾸러미	보육, 사립	친환경 쌀	8,567	205,608
		병설 유치원	친환경 쌀	1,298	31,152
		초·중·고	친환경 쌀, 찹쌀, 양파, 당근, 고구마	29,323	1,172,920
		소계		39,188	1,409,680
	수산물 꾸러미	초·중학교	수산물	21,743	652,290
		고등학교	수산물	7,672	230,160
		소계		29,415	882,450
2차	쇼핑물 포인트	초·중·고	남도장터 쇼핑물 포인트	28,659	1,146,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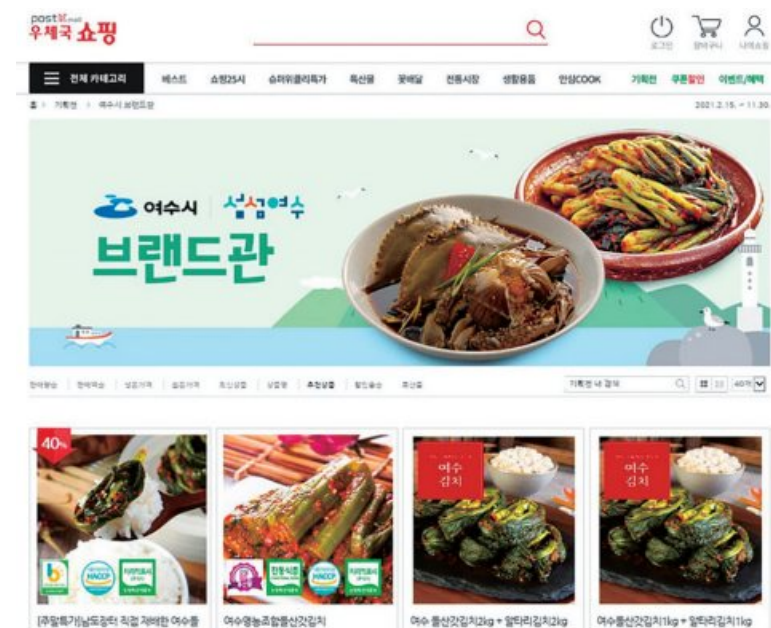
2) '여수시 브랜드관' 운영

2년4개월간 총 27억여 원 매출 ... 지역경제 활성화

여수시는 코로나19 이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여수시 브랜드관'을 만들어 판로 지원에 나섰다. '여수시 브랜드관'은 우체국 온라인쇼핑몰 내에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을 모아 판매하기 위한 일종의 전자마켓이다. 여수시는 당시 소비패턴이 코로나19로 비대면 형태로 바뀌자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합동마케팅 활동과 특산물 홍보에 나섰다.

이를 통해 여수시는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할인쿠폰)을 지원하며 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우체국은 브랜드관 개설 및 홍보, 상품 컨설팅, 온라인 콘텐츠 제작 임무를 각각 맡았다. 여수지역 31개 농·수 특산물 판매업체가 참여한 '여수시 브랜드관'은 2020년 5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 뒤,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여수시 브랜드관'을 지원했으며, 매출은 2020년 5억5,900만 원, 2021년 15억 2,100만 원, 2022년 4월 말까지 6억 6,200만원 등 총 27억 4,200만 원을 올려 농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3) '여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소비촉진·소상공인 보호차 10% 할인판매

여수시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자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지역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여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에 돌입했다.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연중 6% 할인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10%의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 특별할인 1차 판매 기간 동안 80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2차(9월 1일~ 11월 12일)에는 50억 원어치를 팔아 총 130억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을 판매했다.

여수시는 또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금 470억 원어치도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2020년 한 해 동안 648억 원의 여수사랑상품권을 관내에 유통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을 돕는데 안간힘을 썼다.

4) 착한 임대료 감면 운동 및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318개 점포, 임대료 10% 감면 효과

여수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임대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감면'운동을 펼쳤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과 직원들은 사설전통시장 11개소와 상점가 2개소 등을 돌며 착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인회 간담회, 건물주 대표와의 간담회 등 모임과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18개에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시장 내 입점한 청년몰 점포도 3~4월, 2개월 치 임대료를 10% 감면하는데 동참했다.

5)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착한 임대인 대상 5천여만 원 상당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부과했다. 여수시는 2020년 4월 8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5월 8일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전후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였다. 만일 3개월 미만을 인하할 경우에는 3개월 환산비율을 인하율로 정해 감면을 적용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했으며 감면율은 기존 재산세에서 50% 내로 정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혜택은 총 174명, 금액으로는 2,759만원 상당으로 음식점 50개소와 의류 21, 숙박업 6, 학원 9, 소매점 15, 여행사 6, 스크린골프 등 10개소가 입점한 건물이었다. 2021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어 총 104명의 임대인이 2,292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용료 인하시책을 한시적으로 운용했다. 국유재산은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분의 1%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료 분의 1%~3%를, 공유재산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분의 50%를 각각 인하 조치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소·대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으로 경작이나 주거용, 선하지, 태양광 등 피해가 없는 사업은 제외했다.

여수시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인하 신청을 받아 6월에서 12월 사이 이를 적용, 부과했다. 여수시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상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한 자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도 50% 감면, 지원했다. 다만 주거나 경작용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됐다. 대상자는 총 49명으로 228만 1,000원을 지원하여 사용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했다.

6) 공공요금 지원· 도로점용료 인하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63% 대상,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여수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및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었다.

여수시는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상자를 접수 받아 1만2,2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남도 소상공인 중 약 6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에게는 사업장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고정지출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의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총 37억 원 상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줬다.

여수시는 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도 인하, 조치했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여수 지역 소상공인들과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었다.

여수시는 2020년 4월, 도로점용료의 25%(3개월 분)를 감액키로 하고 도로점용료 감액을 위한 반환신청 및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2020년에는 4,060건, 2021년에는 4,158건, 2022년 초에는 66건 등 총 8,284건 8억 3,274만 3,000원의 감액 지원이 시행되었다.

7)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지원

납부기간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

여수시는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가 늘어나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2020년 2월 25일부터 실시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제도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 크게 4가지였다.

기간연장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줬다. 징수유예 역시 지방세의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시키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는 대상 기업 가운데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연기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로 주행분 자동차세 납기연장(786억 원) 1건,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62건(9억 2,600만 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8건(3,100만 원), 재산세 징수유예 5건(7억 9,300만 원),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1건(2,800만 원), 취득세(기타)징수유예 13건(2억 3,800만 원), 주민세(종업원분) 징수유예 19건(2억 원), 체납처분 유예 147건(3억 6,300만 원)의 실적을 보였다.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매년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했다. 내수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피해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을 지원하고 사용료 등을 직권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개별법령에 따른 임대료와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2021년에는 시군구재산 임대료 등 9억 200만원이, 2022년에는 시군구재산사용료 등 4억 9천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8)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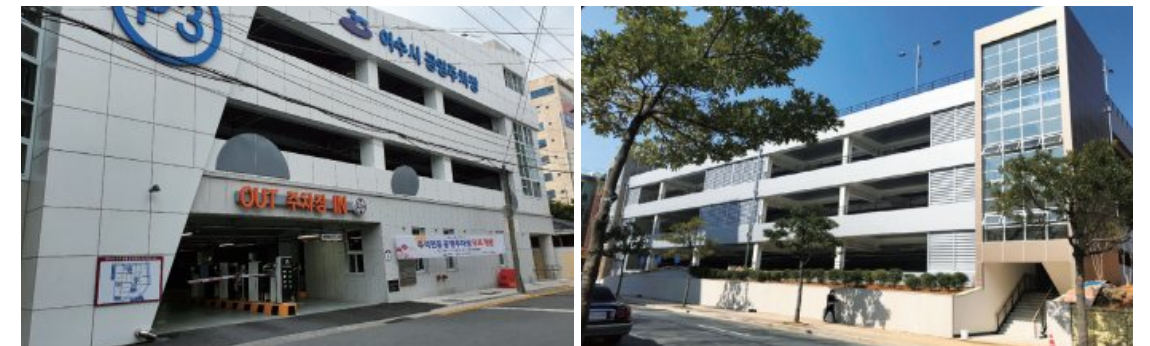
여수시는 2020년 3월부터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의 하나로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실시기로 한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방안은 한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유예하는 것으로, 주로 영업용차량과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적용했다.

9)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시간 확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여수시는 2015년부터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2020년 2월 27일부터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가로 시행했다.



노상주차장 5개소는 중식시간(12:00~14:00) 2시간 무료이용을 확대하고, 그 외 노외주차장 26개소(오동도 주차타워 제외)는 2시간으로 무료이용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10) 여수시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총 57,120건 대상 이용료 50%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했다. 이에 여수시는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에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32개소 이용료를 50% 감면했다. 총 57,120건의 이용실적으로 2억 1,4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09

읍·면·동 지원
(후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함께 경기불황은 지속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고 저소득층은 생계마저 걱정해야 했다. 마스크 살 돈마저 없었다. 코로나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이 절실했다. 다행히도 개인은 물론 기업, 봉사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계속됐다.

특히 신천지 발로 시작된 국내 코로나 발생의 첫 진원지였던 대구 경북 시민을 위해 지역민들은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다. 애써 모은 돼지저금통을 깨서 대구시민에게 기부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데 있어서는 너, 나, 지역이 없었다. 우리였고 하나였다. 코로나19 공포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여수시 읍·면·동에 불었던 훈훈한 이야기들을 요약했다.





구분	일시	지원(후원) 내용	지원(후원) 단체
여서동	'20.1.16./9.21	백미(10kg) 200포/ 취약계층, 농아원,경로당 전달	여수산돌교회
여서동	'20.1.17.	백미(10kg) 20포/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 전달	여수 복된교회
주삼동	'20.2.5.	방역마스크 1,800개, 손 소독제 120개/ 경로당 13개소, 독거노인 180가구 전달	LG화학
묘도동	'20.2.5.	방역마스크 1,200개, 손 소독제 80개/ 경로당 7개소 전달	LG화학
광림동	'20.2.17.	미세먼지 마스크 1,200매(180만원 상당)/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전달	웅천캐슬디아트
충무동	'20.2~8. (월4회 방문)	도시락 전달 및 안부살피기 /주 32명/ 18회 전달	통장협의회
삼일동	'20.3.2.	휴대용 손 소독제 300개(100만원 상당)/ 취약계층 전달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소라면	'20.3.25.	마스크 600개(200만원 상당)/ 취약계층 102세대 전달	주민자치위원, 이장단협의회
대교동	'20.3.5./3.31.	황소식당, 후원금 500만원, 강사 50만원/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원조황소식당, 주민자치센터 요가강사
동문동	'20.3.9.~3.20.	면마스크 3천여 매 제작/ 취약계층 1,577명(1인 2매) 배부	주민자치위원회 등 10개 단체
동문동	'20.3.9.~5.20.	소독 스프레이 500개 제작/ 지역상가 배부	자생단체 및 직원
남 면	'20.3.9.~3.30.	마스크 5,478매/ 2,928명, 5,478매 지급	여수시
광림동	'20.3.12.	면마스크 60매(24만원 상당)/ 취약계층 30세대 전달	종민이네 옷수선
시전동	'20.3.13.	손세정제 30개, 밑반찬 30세트, 마스크 60개/ 독거노인 30세대 전달	여천좌수영악국, 주민센터 여수향토요리문화원,
돌산읍	'20.3.16.	갯김치, 문어장 등 420만원 상당 특산물/ 대구의료진 후원	명신수산, 임포마을 상가번영회
미평동	'20.3.17.	백미 10kg 60포, 20kg 32포(420만원 상당)/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81세대 전달	코리아월드서비스(주)
삼산면	'20.3.18.	거문도 생선(시가 200만원 상당)/ 대구시 무료급식 단체 전달	거문도 새마을부녀회
미평동	'20.3.19.	여수시상품권 5만원권 6매, 30만원/ 마스크 구입, 저소득층 전달	김영준(만 45세)
쌍봉동	'20.3.25.	돼지저금통 87,000원/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심규현(한영고 2년)
둔덕동	'20.3.26.	면마스크 50개 제작/ 취약계층 25세대 전달	주민자치위원회

구분	일시	지원(후원) 내용	지원(후원) 단체
율촌면	'20.3.26.	돌산갯김치 50박스(5kg) 제작/ 경북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전달	새마을회 회원
소라면	'20.3월 중	215만원 기부/ 복지사각지대 가정 20세대, 조손가정 1세대 전달	공경택 등 3명
여천동	'20.4.1.	쌀,김치,라면(140만원 상당)/ 취약계층 70세대 전달	여수시노인복지관
쌍봉동	'20.4.1.	두유,국수 등 식료품세트(100만원 상당)/ 취약계층 25세대 전달	통장단협의회
여서동	'20.4.2.	마스크 48장, 현금 20만원/ 취약계층 17세대 전달	익명의 기부자
국 동	'20.4.9.	빵세트 150만원 상당/ 취약계층 50세대 전달	주민자치위원회
문수동	'20.4.13.	마스크 75장, 현금 20만원/ 장애인 15세대(마스크), 저소득 노인 4세대(현금) 전달	익명의 기부자
묘도동	'20.4.20.	마스크 2,000개/ 묘도 전 세대 전달	(주)한양
문수동	'20.4.23.	백미 120포(400만원 상당)/ 취약계층 79세대, 경로당 20개소 등 전달	코리아월드서비스(주)
둔덕동	'20.4.23.	모은 용돈 20만원 기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전찬누리(11세, 미평초)
둔덕동	'20.5.1.~ 5.8.	300여 만원상당의 라면, 백미, 선물세트/ 취약계층 110세대 전달	후원물품
미평동	'20.5.11.	100만원 기탁/ 백미구입, 저소득층 세대 전달	지덕준 (만68세, 기초생활수급자)
쌍봉동	'20.5.12.	백미(10kg) 20포/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 전달	여수바다식자재마트
율촌면	'20.5.14.	열무김치 담그기 행사/ 취약계층 및 요양원 열무김치 전달	새마을지도자회
서강동	'20.5.20.	백미(10kg) 120포(400만원 상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0여 세대 전달	(주)코리아월드서비스
돌산읍	'20.5.21.	상품권 60만원, 마스크 50개/ 취약계층 3세대 전달	익명의 기부자
여천동	'20.5.~6.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3회)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주민센터
여서동	'20.5.8.	생필품꾸러미 2박스/ 저소득세대 전달	이다훈(27세)
여천동	'20.6.16.	백미(10kg) 120포(400만원 상당)/ 취약계층 120세대 전달	코리아월드서비스(주)
삼일동	'20.6.10.	마스크 2,400매(360만원 상당)/ 전 주민 1매 전달	오리온엔지니어드 카본즈코리아(주)



구분	일시	지원(후원) 내용	지원(후원) 단체
대교동	'20.6.24.	'사랑의 밑반찬 나눔행사', 100만원 상당 5가지 밑반찬/ 경로당 10개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가구 전달	대교동부녀회
서강동	'20.6.30.	생필품 10세트(30만원 상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여 세대 전달	좌수영라이온스클럽
충무동	'20.7.2.~7.6.	수급자 8가구, 저소득층 2가구/ 여수시상품권 5만원~20만원 지급	익명후원
월호동	'20.7.~'21.3.31	'화수분 온(溫)장고' 사업 추진/ 후원식품 냉장고 비치, 600여 세대 음식 나눔	주민센터
월호동	'20.7.10/12.10	'반찬 및 김장김치 나눔행사' / 소외계층 113가구 반찬(3종), 김장김치 전달	자생단체
화정면	'20.7.16.	생닭 700마리/ 화정면 20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	(사)여수시민복지포럼
묘도동	'20.7.21.	쌀 59포(230kg), 라면 59박스/ 경로당 및 독거노인(59가구) 전달	주민자치위원회
여천동	'20.7.30.	마스크 500매/ 만 7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10명 전달(1인 50매)	익명기부
문수동	'20.8.3.	수제마스크 50장/ 섬 취약계층 어르신 50세대 전달	김종순
서강동	'20.8.3.	자발적 헌혈	자치위원 및 가족 20여 명
광림동	'20.8.14.	닭, 수박(150만원 상당)/ 경로당 15개소 전달	진남새마을금고
둔덕동	'20.8.25.	마스크 1,000매/ 저소득계층 250세대 전달	둔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묘도동	'20.9.14. ~ 9.21.	'사랑앓 전등 리모컨 스위치 설치 사업' 추진 (코로나로 외출 제한조치에 따른 사업)/ 60세대(거동불편 저소득층, 장애인,노인)설치	주민자치위원회
여서동	'20.9.16.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 소외계층 100세대 밑반찬 제공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서강동	'20.9.24.	마스크 2,000매/ 경로당 4개소 전달	여수 건강의료기
율촌면	'20.10.21.	백미 20kg, 58포(400만원 상당)/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달	코리아월드서비스(주)
화정면	'20.10.27.	마스크 3,000장/ 남도지역 주민 전달	(사)여수시민복지포럼
여서동	'20.11.2.	100만원 기탁/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주삼동	'20.11.11.	떡국떡 100kg, 생굴 40kg, 굴 19박스/ 19개 통별 전달	주민자치위원회
미평동	'20.11.18.	비말차단 마스크 1,600개/ 국가유공자 25세대 전달	명진기공
묘도동	'20.11.25.	마스크 2,500장/ 묘도동 주민 전달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구분	일시	지원(후원) 내용	지원(후원) 단체
묘도동	'20.11.26.	성인용 실버카(보행기) 15대(300만원 상당)/ 읍동마을 주민 15세대 전달	여수중앙로터리클럽
묘도동	'20.11.30.	김장김치 150상차(배추 500포기)/ 경로당, 독거노인, 취약계층 전달	묘도지역발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여서동	'20.12.2.	320만원 후원/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여수서광교회
여천동	'20.12.10.	147만9,100원 기부/ 여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합모금 사업비로 포함	익명 주민 (루돌프 헬멧을 씌)
화정면	'20.12.17.	라면 100박스/ 취약계층 전달	(주)서원 D&C, 신기주택조합
화양면	'20.12.21.	수제마스크 15박스, 마스크걸이 50여개/ 지역아동 및 독거노인 전달	화양초 학생회
화정면	'20.12.21.	쌀 100포(10kg)/ 저소득층 및 경로당 전달	여수중앙라이온스클럽
여천동	'20.12.22.	'희망나눔 장학금' 250만원/ 저소득 가정 학생 5명 전달	주민자치위원회
미평동	'20.12.29.	현대 200만원, 정성 100만원/ 미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합모금 사업비로 포함	현대자동차 미평대리점, 정성종합건설
여천동	'20.12.29.	라면 100박스/ 홀몸 어르신 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세대 전달	여수중앙라이온스클럽
미평동	'20.12.30.	'사랑나눔 떡국' 판매수익 550만원 기부/ 미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합모금 사업비로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여서동	'20.12.	백미(20kg) 100포, 장학금 720만원 기부, 온풍기 40대 지원/ 저소득층 자녀, 가정 전달	새여수 새마을금고
문수동	'21.1.10.	건강담은 장어 20상차(100만원 상당)/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20세대 전달	주원수산
문수동	'21.1.15.	200만원 생필품 꾸러미(이불,백미,라면,화장지 등)/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10세대 전달	여수라이온스클럽
여서동	'21.1.27.	백미(20kg) 110포/ 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세대, 경로당 전달	새여수 새마을금고
여서동	'21.1월	100만원 기탁/ 5만원 상당 불고기 20박스 구입, 수급자 등 취약계층 20세대 전달	여수평강교회
여서동	'21.1월	백미(10kg) 100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전달	여수산돌교회
여서동	'21.1월	11만6,000원 기탁/ 한부모가족 3세대 과일 전달(사과 39,000원)	여수경찰서 어린이집
묘도동	'21.2.5	떡국 90kg, 소고기 60근/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 전달	한려라이온스클럽
여서동	'21.2월	백미(10kg) 20포/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20세대 전달	금호석유화학
여서동	'21.3.10.	라면 174박스/ 복지사각대상자 159세대 및 경로당 15개소 전달	코리아월드서비스(주)



제2절 전남형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주요 예방법으로 강조되면서 생환경제는 정체 상황에 이르는 등 크게 흔들렸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전국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각 시·도의 지원 규모와 명칭, 지원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과 의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하지만 대체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한시적 사용기한을 정해 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01 긴급생활비 지원

4만여 가구 대상, 가구당 30~50만 원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1억 8,880만 원 이하로 한정했다. 또 1인 가족은 175만 7,000원, 2인 299만1,000원, 3인 387만 원, 4인은 474만9,000원을 소득 기준으로 정했다.

지역 건강보험료와 재산 상황을 파악해 가구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여수시는 전체 12만 4천여 세대 가운데 37%, 4만5,903가구가 전남도형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6만 7,264세대가 긴급생활비 신청을 했지만 2만2,719세대가 제외됐으며 4만4,545세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02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여수시는 2020년 4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를 전남도형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직원 및 사회복지과 긴급 민생 지원인력 총 44명을 배치해 대상자 접수를 받았다. 거동불편자는 직접 찾아가 긴급생활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또 홍보 전단 3만 매를 비롯해 배너 28개, 현수막 38개, 언론, 시 홈페이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전남도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통시장 상인·유흥주점·콜라텍 등 공공지원 사각지대층 위로

전남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지급된 긴급민생지원금은 여수지역 14개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수지역의 경우 미등록 사업자 123명과 노점상인 421명 등 총 544명이 1인당 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전남도는 또 2021년 방역 조치 강화로 그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업소당 현금으로 50만 원씩 계좌 입금되었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이 대상이었다. 영업허가증 기준 허가일이 2021년 1월 4일 이전인 업소이며 무등록 사업자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여수지역은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531개 업소 가운데 495개소(93.2%)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금액으로는 모두 2억 4,750만 원이 지급됐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심각한 피해와 달리 소상공인 공공요금 혜택 등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적게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03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여수지역 농·어업인 1만여 명에게 60만 원씩

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농수산물 소비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인들을 돕기 위해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여수지역 코로나19 위기극복 농어민 공익수당은 경영체등록 농어업인 1만 500여 명이 지원 대상이었다. 전남도는 2020년 5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30만 원씩, 총 6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자체적인 조기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및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과 규정을 앞세워 전남도 관련 부서에 조기 일괄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여수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 달 앞서 60만 원씩 조기에 일괄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농어민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이 빛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시는 2022년에도 공익수당이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농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월에 앞장섰다.



04

민간인 체육시설 생활 안정자금 지원

행정명령 기간 영업중단 시설에 총 1억5,800만 원

전남도는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을 중단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여수지역의 경우 줌바·스피닝 등 고위험시설 16개소와 종합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중위험시설 110개소를 비롯해 미신고 체육도장인 주짓수와 특공무술, 해동검도, 킥복싱 16개소가 지원대상이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원된 민간인 체육시설 생활 안정자금은 고위험시설은 업소당 200만 원을, 나머지는 100만 원씩을 각각 지원, 총 1억 5,800만 원을 지원했다.

05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여수 고교생 7,646명 대상 15만원씩 ... 전남 최초 '호평'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020년 10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 등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했다. 각 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0년 9월 24일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협력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두 기관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협력해 '전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으며 2020년 10월 13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원금을 15일까지 신속히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전남의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규모는 총 79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과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5만 3,000여 명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인당 15만 원씩 지급했다. 이 같은 조치로 여수지역에서는 고등학생 7,646명과 여명학교 고등 및 전공과 학생 44명 등 총 7,690 명이 각급 학교 K에듀파인(스쿨뱅킹)을 통한 계좌로 각 15만 원씩, 총 2억 8,840여 만 원을 지원받았다.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은 전국 최초로 전남도과 시·군, 도교육청이 재원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한 교육 재난극복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06

1인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료 지급

고용·산재·국민연금 3개월분

전남도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도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였다. 이들은 고용, 산재, 국민연금 3개월분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1인 자영업자 43개 업체에는 340만원의 지원금이, 10인 미만 사업장 409개 업체에는 2,626만원의 지원금이 각각 지급되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07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당 30만 원

전라남도는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상은 연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이었다. 이에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을 통해 15,329개소의 소상공인이 업체당 3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았다.



제3절 정부형



01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

하위소득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20년 3월 30일에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논란 끝에 4월 23일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월 29일 국회에 상정된 뒤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 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으며, 나머지 가구에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포인트,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금액들은 각각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됐다.

여수시는 2020년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급 2가지 형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온라인·오프라인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했으며 5월 18일부터 고령이거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왔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전라남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상품권은 대형마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13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했다.

특수고용직·소상공인·노점상 지원

정부는 또 2020년 6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으며 9~12월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2021년 1~3월에는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또한 2021년 8월 10일부터 약 2개월간 국회 의결을 통해 노점상도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했으며, 도로점용 허가를 취득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없는 노점상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대상자는 총 448명으로 2억 2,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수급자·차상위 1만747세대에 4개월간 총 63억여 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자 정부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한시 생활 지원 정책을 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판단하에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했다.

여수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약 1만 1,000세대로 이 중 1만 747세대에게 총 63억 2,400만 원이 4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해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은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생계와 의료, 시설, 주거·교육·차상위지원 등 3분야로 나눠 차등 적용했다.

선불카드는 40만 원권 1만 2,560매와 10만 원권 7,510매, 온누리상품권은 1만 원권으로 총 5만 2,390장이 지급됐다. 소비 여력을 감안해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지급했다.

4개월간 지급총액

(단위: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의료	520	880	1,140	1,140	1,660	1,920
시설	1인, 520					
주거·교육·차상위	400	680	880	1,080	1,280	1,480

03 한시적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이하, 42~300만 원 차등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는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급여, 전기료 등을 적게는 42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이며, 일반재산 기준은 1억 6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백만 원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했다.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소득(원)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02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여수시는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받아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을 수시로 지원했다.

지원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종류 및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0만원/ 4인 123만원	6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항목 지원	300만원 이내(1회당)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42만원(중소도시 3~4인)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145만원(4인기준)	6개월
교육지원	초·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	초 22만원/ 중 35만원/ 고 43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주거지원 받는 경우 4회)
기타 지원	연료비(9.8만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개월)

정부(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상반기 기준보다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시적 긴급복지제도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이번 추가 제도개선 내용에는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과 함께 재산·금융재산 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이 담겼다. 재산 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1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금융재산 기준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이 가능하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했다. 의료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같은 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법률에 의해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수시는 정부의 확대된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는 등 제2차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2021년 말까지 3,477세대 5,573명에게 20억 4,900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도왔다.

04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기관 4개소·약국 4개소·의료관련 영업장 51개소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자체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관련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거, 2020년 2월부터 21년 3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92개소가 대상이었다.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소득, 업무정지, 폐쇄를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수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4개소가 총 3,8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약국 4개소는 총 1,200여만 원을 받았다. 일반영업장 51개소는 총 1,100여만 원을 받았다. 보상신청은 보건의료지원 통합 신고포털 시스템 입력이나 보건복지부 신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결정, 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며 1회에 한해 할 수 있었다.

손실보상 처리절차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접수·검토 및 제출	심사	결정	지급
지자체 (시·군·구)	청구인	지자체 (시·군·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한국손해 사정사회)	보건복지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05

아동돌봄 쿠폰 (아동수당 한시 지원사업) 지급

만7세 미만 아동 1만3,561명에게 총 54억여 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보육 증가로 늘어나는 생활비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이 늘자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했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20년 4월 13일 지급된 지원금은 2020년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됐으며 아동 1인당 40만 원씩이었다. 여수시의 경우 1만 3,561명에게 총 54억 3,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1만 3,039명에게는 52억 1,560만 원의 금액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됐으며 476명에게는 1억 9,159만 원이 기프트 카드로 배송됐다. 시설입소 아동 15명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총 1천80만 원이 지급됐으며, 31명에게는 여수시 상품권 총 1,24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06

아동 특별 돌봄지원

정부는 2020년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특별돌봄 수당을 지원했다. 2020년 9월 28일 지급된 아동 특별 돌봄지원비는 현금 20만 원을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여수지역 1만 2,979명이 대상이었다. 총 25억 9,360만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의 생활비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다.

0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중 기존 지원사업 미수급 3,021세대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수입원이 많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게 되거나 가정폭력, 무관심, 방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였다. 또 코로나19 탓에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이 가능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면 선정됐다. 기초나 긴급생계 급여자나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 입금 받을 수 있었다.

여수시는 이를 토대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여수맘카페, 버스정류장 BIS 광고 등을 통해 신청자 접수에 나섰으며 재난문자와 현수막 15개, 전단지 5만 매를 제작,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여수시는 직원 18명(희망일자리 16, 기간제 2)을 긴급 민생지원인력으로 배치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읍·면·동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또 긴급복지대상자와 자활사업 근로자 등 별도의 명단을 발체하여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신청을 돕기도 했다. 여수지역은 총 5,846세대가 신청했지만 1,900여 세대가 제외되고 3,021세대가 총 23억 원의 정부 긴급 생계지원비를 받았다.

08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점포에 대한 지원도 실시했다. 정부는 재개장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2020년 4월부터 적용, 실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제도는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공금 관리비 등을 지원했다. 여수시의 경우 1차에 3개소, 2차에 85개소, 총 88개소가 대상이었다. 이들 점포 재개장 지원 비용으로 국비 6,300만 원의 예비비가 편성, 지급됐다.

09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지급 및 활동시간 연장

참여자 4,600명 총 15억5천여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공익활동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상품권 수령 동의자를 기준으로 4개월간 시행됐으며 공익활동 참여자는 4,600명이었다.

상품권 지급은 일종의 인센티브로 30시간 만근 기준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27만 원인데 반해 상품권은 32만9천 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공익활동에 참여한 3,861명이 총 15억5천여만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해 취약계층 소득 보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4,600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상 1인당 배정된 활동비를 소진 시까지 활동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펼쳤다. 2020년 12월까지 이어진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4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1인당 월 최대 10만 8,000원의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해 참여자의 소득 보충 지원에 기여했다.

1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총 1,752개소 신청, 100~150만 원 지원

정부는 2020년 9월 24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시행한 방역 조치에 의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이었다. 지원대상은 다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했는데, 일반업종은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됐다.

특별피해업종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집합금지업종과 영업 제한업종으로 구분했다. 집합금지업종은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1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선정되었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었다. 대상자들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통해 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천원)

지급 대상	신청률	신청수	온라인		오프라인		지급금액 (천원)
			신용·체크카드	점심여수페이	상품권(지류)	선불카드	
235,810	99.1%	233,728	146,602	1,527	64,158	21,441	58,432,000

1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1만6천여 명에게 가구당 10만 원씩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2021년 8월24일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전국적으로 약 296만 명이 그 대상이었다. 여수지역에서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해 17,066명이 수급 대상이 되었고, 추진 결과 총 16,100명이 가구당 10만 원씩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13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방역조치로 영업손실 발생한 3,975개소에 107억여 원 지급

2021년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3분기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체이다. 2021년 12월 27일 기준으로 3,975개소가 107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14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방역패스 적용업소 2,701개소 대상 10만 원씩

2022년,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12.3.)에 따라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 원이 지원되었다. 2022년 1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한 업체가 대상이었다. 총 3,577건의 신청 접수로 2,701개소에 2억 6,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제 4 장 협력활동

코로나19 종식까지, 함께 걷는 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뿐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의 협조 또한 절실했다. 이에 여수시는 2020년 2월 3일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사회단체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시·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간담회 15회, 코로나19 협력부서 방역대책 추진계획 보고회 23회, 정부·전라남도·유관기관 합동 방역점검 48회 등 다양한 민·관과의 다각도의 협력 활동을 모색해갔다. 대다수의 여수시민 또한 뜻을 모아 방역수칙 준수와 정책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일조했다.



타임라인

- '20. 2. 3.
-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사회단체 대책회의
- '20. 2. 12.
-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시·유관기관 대책회의
- '20. 3. 23.
-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회의
- '20. 3. 25.
- 「사회적 거리두기」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회의
- '20. 4. 20.
- 코로나19 징검다리 연휴기간(4.30.~5.5.) 방역대책 보고
- '20. 4. 22.
- 「사회적거리두기」 여수경찰서 간담회 개최
- '20. 5. 9.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부서별 실행계획 보고
- '20. 5. 28.
- 물류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 '20. 7. 2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점검
- '20. 8. 22.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부서별 대응보고회 개최
- '20. 8. 24.
- 코로나19 대응 「도 방역상황 점검단」 합동 점검
- '20. 9. 24.
- 추석 연휴 코로나19 대응 부서별 방역대책 보고
- '20. 11. 9.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
- '20. 12. 16.
- 코로나19 확산 대응 민관 합동 방역동참 캠페인 실시
- '20. 12. 20.
- 코로나19 방역 정부합동 특별점검 실시
- '21. 11. 27. ~ 12. 24.
-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특별점검
- '21. 12. 10.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특별 도 합동 방역점검
- '21. 12. 21.
- 코로나19 방역상황 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
- '22. 1. 13. ~ 1. 20.
- 학교 밖 이용시설 긴급 방역 점검(도, 교육지원청 합동)
- '22. 1. 14. ~ 2. 9.
- '전 도민 잠시멈춤' 운영 캠페인 등 홍보
- '22. 1. 20.
- 무증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활용 유관기관, 기업체 안내
- '22. 1. 24. ~ 1. 28.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여수시·여수경찰서 합동점검
- '22. 1. 29. ~ 2. 28.
- 코로나19 예방 특별 도 합동 방역점검
- '22. 2. 23.
- 방역·재택치료 대응현황 도 합동 긴급점검



제1절
방역분야



01
민·관 협력

1) 외국인 유학생
방역 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19가 국내의 방역망을 뚫기 시작하면서 새 학기를 앞둔 여수 전남대와 한영대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2020년 두 학교에서 학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260여 명.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귀국 예정인 유학생만 90명이 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수시와 전남대, 한영대는 협력을 통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2년 현재까지도 세 기관은 유학생의 국적과 입국 정보, 자가격리 현황 등을 공유해 견고한 방역망을 유지하고, 자가진단키트 1천 개를 전남대 여수캠퍼스 생활관 입주생과 유학생에게 지원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다.

여수 각 대학 별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관리 현황

(2022년 1학기(3월) 기준) / 단위 : 명)

구분	총계	국내입국자		입국예정자		국적					
		소계	기입국	입국예정	미입국(휴학)	소계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베트남	기타
	674	674	502	135	37	674	174	147	15	309	29
전남대	370	370	248	85	37	370	174	147	15	5	29
한영대	304	304	254	50		304				304	

* 기타국적 29명 ⇒ 기니1, 나이지리아2, 러시아3, 몽골1, 미국5, 방글라데시2, 스리랑카3, 우간다1, 인도1, 인도네시아1, 카자흐스탄2, 태국1, 프랑스5, 핀란드1

2) 코로나19 방역 및 홍보 활동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져갔다. 이에 여수시는 3,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버스·여객선 터미널, 전통시장, 정류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배치되어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객들의 열체크를 독려해 선제적 방어에 앞장섰다.

또한 여수시민들이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20여 일에 걸쳐 수제마스크 6,000매를 제작·배부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면마스크 31,000매를 포장하는 일에도 손을 보탰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여수 시내 약국 32개소를 찾아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기도 했다. 이렇듯 주말도 없이 기꺼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여수시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초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관광 캠페인

휴가철·명절마다 역·터미널·관광지 주변에 집중

여수가 해양 관광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철저한 관광객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여수시는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는 2020년 7월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까지 '안전 관광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수시관광협의회, 코레일과 함께 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관광 키트 1,190개를 배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것을 부탁했다. 덕분에 연휴 기간 코로나19의 여수 유입을 막을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한 노력의 결과였다.

2021년 새해에는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국립공원단 등의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향일암 일출 관광객 입장을 통제하고 주변 마을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 홍보를 통해 방역을 견고히 했다.

02

유관기관 협력

1) 여수 내 집회 금지 조치

집회신고 160건 불허로 코로나 확산 차단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자 여수시는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각종 집회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총 53회(160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여수경찰서와의 즉각적인 협동 대응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2) 코로나19 대응 합동 점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민간체육시설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이에 여수시는 다양한 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서 다각도에서 방역 및 관리에 힘썼다.

가. 학원 합동 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학원가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학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특성상, 강사와 수강생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또한 학원에서의 감염은 곧 학교 집단감염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여수시는 일찍부터 학원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원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더불어 방역물품(방역 약품 24개, 손 소독제 300개, 소독용 에탄올 150개, 덴탈 마스크 137,000장, 소독 스프레이 5,480개, 손 소독제 1,370개, 자가진단키트 학원당 14개)을 지원해 학원가의 적극적인 방역을 독려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수시와 교육지원청, 학원가의 노력은 다방면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2022년 2월까지 15차에 걸쳐 2,164개 학원 점검을 실시했다.

• 학원 합동 점검 내역

일시	내용
'20. 3. 25.~4. 3.	학원과 교습소 685군데 1차 현장점검
'20. 4. 9.~4. 17.	학원과 교습소 685군데 2차 현장점검
'20. 5. 18.~5. 22.	방역물품 지원 대상 학원 3차 현장점검 ※ 지속적인 방문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원의 입장을 고려해 3차부터는 현장 점검 최소화
'20. 7. 6.~7. 10.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학원과 교습소 153군데 4차 현장점검
'21. 1. 11.~1. 17.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111군데 5차 현장점검
'21. 4. 28.~5. 11.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40군데 6차 현장점검
'21. 5. 17.~5. 31.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90군데 7차 현장점검
'21. 7. 13.~7. 25.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54군데 8차 현장점검
'21. 7. 29.~8. 3.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34군데 9차 현장점검
'21. 8. 23.~8. 25.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38군데 10차 현장점검
'21. 10. 8.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14군데 11차 현장점검
'21. 11. 10.~11. 17.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35군데 12차 현장점검
'21. 11. 23.~11. 30.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3군데 13차 현장점검
'22. 1. 28.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10군데 14차 현장점검
'22. 2. 10.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19군데 15차 현장점검

• 민간 체육시설 합동 점검 내역

일시	내용
'20. 3. 30.~4. 1.	여수경찰서와 민간체육시설 1차 현장점검(6개소, 총18명)
'20. 4. 9.~4. 14.	여수경찰서와 민간체육시설 2차 현장점검(6개소, 총 18명)
'20. 6. 15.~7. 7.	여수경찰서와 민간체육시설 3차 현장점검(22개소, 총 24명)
'20. 11. 17.~	여수경찰서와 민간체육시설 4차 현장점검(22개소, 총 24명)
'20. 3. 30.~3. 31.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체육시설 164개소 현장점검
'20. 12. 18.~12.19.	문화체육관광부,전라남도청과 연말연시 민간체육시설 현장점검
'21. 1. 4.~1. 5.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체육시설 300개소 현장점검
'21. 3. 18.	전라남도청과 함께 민간체육시설 현장점검.
'20. 5. 29.	전남도와 락블링장 방역 1차 합동점검
'20. 6. 2.	전남도와 락블링장 방역 2차 합동점검

제2절 경제분야

01 MICE 협력

온라인 유치설명회·대학생 온라인 경연대회 개최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일컫는 ‘MICE’는 여수시의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MICE 업계 또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여수시와 MICE 업계는 4번의 간담회와 MICE 유치설명회, 대학생 온라인 경연대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2020년 6월 12일에는 MICE 관계자 교육 및 MOU를 진행하고, 2021년 2월 25일에는 여수시와 지역 MICE 업계가 함께 ‘온라인 유치설명회’를 열어 전국의 다양한 학회와 기업, 협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16개 단체 약 5,2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여수의 위상을 높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02 농·어촌 및 특산품 협력

1) 지역 화훼 농가를 위한 ‘꽃 사주기 운동’ 추진

화훼농가 24개소 생산 15,500단 꽃 판매

코로나19는 축하와 기쁨의 기회마저 앗아갔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한 대다수의 행사가 취소·연기되었고, 행사 특수를 누리던 화훼 농가의 시름도 깊어졌다. 이에 여수시와 농협이 돌산 지역 화훼 농가를 위해 2020년 2월 17일부터 ‘꽃 사주기 운동’을 진행했다. 화훼 농가 24군데(5.8ha)에서 생산된 안개꽃, 알스트로메리아, 후리지아, 백합 등의 판매를 시작했고, 여수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15,500단이 성황리에 판매, 완료되어 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하락하던 화훼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었다.



2)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 추진

학부모 부담 경감·농가 판로개척 ‘일석이조’ 효과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교 급식실에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가들의 판로가 막혔다. 여수시와 여수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들 농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을 시작했고, 공무원과 시민이 1,500여만 원, 농협 1천만 원, 남해화학이 3천 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등 총 5,500여만 원의 판매액을 달성했다.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은 시민들에게는 산지에서 직접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는 기회이자 농가에게는 판로를 개척해 경제 활성화에 기회를 제공한 의미있는 행사였다.

더불어 여수시는 구매한 농산물 꾸러미를 302개소 3만 9,409명의 보육시설과 초·중·고 학생에게 공급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시행했다.



3) ‘일손 부족 농가 돕기’ 추진

시·농협·봉사단체·군부대 모여 봄철 작물 수확 도와

2020년 4월, 봄철 작물 수확을 앞둔 농가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구하기가 예년보다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 농가, 부녀 농가는 손을 보탬 외부 인력이 절실했다. 이에 여수시는 농협, 봉사단체, 군부대 등에서 모집한 봉사자 630명과 함께 일손을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 13회에 걸쳐 수확을 도왔다.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작업 도구, 생수, 식사 등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지역 축협에서는 새참용으로 돼지고기를 기부하기도 했다. 여러 기관과 시민의 도움으로 13ha에 해당하는 밭에서 양파, 마늘, 감자 등이 무사히 수확을 마칠 수 있었다.

4)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 추진

드라이브스루 방식 ... 12억 원 매출고 달성

코로나19 여파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줄자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자연스레 수산물 소비는 위축됐다. 양식 어민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여수시는 서남해수협과 여수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하기 위해 배송(택배)이나 드라이브스루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에 나섰다.

2020년 3월 9일부터 1년여 동안 지속된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는 반건조 생선(우럭, 참돔)과 전복찜, 모듬회 등을 온라인과 드라이브 스루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활어만이 아닌 반건조 생선과 찜을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은 것으로 판매방식도 차량 내에서 주문,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 기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 행사에는 83여가가 참여해 5만 2,334상자를 팔아 11억 9,800만원 어치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냈다.

또한 여수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돔과 우럭으로 구성된 ‘수산물 꾸러미’를 102개교, 2만9,500명에게 공급했다. 추석에는 수산물 사주기를 통해 2,543상자, 7,400만 원 상당, 설에는 2,500상자 1억여 원의 선물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한 수산물을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켜 1만 3,779박스, 3,300만원 어치도 파는 등 여수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어민들의 경영난 해소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5) 설맞이
지역 농특산품
사주기 운동

홍보전시관 운영, 13개 업체 참여

코로나19로 명절 특수가 사라진 2022년 설, 여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특산품 생산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농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시청 직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1청사 여수문화홀로 비에 ‘여수 농특산품 홍보 전시관’을 운영했다.

참여 업체는 거문도해풍썩영농조합법인 등을 비롯해 강소농 6곳,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6곳, 기타 업체까지 13개소였다. 이들은 하يام미, 4색 떡국, 옥수수조청, 동백꽃청, 한과세트 등 지역의 특색이 담긴 18품목의 상품을 내놓았으며 직거래를 통해 약 2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부서별로 일괄 주문 후 업체에서 부서로 직접 배달하거나 우체국 쇼핑물 내 여수시 브랜드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제3절
기부 및 모금

01
코로나19
피해지역 및
주민 지원
특별 모금

시 공직자, 4억7천여만 원 모아 저소득층·복지시설 지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수시는 경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기 위한 특별 모금을 실시했다. 2020년 2월 25일부터 4월 31일까지 진행된 모금 운동에는 여수시민과 지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여수시 직원 1,687명도 뜻을 함께해 십시일반으로 1차로 현금 모금을 통해 1,954만 원을, 2차로 4월 급여 원천징수(부시장 30만 원, 국장 20만 원, 과장 10만 원, 6급 5만 원, 7급 3만 원, 8급 2만 원, 9급 1만 원, 청원경찰 자율 참여)를 통해 6,148만 원을 기부했다. 여수시장도 4개월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1,040만 원을 기부했다.

여수시가 힘을 모은 덕분에 총 4억7,404만 원 (현금 3억9,224만 원/현물 8,180만 원 상당)의 성금이 모였다. 여수시는 마련된 성금으로 저소득층 3,952가구에 생필품 꾸러미, 여수상품권, 한돈, 농산물꾸러미, 여성위생용품 등 각각 지급했으며 사회복지시설 870개소에 대해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청소용 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전달했다. 이 같은 특별모금은 여수시가 하나 되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의미 있는 행사여서 주목을 받았다.

여수시 공직자 급여 기부 내역

(단위 : 천원)

총계	3급 (1명)	4급 (10명)	5급 (83명)	6급 (551명)	7급 (501명)	8급 (245명)	9급 (286명)	청경 (10명)
61,480	300	2,000	8,300	27,600	15,100	4,900	2,860	420

02

사회복지
생활 시설
후원금 지원

2020년 4월, 여수시의 사회복지 생활 시설 50개소가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행정 조치를 받으면서, 시설 종사자들 또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 시설을 마련해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 시설과 종사자들이 숙박비를 모두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여수시는 해결책을 고심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여수시장이 1백여만 원을 선뜻 보태고,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1백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들 기부금은 사회복지 생활 시설 후원금으로 전달됐으며 생활 시설당 약 40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됐다.

03

각종 후원
물품 지원 및
자원 봉사

여수지역 자원봉사자와 농협중앙회 직원들도 한마음이 되어 방역이 절실한 단체를 대상으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2,287명이 방역 봉사, 1,479명이 역학조사 및 안내 봉사, 1,805명이 마스크 포장과 배부 봉사, 1,117명이 발열 감지 및 열 체크 봉사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다.

후원 내역

지원일자	지원대상	후원물품	후원처
'21. 5. 3.	노인복지시설 22개소	농산물꾸러미 150박스 (홍삼, 삼계탕, 추어탕 간편식, 잡곡, 장류세트)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21. 6. 8.	사회복지시설 61개소	양파 (3kg 500박스)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21. 8. 17.	예방접종센터지원 자원봉사자 80명	안녕키트 80세트 (마스크, 레모나)	중앙·도·시 자원봉사센터
'21. 9. 27.	코로나19 선별진료소 6개소 의료진	응원키트 60세트 (정관장 활기력, 레모나, 쿠키)	중앙·도·시 자원봉사센터
'21. 10. 18.	사회복지시설 41개소	농산물꾸러미 100박스 (사과, 감자, 햇고구마, 단호박, 즉석밥, 곰탕, 소고기국 등 12종)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제5장
백신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

별다른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백신이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유수의 제약 회사들이 앞다투어 백신 연구에 뛰어들었고, 2020년 말부터 임상실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화이자를 필두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이 백신 사용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 또한 2021년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제1절 코로나19 백신 개요

01 코로나19 백신 작용 원리

1)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인체 내 세포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는 유전정보(mRNA)를 제공해 인체 내 세포가 이 유전정보를 학습하도록 만든다. 인체가 바이러스 단백질의 일부를 생성해 이에 대항하는 면역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식의 백신이다.

2)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것으로 바이러스 벡터가 인체 내에 들어가면 유전물질이 세포에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고유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세포에서 단백질을 복제 생성하는데, 이 세포가 인체 내에서 항원으로 작용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3) 단백질 서브유닛 백신

무해한 상태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이용해 개발하는 백신으로 바이러스 단백질 일부가 인체 내에 들어가면, 인체 내 면역체계에서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속하는 단백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면역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02 코로나19 백신 종류

1) 화이자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Pfizer, 파이저)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영국 보건당국이 2020년 12월 2일 사용 승인을 허가하고, 12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12월 11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해 14일부터 의료진 등 감염 위험군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했다. 12월 21일에는 유럽의약품청(EMA)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권고해 12월 26일부터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시범 접종이 시행되었으며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했다. 2021년 1월 28일,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 마카비는 16만3천 명을 대상으로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021년 2월 26일 첫 물량이 도입되어 27일 코로나19 치료병원 143곳의 의료진 5만 4,498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했다.

2) 아스트라제네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화이자 백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영상 2~8도에서 보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20년 12월 30일 영국 보건부에 의해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1월 29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사용허가 심사에 착수하여, 2월 10일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전 신중한 판단을 조건으로 18세 이상 사용을 위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26일 한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했다. 2월 15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3) 얀센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백신 전문계열사인 얀센에서 개발한 백신이다.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특징이 있으며,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2021년 2월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얀센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같은 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심사에 착수, 4월 7일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3월 11일에는 유럽연합에서 얀센 백신에 대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다.

4) 모더나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모더나(Moderna)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2020년 12월 1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세계 최초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2021년 1월 6일에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모더나백신의 18세 이상 대상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접종이 시작되었고, 2021년 4월 3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더나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해 여러 나라에 공급이 가능해졌다.

5) 노바백스

미국의 제약회사 노바백스(Novavax)가 개발한 백신이다. 온도에 안정적이어서 일반적인 냉장고 수준인 2~8도의 온도에서 저장과 유통이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은 2020년 7월부터 임상시험에 착수, 2020년 12월 28일 최종 3상 시험에 착수했다. 2021년 2월에는 체코, 인도에 이어 한국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 독점 생산, 허가, 판매의 권리를 갖고 생산된 물량의 2천만 명분을 우선 공급하기로 약정했다.

03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코로나19 종식이 인류 최대의 과제가 된 만큼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은 백신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다른 국가의 승인 받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국내 유통을 원하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의 허가 전부터 시판 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성과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해성 발생을 최소화하는 ‘위해성 관리계획(RMP)’을 세워 이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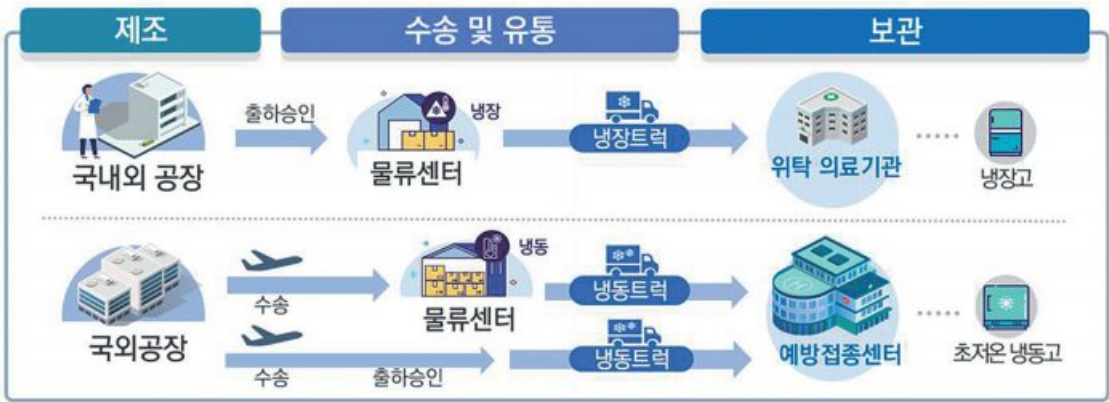
1	접 수	업체가 허가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등의 자료
2	예비 심사	허가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타당성 검토
3	심 사	‘코로나19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 8개 분야별 전문가 심사 후 허가 타당성 판단 *8개 분야 :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정성과 효과성, 시험법 검증, 임상통계,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실태조사, 허가
4	외부전문가 자 문	종합 심사 의견을 토대로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진행
5	최 종 허 가	신청 제품에 대한 허가 심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 허가 진행
6	국 가 출 하 승 인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 번 더 품질 확인 후 유통·판매 *국내 유통 전 업체에서 국가출하승인 신청 후 진행

04 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 체계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 조건과 접종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 및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백신 제조부터 투여까지 백신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콜드체인’이라고 부른다.

이 ‘콜드체인’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질병청, 식약처, 국방부가 참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수시 또한 백신 접종 준비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안전한 유통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❶ 콜드체인 유지 과정



❷ 부처별 담당 업무

질병청	식약처	국방부
백신 보관·수송 관리 총괄	주체별·단계별 보관·수송 관리 지침 제시	백신 보관·수송 모니터링

05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백신은 개발과 임상시험이 긴박하게 진행된 만큼 부작용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철저한 절차를 거친 백신만을 유통하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 기업의 백신을 확보해 위험을 분산시켰다.

또한 이상반응 발생 시 부작용을 체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배포하고, 이상 반응으로 확인될 시 질병관리청을 통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구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미국(12.10.), 영국(12.2.)	미국(12.18.)	영국(12.30.)
접종 시작	미국(12.14.), 영국(12.8.)	미국(12.21.이후)	영국('21.1.4.)
임상 시험 참여자	16세 이상(43,448명)	18세 이상(30,351명)	18세 이상(23,745명)
이상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부위 통증(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 접종부위 부기(10.5%)- 접종부위 발적(9.5%)- 오심(1.1%)- 권태감(0.5%)- 임파선염(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부위 통증(92.0%)- 피로감(70.0%)- 두통(64.7%)- 근육통(61.5%)- 관절통(46.4%)- 오한(45.4%)- 오심/구토(23.0%)- 거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발열(15.5%)- 접종부위 부종(14.7%)- 접종부위 홍반(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부위 압통(60%)- 접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50%)- 근육통, 권태감(40%)- 발열, 오한(30%)- 관절통, 오심(20%)* 1차 접종과 비교하여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빈도가 적고 더 경증임
	<금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료원: 미국 FDA 긴급승인(EUA), 영국 MHRA 긴급승인(EUA)

❹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보 상 종 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 상 신 청 기 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보 상 신 청 청 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 상 신 청 가 능 최 소 피 해 금 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 상 신 청 청 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근 거 법 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국가 보상 과정



1	보건소는 보상신청자가 제출한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완료한다. ※심의기한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제2절 여수시 백신 접종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길 ... '21년 2월 백신접종 시작

2020년 2월 25일, 새벽 안개를 헤치고 이천물류센터를 출발한 트럭이 이날 오후 여수 흥국체육관으로 들어섰다. 트럭에는 여수시민에게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려있었다. 여수시에 공급된 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000명 분이었다. 여수시 보건소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500명 접종 분이 도착해 직원들이 검수를 마쳤다.

보건소 이외에도 은혜요양병원에 200인 접종분이 경찰차 호송을 받으며 무사히 전달됐다. 접종 순간까지 백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비장함이 관계자들의 얼굴에 맴돌았다.

여수는 백신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발 빠르게 접종 준비에 착수했다. 2021년 말까지 만18세 이상 여수 인구 246,050명의 70%인 17만 2200여 명의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우선 접종대상자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백신의 초저온 유통이 가능한 흥국체육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한 뒤 필요 인력을 배치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도 꾸려졌다. 만반의 준비 끝에 2021년 2월 26일, 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요양병원 종사자 등 80명에 대한 백신접종도 26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백신접종은 시작됐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위대한 첫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01

대상자 선정

고위험 시설·의료기관 입소자 및 종사자부터 순차적 접종

여수시는 백신접종 대상자를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세웠다.

정부가 마련한 중증진행 위험군,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선정에 따른 전 국민 순차적 접종 지침을 따랐다.

2021년 2월 26일 1분기 첫 접종을 실시한 여수시는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주로 고위험 의료기관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선별진료소, 소독업무 등) 총 3,416명을 1분기 백신접종 대상으로 정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과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특수교육보육종사자 및 보육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과 함께 65세 어르신, 총 8만 1,546명을 접종기로 했다.

또 19세 이상 64세 미만 일반 시민 16만 1,088명에 대해서는 3분기 이후부터 백신 수급에 따라 접종을 실시해 갔다.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12~17세 사이의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이어졌다.

2021년 10월부터는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 5회에 걸쳐 총 245명이 접종을 완료해 혹시 모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했다.

예방접종센터에서의 백신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주로 사용했으며 방문접종이나 자체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크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백신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했다.



여주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자



02 인력운영



1일 평균, 600명에게 백신 접종

여수시는 백신접종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꾸렸다.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평균 600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공중보건 의사 4명은 예진과 이상 반응자 응급처치를 맡았으며, 간호사들은 백신접종과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았다.

자원봉사자 및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선발된 행정요원들은 전산업무와 예약확인, 문진표 작성을 도왔으며 소방청은 구급차 1대와 응급구조사 1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기도 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21. 1. 25.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구성	
'21. 2. 9.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흥국체육관
'21. 2.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	
'21. 2. 26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1. 3. ~	요양시설 등 방문 접종 시행	
'21. 4. 1.~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및 운영	흥국체육관
'21. 10. ~ '22. 2.	아프가니스탄 기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해양경찰교육원
'21. 10. ~	위탁의료기관 90개소	
'22. 1. ~	3차 접종 시행	



03 선제접종 및 백신 휴가 실시

어린이집 · 복지관 종사자 선제 접종

여수시는 학부모들의 코로나19 위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교사와 보육 교직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1차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여수지역 어린이집 140개소를 상대로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이 실시되었다. 1차 백신 예방접종은 1,600여 명이 대상이었다. 이들 모두 PCR검사를 거친 가운데 어린이집 특수교사와 간호인력 26명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백신을 접종,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여수시는 또 2021년 4월 1일부터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 백신접종 휴가제는 근무시간과 접종시간이 겹칠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 시에는 1일을 추가로 유급휴가를 실시했다.

04 추진 현황

‘찾아가는 접종’, 전국 평균 웃도는 접종 성과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여수 인구 총 27만 6,762명 중 1차 24만 5,823명, 2차 24만 3,487명, 3차 19만 8,980명, 4차 2만 5,92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률은 1차 88.8%, 2차 88.0%, 3차 71.9%, 4차 9.4%로 전국의 접종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는 요양시설과 위탁의료 기관, 여수여명학교, 아프간 기여자가 머물고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등 찾아오기 어려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접종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더불어 산업단지(오천, 화양농공) 협의회를 통한 미접종자 예방접종 예약 지원과 사업주를 통한 신청자 사전예약 지원, 그리고 미등록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및 당일 예방접종 시스템을 운영한 노력이 더해져 여수시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섬 지역 방문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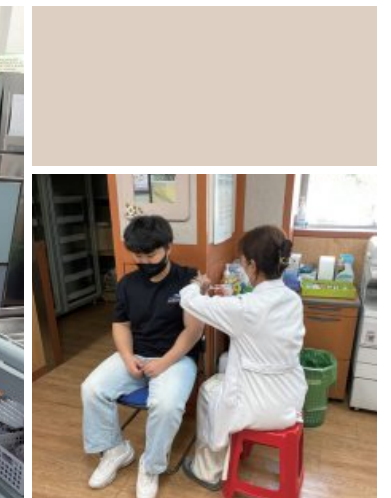
아프카니스탄 기여자 방문 접종



백신 접종자 뱃지



요양시설 방문 접종



제3편

여수시 코로나19 대응백서

코로나19 현장에서

제1장 코로나19 시민 체험 수기

제2장 코로나19 대응 현장 수기



I

코로나19 시민 체험 수기



한화케미칼-여천NCC
공동어린이집 원장

곽옥선 (51세)

어지러운 세상에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어서오세요! QR코드하고 손 소독 해주세요.”

“네. 어디에 앉을까요?”

“몇 명이에요? 우리 식당은 4명밖에 못 들어와요.”

역할놀이 중에 오가는 아이들의 낯선 대화에 씩씩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어린이집의 일상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관찰하면서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선생님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경험은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부재로 영유아기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들은 성장기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유아기의 다양한 경험을 박탈당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져서 우울감이나 공격성 증가 등의

양상을 보이는데, 양육자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어린이 집에 등원을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일렬로 앉아 식사하기, 개별 놀잇감으로 소수 인원만 놀이하기를 장려하면서 아이들은 마주 앉아 상호작용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부재는 언어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유아기에는 상대방의 입 모양을 인식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일과의 대부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내다 보니, 적절한 언어 자극을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 업무 추가로 교사 피로도 높아져

현장의 교사들이 겪는 혼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등원 아동, 어린이집 방문객에 대한 열 체크 및 손 소독 실시는 물론 교사 자가격리에 따른 대체 교직원 배치, 원아와 가족 동선 파악 등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교사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휴원 기간 텅 빈 교실에 주인 잃은 장난감들을 보면서, 오랜 휴원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거나 적응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산적한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매 순간 예기치 않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원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맞닥뜨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 함께 힘을 내보자고 지친 교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부딪히며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교실을 답답해하던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마스크를 쓰고 바깥 산책을 하던 중,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달리기 해요!” 약속이나 한 듯 선생님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마스크 밖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더 오래, 더 많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얼른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의 예쁜 얼굴을 마주 보며 웃고 싶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회사원

이현진 (34세)

내 인생 한 번뿐인 결혼식 코로나19로 더 진하게 남아

2019년 겨울, 우리 부부는 결혼을 준비하며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과 해외로 신혼여행도 예약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예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 갑자기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싶어 미리 예약해 둔 보라카이 여행을 취소할 때까지만 해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점점 더 일상생활을 파고들었고, 결국 우리는 10박 12일의 유럽 신혼여행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약했던 스위스와 파리의 호텔들을 위약금만 내고 취소해야 할 때는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초대장 건네기조차 미안한 마음

2020년 6월로 예정된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갈 때마다 내 결혼식은 얼마나 행복할까 꿈꿔 왔는데, 기대는 점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축하와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이었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염려가 앞섰습니다. 청첩장을 건넬 때마다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괜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해오는 지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하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결혼식장 보증 인원을 조정해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했습니다. 혹시나 하객이 너무 없어서 비어있는 예식장이 될까 걱정스런 마음에 결혼식을 연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뒤늦게 결혼식을 늦추는 것은 하객들에게도 실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그대로 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으로 우리 부부는 아쉬움을 가득 안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하객들의 얼굴을 보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해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감사하게도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날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도 가슴 속 깊이 남았습니다.

계획했던 신혼여행은 다음 기회로

종종 결혼식 앨범을 펼쳐 보면서 마스크를 쓴 하객들을 볼 때면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언젠간 꼭 계획했던 신혼여행 코스로 다시 여행을 가기 위해 그때 준비했던 일정과 호텔들을 모두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조만간 꼭 그 날이 오길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석영 (44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장시간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몸도 지치고 예민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이 힘들다는 생각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매일 많은 승객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탓에 긴장된 나날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운행하는 몇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피부가 간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주의로 승객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하고 일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비로 탑승객과의 실랑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저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써달라는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승객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탑승을 요구하거나, 탑승 후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내리는 승객분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실랑이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저는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승차를 거부하지만,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는 배차가 긴 동네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 승차를 하시려다가 마스크를 깜빡하고 쓰고 나오시지 않은 분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태워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나 죄송하던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행히도 마스크 의무착용 이행 명령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승객분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백신접종 후 마스크 착용 거부하기도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승객분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어도 버스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다시 안내해 드리지만, 이해하지 못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는 말하는 저도, 듣는 승객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서로 미소를 띄고 밝게 인사하며 버스를 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 주부

박미정 (37세)

세 아이 엄마에게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와의 씁쓸한 전쟁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세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그야말로 예고 없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꿈에 부풀어 있던 첫째는 제대로 된 입학식도 없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보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니, 소풍이나 견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반 친구들을 사귀거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온라인수업으로 아이들 활동량 크게 줄어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학업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마주 보고 소통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니, 저학년 친구들은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보호자가 수업 준비와 진행을 도와야 하는데,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은 그 역할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학년 과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2학년 수업에 차질을 빚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곤 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친구들을 만나 소통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대근육을 발달시켜야 할 나이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니,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아이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수업·식사 등 하루종일 뒷바라지, 힘에 부쳐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힘이 부칩니다. 일어나자마자 세 아이의 끼니를 차려 주고, 첫째의 온라인 수업을 돕다 보면, 심심해하던 둘째와 셋째가 말썽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아직 마스크는 벗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상 등교를 시작한 요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I

코로나19 대응 현장 수기

조행숙

여천전남병원
감염병관리팀장



지지대 역할을 해준 보건소 직원들

대한민국이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교육 등 모든 곳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그 후의 시대로 나뉘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럴겠지만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난 2년은 의료 전선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더불어 현재진행 중인,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 낯선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만큼이나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치료하고 낫게 하는 의무가 있었기에, 두려움에 떠는 환자들을 진정시키고 잘 치료받도록 인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겨울에는 동장군·여름에는 뽕박벌과의 싸움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다 보니, 다짜고짜 화를 내거나 의료진을 다그치고 짜증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환자를 상대하는

우리 의료진이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게다가 선별진료소 특성상 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한겨울에는 동장군과 싸워야 했고 여름에는 뽕박벌 밑에서 숨쉬기 힘든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답답한 방호복 속에서 땀을 줄줄 흘리고, 턱까지 숨이 차오르는 상황을 겪다 보면 몸이 너무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시민 응원의 말 한마디가 큰 힘

하지만 너무 고생한다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수줍게 내밀어 주시는 음료수와 핫팩, 그리고 그분들의 미소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큰 위로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같이 맞서 싸워나가면서 관할 보건소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처음 맞닥뜨린 열악한 조건에서 검체 이송, 환자 이송 등을 위해 직접 운전을 해 가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질문과 민원이 쏟아졌지만 모두 묵묵히 받아들이며 응대했고, 그러다 힘에 부쳐 쓰러져서 입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힘든 코로나19를 함께 겪으며 우리 의료진들과 담당 보건소 직원분들이 친밀하고 좋은 협조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계 느낀 재택치료

김준성

여수전남병원
가정의학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재택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코로나19 환자분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택 치료 시 가장 답답한 부분은 바로 '재택'이라는 환경입니다. 환자에게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재택이라는 상황이 제한적이라 답답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단지 전화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듣고 그 상황을 예측하여 약 처방을 해 주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약 처방을 해도 약국으로도 나가지 못해 가족이나 이웃이 없는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수령해야 하니,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업무 과다로 처방약 배송이 늦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습니다.

봄에 개설된 대면 진료는 그나마 위의 답답했던 상황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택 치료는 증상 및 진단을 상상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해야 하니 정확도도 떨어지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의료인의 입장에서 다시는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의료는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적절하고 올바른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실히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향후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대

여수 지역에도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원(공간, 물적, 인적)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이 협조해 주셔서 의료인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증상이나 진찰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어, PCR 검사와 RAT 검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검사이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역시 바로 알기 어려워 격리병상이 여유롭게 운영되지 못하고, 확진자의 상급병원 전원 또한 쉽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지역 내 검사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시설과 인력을 갖춰 빠른 검사 및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한승청

여수전남병원

정대호

여수제일병원 내과
진료부장

재택치료에 대한 의견

그동안 코로나 19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감염자 치료에 수고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자 재택 치료 개선점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고위험군 급속악화 예방에는 한계

재택 치료는 원칙적인 의료 행위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는 다수의 환자를 짧은 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이 예상되는 고위험 환자군의 급속 악화나 일반 환자군의 예측 불가능한 상태 악화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조건으로는, 감염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택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시, 환자의 최근 검사결과 중요

민간 의료기관에서 재택 치료 환자를 위임받으면,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처치와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알려주는 주관적인 증상과 일차원적으로 측정된 체온이나 산소 포화도 수치 등으로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환자가 가지

고 있는 질환력과 현재 그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최근의 검사결과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시민의 개인 검사결과와 처방 내역은 거의 모두 민간 의료기관에 산발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택 환자 배분시, 기존 진료받던 민간 의료기관으로 배분해야

따라서 보건소에서 재택 관리 환자를 배분할 때,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평소 다니고 있는 민간 의료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대규모 감염 질환이 지역사회 내에 전파 되었을 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려 해도 반드시 환자의 최근 신장 기능을 알아야 하고, 평소 복용하는 약물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재택 치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기존에 진료를 받고 있던 민간의료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첫 단계가 그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수고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인력 부족에 아쉬움

여수한국병원
원무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여수한국병원은 2020년 2월 25일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되어 2022년 5월말 기준 12,000여건의 PCR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고, 감염병 전담병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등 지역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에 작은 성취감 또한 가져봅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하여 여러 업무를 운영 중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인력 및 관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공문이나 지침 변경사항이 너무 많아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추진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처리가 지연되고,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후에는 환자가 몰리면서 기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 비해 근무자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이 미비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되돌아 보니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2년 반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더 나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수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2년을 회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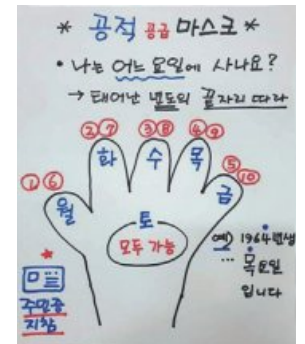
공적마스크 배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2020년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었고, 전국의 약국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9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어, 3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1인당 2매, 4월 27일부터는 1인당 3매, 6월 18일부터는 1인당 10매로 구매 개수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판매 가격이 장당 1,500원으로 통일되어 약국들은 판매 대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 공적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제도가 3월 11일부터 시작되어, 전국의 약국과 우체국의 마스크 실시간 판매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했습니다.

여수시약사회에서는 공적 마스크 판매 시행과 동시에 관내 약국을 여천팀, 여서문수팀, 여수팀의 세 팀으로 분류해서 마스크 판매 시작 시간, 판매량, 소모량, 재고량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꼼꼼한 재고량 공유로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 시 소진된 약국은 인근의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안내하였으며, 보건소와 협력해 보건소 홈페이지를 활용해 관내 약국의 운영시간, 마스크 판매 약국, 휴일 지킴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공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마스크 제도는 2020년 7월 12일 폐지되어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수시약사회



자가진단키트

정부에서 갑작스레 자가진단키트 의무화를 진행하고 약국과 편의점을 판매처로 지정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탓에 구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주시약사회는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관내의 남부지오영과 광주 소재 유진약품, 백제약품 등과 매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급 상황을 파악하였고, 정부와 여주시보건소와의 협조로 어려움을 타개하였습니다.

해열제 및 상비의약품 공급 부족

의약품 공급과 유통은 생산 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필요하다고 갑자기 생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를 정부에서 전담하다가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해 일시적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여주시 관내 약국들은 거래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 주변 약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앞선 해열제 공급 부족을 겪고 사전에 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났지만, 대체 가능한 의약품 확보 및 관내 약국들 사이 공급 조절과 협조로 다행히도 공급 부족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공적 마스크 구매자를 'DUR' 시스템에서 입력했는데 이미 경기도 소재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회되어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동명이인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마스크가 아직 입고되지 않았는데 있으면서 안 준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 인맥과 단골을 운운하며 못 준다고 하면 서운해하던 분들, 다른 약국에서 구매하고서는 모른 척 또 사러 오시는 분들, 제품이 맘에 안 든다고 반품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약국마다 새벽부터 문 앞에 길게 줄을 선 고객들에게 번호표도 배부했습니다. 때로는 출근하기가 겁이 나고, 구매를 못한 손님들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약 조제하랴, 마스크 담으랴, 마스크 판매하랴, 과중한 업무에 특히 1인 약국 약사님들의 고충이 심했습니다. 봉사 정신이 없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는 발 빠르게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실시하고,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이 연계되어있는 약국으로 선지정했습니다. 이에 수급 부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약사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공적 마스크 공급처를 전국구 도매상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으로 지정하고, 각 약국에 신속하게 나눠서 공급했고, 여주시와 여주시보건소에서 약사들의 공적마스크 판매와 조제 업무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투입해줌으로써 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전달 없이 선 보도 후 시행으로 약국에서 혼선이 발생하였고, 공적 마스크 면세약속 불이행과 마스크 가격 책정 시 약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부족했으며, 제품 판매 후 반품이 미흡했다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재건의 기회로 삼아야

여수교육지원청

지난 2020년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큰 시련을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였으며, 갑자기 찾아온 미래 앞에서 새로운 표준과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전남 교육은 그 한복판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하며 희망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배움을 한 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교육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육 현장을 지켜냈습니다. 더불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예고 없이 맞은 원격 수업이었지만 열정을 다해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무난하게 현장에 안착시켰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가동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감염을 최소화했습니다.

일선학교에 상세한 매뉴얼 제공이 되지 않아 혼선

대응 과정에서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과 과감한 결단이 없어 학교운영에 혼란이 있었다는 것과 상세한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일선 학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발생 조치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된 점, 야간 자율학습이 변경된 점, 지침에 따르고 싶어도 학교 환경으로 지킬 수 없었던 점 등을 아쉬워했습니다.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감염공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 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언제 감염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 기록으로 남겨 시스템 구축할 예정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백서를 만들고 대응 매뉴얼을 세운 결과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진 각종 상황대처 및 정책사례, 모범사례들과 특히 ‘학습-돌봄-방역’의 학생 중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사례, 학습과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활동 중심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남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닌, ‘더 나은 재건’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이뤄가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한 발, 한 발은 위기 속에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키워나가는 위대한 걸음입니다. 위기상황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학교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뚝뚝뚝 걸어가겠습니다.

제 4 편

여수시 코로나19 대응백서

부록

- 제1장 우리나라 감염병 발생 현황
- 제2장 여수시 코로나19 영상브리핑 현황
- 제3장 SNS(여수이야기) 코로나19 홍보 현황
- 제4장 코로나19 언론보도 현황
- 제5장 코로나19 후원 현황



I

우리나라 감염병 현황

구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A형 인플루엔자 (H1N1형)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 견 시 점	2002년 11월	2009년 3월	2012년 4월	2019년 12월
유 행 시 기	2002년 11월 ~2003년 7월	2009 4월 ~2010년 8월	2012년 4월 ~ 2015년 12월	2020년부터 현재
발 원 지	중국 광둥성	미국 샌디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우한
감 염 매 개 체	박쥐, 사향고양이	돼지	박쥐, 단봉낙타	박쥐(추정)
국 내 확 진 자	0명	약 15,160명 (19.9.20. 기준)	186명 (15.11. 25. 기준)	18,103,638명 (22.5.31. 기준)
국 내 사 망 자	0명	약 263명 (19.9.20. 기준)	38명 (15.11. 25. 기준)	24,176명 (22.5.31. 기준)

01 사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는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원해 수개월 동안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로 확산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 개 항원군(Ⅰ,Ⅱ,Ⅲ)으로 분류해 왔는데, 사스(SARS)를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새로운 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파경로

환자의 호흡기 비말과 오염된 매개물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감염이 환자의 가족, 접촉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에서 발생했다. 드물게 직장, 비행기, 또는 택시 등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다.

증상

잠복기는 보통 4~6일이며, 초기에는 발열, 권태감,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러다가 발병 2주째가 되면 마른기침,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상이 혼하게 나타난다.

진단 및 치료

PCR 검사 혹은 혈청검사를 통해 양성인 경우 진단을 내린다. 의심 또는 추정 환자는 격리지정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치료가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다. 다만 중증인 경우 스테로이드와 라바비린(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정부대응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16일 WHO(세계보건기구)가 사스 경계령을 발표하자, 즉각적인 사스 경보를 발령한 뒤 정부종합상황실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 기관도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했다.

바이러스 유입 최소화를 위해 중국 등 위험 지역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자 후송, 접촉자 격리 등의 유입 및 확산 차단 대책도 세웠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권역별 격리치료병원 41개소에 총 138병상을 확보해 조기발견 및 치료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242개 보건소는 총 23만 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3개 검역소에서는 5400여 대의 항공기와 탑승객 62만 명, 선박 1만 척과 탑승객 28만 명을 대상으로 검역을 진행했다. 의심환자, 접촉자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상담 전화도 상시 운영해 3,30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또 120여 회의 보도자료 배포와 190여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역 홍보에도 힘썼다.

그러던 중 4월 29일 국내에서도 첫 사스 추정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입국한 이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여 격리조치 됐다. 국립보건원은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그가 탑승했던 중국국제항공 탑승객 전원을 파악해 전원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같은 발 빠른 조치로 2003년 7월 7일 사스 방역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추정 환자 3명과 의심환자 17명 등 총 20명의 환자만 발생했을 뿐, 확진 환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WHO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스에 대처한 나라로 꼽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검역과 방역 기능을 통합했으며 이후 전염병 유행 시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했다.

02 신종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A’가 정식 명칭이다. 2009년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사는 10세 소아가 발열, 기침, 구토 증상으로 첫 진단을 받았고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연구 결과, 신종플루는 ‘돼지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전파경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배출되는 비말이 보통 1~2미터 이내를 날아가서 다른 사람의 손, 눈, 호흡기 등에 묻으면 감염이 된다. 혹은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한다. 하지만 5분 이내로 생존하기 때문에 비누로 씻거나,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를 사용하면 파괴된다.

증상

잠복기는 보통 1~7일이며, 일반적인 계절 독감과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발열, 콧물 혹은 코막힘, 기침,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기기도 한다.

진단 및 치료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을 겪고,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된다. 치료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오셀타미버(oseltamivir)’라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정부대응

2009년 4월 28일,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국가 재난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검역, 환자격리 등의 ‘봉쇄 정책’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뒀다. 공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와 검역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입국자는 전화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확진 환자는 의료기관에 격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2009년 7월 이후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서, 국가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대응 방향을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예방접종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정책으로 선회했다.

11월 3일에는 국가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조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 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더불어 확진자는 ‘의료기관 강제격리’에서 ‘자가치료 및 외출 자제’로 정책을 변경해 경증의 환자들이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해 1,369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했다.

10월 27일부터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 11월 11일부터는 학생, 12월 7일부터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단계적으로 실시됐고, 2010년 1월 4일 이후에는 만성질환자, 건강한 노인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급속히 환자가 감소해 3월 31일 신종인플루엔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체됐다.

03 메르스(MERS)

메르스(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는 2012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다. 자연계에서 사람으로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단봉 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 감염환자의 97%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2015년 5월 20일에 바레인에서 귀국한 한국인이 메르스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도 유입됐다.

전파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비말, 공기 전파 또는 직접접촉을 통한 사람 간 감염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증상

잠복기는 보통 2-14일이며,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과 호흡곤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을 보인다. 합병증으로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사스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치사율이 더 높고 전염성은 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진단 및 치료

검체를 채취해 두 가지 이상의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고 특이 염기서열을 확인하면 메르스로 진단을 내린다.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었다.

정부대응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중동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 24시간 메르스 전담 검사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전염력이 낮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역학조사, 의료기관에 대한 봉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연쇄적인 3차, 4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복지부는 메르스 대응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검역, 역학조사와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과 질병 역학 관련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역학조사 과정을 재검토하고, 6월 3일부터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 11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을 맡았다.

그럼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6월 중순 이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전담팀을 신설한 뒤 13개 병원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하고, 이후 3개 병원을 추가했다. 격리조치에는 코호트 격리와 1인 격리 등이 활용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종식까지 6개월 간 16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38명이 사망해 아쉬움을 남겼다.

II

코로나19 영상브리핑 현황

일자	내용	주재	비고
2020. 3. 27.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대책	시장	영상실
2020. 3. 3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시장	브리핑룸
2020. 4. 7.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대책(2차)	시장	영상실
2020. 8. 21.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입장문 발표	시장	브리핑룸
2020. 9. 15.	코로나19 대응관련 시민당부 (대응상황/ 추석절 이동자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장	브리핑룸
2020. 11. 8.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시장	브리핑룸
2020. 11. 1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보건소장	브리핑룸
2020. 11. 13.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관련(1단계→1.5단계) 담화문 발표	시장	브리핑룸
2020. 11. 2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보건소장	브리핑룸
2020. 11. 27.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보건소장	브리핑룸
2020. 12. 2.	수능관련 코로나19 대응 발표	시장	브리핑룸
2020. 12. 7.	코로나19 추가발생 보고 및 사회적거리두기 격상관련 대시민 당부	시장	브리핑룸
2021. 1. 18.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시장	영상실
2021. 2. 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보건소장	브리핑룸
2021. 2. 2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시장	영상실
2021. 3. 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시장	영상실



III

SNS(여수이야기) 코로나19 홍보 현황

게시일자	내 용
2020. 1. 28.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수칙
2020. 2. 14.	코로나19 청정여수에서 알립니다.
2020. 2. 2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안내
2020. 3. 2.	코로나19 발생현황 보고
2020. 3. 3.	코로나19 특별성금 모금홍보
2020. 3. 5.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한 청사출입 통제
2020. 3. 5.	여수시 코로나19 현황
2020. 3. 5.	힘내라 여수, 힘내라 대한민국
2020. 3. 6.	마스크요일별 5부제 시행안내
2020. 3. 6.	여수시 코로나19 현황
2020. 3. 9.	마스크 요일5부제 시행 및 대리구매 방법 안내
2020. 3. 10.	마스크 5부제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면제
2020. 3. 12.	코로나19 현황
2020. 3. 13.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2020. 3. 13.	코로나19 현황
2020. 3. 16.	코로나19 현황
2020. 3. 17.	코로나19 현황
2020. 3. 25.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2020. 3. 26.	코로나19확진자 거소투표 홍보

게시일자	내 용
2020. 3. 26.	사회적 거리두기
2020. 3. 30.	사회적 거리두기
2020. 3. 31.	여수시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4. 6.	사회적거리두기 2주연장
2020. 4. 7.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8.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10.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13.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14.	사회적거리두기 및 선거당일 마스크 구매
2020. 4. 16.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20.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27.	마스크판매 방법 변경사항 홍보
2020. 4. 28.	생활방역 행동지침 안내
2020. 5. 1.	일상속 소독 안내
2020. 5. 7.	코로나19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2020. 5. 8.	생활방역지침(생활속거리두기)
2020. 5. 11.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
2020. 5. 14.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거리문화공연 연기&이태원방문자 검진권유
2020. 5. 26.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시민공감 토론회 예고
2020. 5. 26.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준수
2020. 5. 29.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생활안정금 지원
2020. 6. 5.	코로나19 극복, 여수시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2020. 6. 23.	생활속거리두기 마스크편
2020. 6. 29.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게시일자	내 용
2020. 6. 30.	생활속거리두기(쇼핑센터편)
2020. 7. 3.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020. 7. 6.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20. 7. 7.	카자흐스탄 입국 코로나19확진자 관련 공지
2020. 7. 13.	생활속 안전수칙 홍보
2020. 7. 13.	여수시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
2020. 7. 2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0. 7. 28.	어린이 통학버스 발열체크 홍보
2020. 7. 28.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전환 및 공공시설 운영재개
2020. 7. 31.	포스트코로나 대응 제안공모
2020. 8. 14.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마감 안내
2020. 8. 20.	수도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2020. 8. 24.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임시휴업
2020. 8. 25.	2020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기간제모집 공고
2020. 8. 25.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Q&A
2020. 8. 26.	순천확진자 이동동선 안내 및 선별진료소 방문요청
2020. 8. 26.	여수 낭만버스 시티투어 운행중지
2020. 8. 27.	광주확진자 여수방문 동선공개
2020. 9. 2.	단기 전세버스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2020. 9. 1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변경안내
2020. 9. 18.	언택트 낭만&청춘버스킹
2020. 9. 25.	정부2차재난지원금(통신비편)
2020. 9. 25.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편
2020. 9. 25.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편

게시일자	내 용
2020. 9. 25.	정부2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편)
2020. 9. 28.	추석연휴 낭만포차 임시휴업
2020. 10. 6.	여니수니 마스크착용 홍보
2020. 10. 13.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2020. 10. 15.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2020. 10. 23.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2020. 10. 28.	코로나19 지금까지 걸어온 길
2020. 11. 5.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개편 홍보
2020. 11. 9.	마스크착용 행정의무화 홍보
2020. 11. 12.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2020. 11. 16.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역수칙 안내
2020. 11. 18.	사회적 거리두기별 마스크착용의무대상 변경
2020. 11. 25.	여수시민협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2020. 11. 30.	stayhome
2020. 12. 8.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020. 12. 14.	온택트로 만나보는 여수시
2020. 12. 15.	확진자 동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2020. 12. 24.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안내
2020. 12. 29.	주요 해넘이, 해맞이 명소 교통통제 및 가족간 모임금지
2020. 12. 3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0. 12. 31.	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급
2021. 1. 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1. 6.	낭만포차 임시휴업 및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2021. 1. 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내

게시일자	내 용
2021. 1. 18.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2021. 2.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2. 4.	긴급재난지원금 주말, 평일 야간 운영 주민센터 홍보
2021. 2. 9.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 완화
2021. 2. 10.	설연휴기간 엑스포역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2021. 2. 10.	설 명절기간 삼산면사무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1. 2. 2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마감 안내
2021. 2. 26.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2021. 3. 8.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2021. 3. 11.	1인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 3. 15.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021. 3. 29.	코로나19백신접종 기간중 흥국체육관 공영주차장 운영안내
2021. 3. 30.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2021. 3. 30.	외국인 무자격체류자 등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2021. 5. 3.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
2021. 5. 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공공시설 휴관 및 운영 안내
2021. 5. 7.	유흥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 5. 10.	코로나19 백신 5월 사전예약 일정
2021. 5. 1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5. 11.	국동임시별관 청사폐쇄
2021. 5. 13.	국동임시별관 청사폐쇄 해제
2021. 5. 14.	주말 선별진료소 운영
2021. 5. 15.	주말에도 잠시 멈춤
2021. 5. 17.	진단검사 후 이동 자제 안내

게시일자	내 용
2021. 5. 18.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운영 안내
2021. 5. 18.	서시장 주변 노점 5일장 임시폐쇄
2021. 5. 24.	전남도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
2021. 5. 24.	전남도 개편안 1단계 적용 공공시설 이용 안내
2021. 5. 25.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협조 안내
2021. 5. 30.	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021. 6. 14.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3주 연장
2021. 6. 29.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일정
2021. 7. 1.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021. 7. 6.	입영장병 접종예약 안내
2021. 7. 12.	전라남도 특별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
2021. 7. 12.	50~5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1. 7. 14.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2021. 7. 15.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021. 7. 19.	전라남도 방역수칙 개편안 안내
2021. 7. 20.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격상
2021. 7. 26.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운영
2021. 7. 28.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
2021. 8. 4.	18~49세 청장년층 백신접종 일정 안내
2021. 8. 6.	전라남도 특별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
2021. 8. 7.	50~5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1. 8. 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2021. 8. 23.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2021. 9. 3.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게시일자	내 용
2021. 9. 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2021. 9. 6.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A to Z
2021. 9. 1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계획 안내
2021. 9. 23.	2차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2021. 9. 24.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공연관련업체)안내
2021. 9. 24.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노래연습장) 안내
2021. 9. 24.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체육시설) 안내
2021. 9. 27.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2021. 10. 1.	타지역 방문 시 진단검사 권고
2021. 10.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2021. 10. 6.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
2021. 10. 8.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2021. 10. 14.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2021. 10. 1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2021. 10. 26.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2021. 10. 28.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미신청자 신청 안내
2021. 11.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차 개편) 방역수칙 안내
2021. 11. 2.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1인자영업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사회보험료 지원
2021. 11. 19.	보건소(본소) 및 육지보건지소 진료 등 업무 잠정중단 안내
2021. 11. 23.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2021. 11. 24.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2021. 12. 10.	방역패스 안내
2021. 12. 13.	60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 안내
2021. 12. 16.	재택치료 안내

게시일자	내 용
2021. 12. 16.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2021. 12. 23.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 주간 안내
2021. 12. 2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사용 안내
2021. 12. 30.	연말연심 거리두기 홍보
2022. 1. 3.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조치 기간 연장 안내
2022. 1. 6.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안내
2022. 1. 7.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2022. 1. 7.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안내
2022. 1. 8.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변경 내용 안내
2022. 2. 4.	코로나19 진료 가능 병원, 약국 등 안내
2022. 2. 7.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2022. 2. 9.	신속항원 검사 가능한 병의원 명단 안내
2022. 2. 21.	전라남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2022. 2. 23.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2022. 2. 28.	방역, 재택치료 방법 변경 안내
2022. 2. 28.	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 안내
2022. 3. 4.	사회적거리두기 주요 내용 안내
2022. 3. 18.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2022. 3. 21.	임신부 신속항원키트 신청 안내
2022. 3. 25.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제도 안내
2022. 3. 31.	코로나19 AI 민원상담 시스템 운영 안내
2022. 4.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신청 안내
2022. 4. 1.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사항 안내
2022. 4. 18.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사항 안내

IV

코로나19 언론보도 현황



01.

- 1.29. 여주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응체계 돌입
- 1.31. 여주시 만덕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앞장서

02.

- 2.3. 여주시, 관광분야 신종 코로나 긴급 대응 나서
- 2.4. 여주시, 신종 코로나 유관기관사회단체와 긴급 대책회의
- 2.4. 여주시, 신종 코로나 긴급 재난관리기금 4600만 원 투입
- 2.6. 여주시, 신종 코로나로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 2.12. 여주시·유관기관, 신종코로나 대응 위해 머리 맞대
- 2.13. 여주시, '꿈뜨락몰' 신종 코로나 집중 방역 실시
- 2.17. 코로나19 혈액 부족...여주시 응급 혈액 확보 헌혈
- 2.20. 여주시, "코로나19...침체된 지역경제 살리자" 총력전 펼쳐
- 2.20. 여주시 충무동, "코로나19 저리가" 주민주도 방역소독
- 2.21. 여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코로나19 예방 경로당 방역 봉사
- 2.24.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총력 대처
- 2.26. 여주시 위생단체협의회,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나서
- 2.27. 여주시, 코로나19 차단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실시
- 2.28. 여주시, 코로나19 차단 위해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2.28. 여주시 곳곳 코로나19 차단방역, '주민들 나선다'
- 2.29.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 기자회견

03.

- 3.2. "코로나19 확산 막자"...여주시 공무원 휴일 반납하고 방역 봉사
- 3.5. 여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청사 출입관리 강화
- 3.6. 권오봉 여주시장, 순천·광양과 코로나19 공동대응 나서
- 3.9. "우리 다함께 이겨냅시다" 여수 곳곳 코로나19 예방방역
- 3.10.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여주시 작은 기부 물결
- 3.11. 여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 시민 일제방역' 실시
- 3.12. 여주시 자원봉사단체, 코로나19 극복위해 자원봉사 잇따라
- 3.13. 여주시 공무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음식점 이용 앞장'
- 3.13. 여주시 곳곳,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이어져
- 3.17. 여주시 공직자,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특별모금 기탁
- 3.19. 여주시, 코로나19 극복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 운영
- 3.20. 권오봉 시장,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역경제상황 점검 및 대책논의
- 3.24.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분들께 써달라" 여주시 익명의 기부자
- 3.25. "제54회 여수거북선축제 취소"...코로나19 확산 차단
- 3.25. 여주시, 코로나19 조기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회의' 열어
- 3.30. 여주시, "코로나19 극복하자" 전 공무원 급여 기부 동참
- 3.30. 여주시, 코로나19 극복 '위생단체협의회와 긴급 간담회'
- 3.31.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영상브리핑
- 3.31. 여주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04.

- 4.6. 여주시, 코로나19 위기극복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 4.7. 여주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1,189억원대, '전 세대 지원'
- 4.8. 여주시, 저소득 가구에 '코로나19 극복, 희망 박스' 전해
- 4.9. 여주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접수
- 4.9. 여주시, 코로나19 여파 어린이날 행사 전면 취소
- 4.10. 여주시, "코로나19 막아라" 민간 체육시설 점검 강화
- 4.14. 여주시, 코로나19 예방 유흥시설 등 집중 점검
- 4.14. 여주시산림조합, '코로나19 피해 특별모금 동참'
- 4.23.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현장 찾아
- 4.24.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한 초등학교의 용돈 기부
- 4.27. 여주시 공무원, 코로나19 고통분담 '급여 반납액' 기탁
- 4.27. 여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 지원금' 지급

05.

- 5.1.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관광종합대책반 운영 총력!
- 5.6. 여주시 자원봉사단체, 황금연휴에도 코로나19 차단 ‘구슬땀’
- 5.7. 여주시, 코로나19 극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 5.8. 여주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근로자 지급 기준 ‘대폭 완화’
- 5.12. 여수청년회의소, ‘코로나19 고통분담’ 후원금품 기탁
- 5.26. “코로나19 차단하자” 여수청년회의소 방역 ‘구슬땀’
- 5.28. “코로나19 극복” 여수낭만포차 상인들, 김치 나눔 ‘훈훈’

06.

- 6.4. 여주시,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50만 원 지원
- 6.5. 여주시, 코로나19 확산예방 ‘현충일 추념행사’ 간소화
- 6.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주시, 관광 재도약 ‘힘찬 도움달기’
- 6.23. 권오봉 여주시장, 맘카페와 코로나 좌담회 ‘훈훈’
- 6.23.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 6.24. 여주시, 웅천해수욕장 코로나19 ‘안심 예약제’ 시범 운영
- 6.25. 여주시, ‘민간체육시설’에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07.

- 7.3.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자”…24일 여주시 시민공감 토론회
- 7.9. 여주시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 ‘SNS패널 모집’
- 7.13. 여주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 7.13. 코로나19 확산 예방…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 “취소”
- 7.23. 여주시,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 24일 개최
- 7.23. 여주시, 포스트코로나시대 ‘온라인 독서 서비스’ 제공
- 7.27. 여주시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 ‘성료’
- 7.27. 안심식당·1인 찬기… “코로나19 청정도시 여수 만들어요”
- 7.27. 여주시, 코로나19 ‘경로식당 대체식’ 배달, “근심 반, 건강 가득”
- 7.29. 여주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어린이집 소통·지원 ‘앞장’
- 7.30. 여주시, “코로나19 우울감 날려줄 ‘걷기 실천’ 도전하세요”
- 7.30. 여주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아이디어 공모
- 7.31. 여주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견문보고제 집중 운영

08.

- 8.5. 코로나19 혈액 부족…여주시, ‘응급 혈액 확보’ 헌혈 나서
- 8.10. 여주시, ‘안전신고 전담 담당관제’…코로나19 방역 ‘앞장’

- 8.18.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점검
- 8.21.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입장문 발표
- 8.27. 여수 곳곳,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달래줄 가을꽃 식재…
- 8.28. 코로나19 공동대응 …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영상회의 개최

09.

- 9.1. 여주시,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공직자부터 총력 ‘준수’
- 9.1. 올해 3회째 맞는 ‘여수동동북축제’, 코로나19로 취소
- 9.1. 국내 3대 관악제 ‘여수마칭페스티벌’, 코로나19로 취소
- 9.2.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개최
- 9.2. 여주시, 독감 예방 접종 “전시민 지원”…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 9.4. 여주시, 코로나19 대비 ‘강화된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동
- 9.7. 올해 13회째 맞는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코로나19로 취소
- 9.7.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순연’
- 9.9. 여주시, 코로나19 극복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지원”
- 9.14. 여주시청, 시민 안전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부스’ 설치
- 9.15. 권오봉 여주시장, “코로나19 청정여수는 시민 협조 덕분”
- 9.24. 여주시, 공공청사·전통시장 “전화 한 통으로 코로나19 출입관리”
- 9.29. 여주시, 추석 대비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물품 긴급지원’
- 9.29. 여수에 ‘코로나19 종식 기원’ 마스크 쓴 여니·수니 등장
- 9.29. 여주시, 추석 ‘코로나 19 방역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10.

- 10.6. 여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접수
- 10.8. 여주시, 코로나19 영업 중단 ‘목욕장업 긴급 경영자금’ 지원
- 10.13. 여주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80명 모집
- 10.20. 여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제 폐지
- 10.27. 여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대폭 완화
- 10.28. 여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돌입

11.

- 11.10. 여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1주일 연장
- 11.13. 여주시, 코로나19 음식문화개선 민간 합동 캠페인 전개
- 11.25. 여주시, 포스트코로나시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앞장’
- 11.27. 여주시, 코로나19확산 차단 … 실내민간체육시설 집중 점검



12.

- 12.2. 권오봉 여수시장, 수능 전후 코로나19 학생 안전에 총력
- 12.4. 포스트코로나시대, 여수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인기'
- 12.7. 권오봉 여수시장,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모임 식사 자제를"
- 12.23. 여수시, "코로나19 속에 더 빛났다"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 12.28.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 '공동선언문 채택'
- 12.30. 여수시, "코로나19막자"주요 해넘이·해맞이 명소 '일시 폐쇄'

01.

- 1.25. 여수시, "감염병 차단"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 1.26. 여수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5만원 2월부터 신청
- 1.28. 권오봉 여수시장, 긴급재난지원금 나눔 캠페인 '앞장'
- 1.29. 여수시,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우울 극복 심리상담 지원

02.

- 2.2. 여수시, "안전한 명절 지킨다"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 2.3. 권오봉 여수시장, "안전한 설" 유관기관 현장근무자 격려 나서
- 2.3. 코로나19로 혈액 부족...여수시, 5일 응급 혈액 확보 헌혈
- 2.4. 여수시, 흥국체육관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마련
- 2.4. 여수시, "코로나19로 비타민D 부족" 무료검사 실시
- 2.8. 여수시, 설 연휴기간 엑스포역에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 2.10. 권오봉 여수시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완벽 준비'
- 2.10. 권오봉 여수시장, '귀성객 방역수칙 준수' 홍보 나서
- 2.11. 여수시, 설 연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특별 점검
- 2.2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수시보건소 도착, 26일 예방접종 시작
- 2.26. 여수시,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9개월 대장정 돌입

03.

- 3.2. 여수시,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 코로나19로 약식 개최
- 3.2. 여수시, 3월 새학기 거리두기 실천 당부 ... "경각심 높일 것"
- 3.3. 여수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힘내세요" 지방세입 지원 마련
- 3.4. 여수시, 제29회 영취산 진달래축제 취소 "방문 자제 당부"

04.

- 4.1. 여수시, 청명 한식 기간 '여수영락공원 사전예약제' 운영
- 4.1. 여수시, "코로나19 마음방역" 블루엔딩 정신건강 캠페인
- 4.9. 여수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원
- 4.13. 여수시, 조기 접종 대상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

05.

- 5.3. 코로나19 피해 지원! 여수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 5.3. 여수시, 5월 4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5.13. 여수시,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로 감염 사전 차단
- 5.14.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 나서
- 5.17. 여수시, 코로나19 전 시민 특별방역주간 운영
- 5.18. 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대응 '민·관 힘 모아 해법찾기' 나서
- 5.20.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 5.21. 여수시, 가족간 n차 감염 허위진술 의심사례 고발방침
- 5.23. 여수시, 24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5.26. 여수시, 27일부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06.

- 6.14. 여수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으면 이런 혜택이..."
- 6.15. 여수시, 백신 접종 '인증 배지' 지급...일상회복 기대감 '성큼'
- 6.23. 여수시, 코로나19 위기극복 '다양한 청년정책' 눈길
- 6.24. 여수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납세자 지원책 '호응'

07.

- 7.20. 여수시,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제한...집중점검 실시
- 7.20. 여수시, "유치원 집단감염" 22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7.21. 여수시, "여름 휴가 방역수칙 준수" 관광지 방역관리 강화
- 7.27.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 7.28. 여수시, 내달 8일까지 3단계 ... 해양공원 등 18시부터 취식 금지
- 7.29. 여수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심콜로 출입기록 "격정 뚫"
- 7.30. 여수시, '긴급 이동 멈춤 주간' 위생업소 특별점검

08.

- 8.1. 여수시 '긴급 이동 멈춤' ... 전 시민 동참 속 "확진자 감소세 뚜렷"
- 8.5. 여수시, 코로나19에도 공백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안심 ↑"
- 8.5. [포토] 권오봉 여수시장, 주요 관광지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 8.6. 여수시, 18세~49세 청장년층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8.7. 여수시, 변이바이러스 확산세 속 강도높은 방역수칙준수 당부
- 8.10. [포토]권오봉 여수시장, 폭염 속 '선별검사소' 직원 격려 나서
- 8.11. 여수시, 코로나19 확산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취소
- 8.17. 여수시, 올해 '시민의 날' 및 제23회 시민체육대회' 취소
- 8.18. 여수시, "타 지역 방문, 외지인 접촉" 반드시 진단검사를
- 8.23. 여수시,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09.

- 9.2. 여수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 시작
- 9.6. 여수시, "코로나 우울 날려요" 재가 장애인 사회·문화체험 운영
- 9.17. 여수시, "추석 연휴 이동과 만남 최소화해주세요"
- 9.17. 권오봉 여수시장, '귀성객 방역수칙 준수' 홍보 나서
- 9.27. 여수시, 코로나19 대응 취약분야 간담 대책회의 개최
- 9.28. 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중점단속
- 9.28. 여수시,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힘내세요" '응원 키트' 전달

10.

- 10.1. 권오봉 여수시장, "타 지역 방문자 PCR 검사 후 현장복귀" 당부
- 10.5. 권오봉 여수시장, "타 지역 방문자 PCR 검사 후 현장복귀" 당부
- 10.20. 여수시, 위드 코로나 맞아 민·관이 '관광활성화'에 머리 맞대

11.

- 11.2. 여수시, '단계적 일상회복' 맞아 관광종합대책반 운영 연장
- 11.8. 여수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책 "백신접종 받으세요"
- 11.10. 여수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꼭 지켜주세요"
- 11.15. 여수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목욕장업 전수점검 실시
- 11.16. 여수시, "소아·청소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받아주세요"
- 11.17. 여수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99.1% 지급
- 11.18. 여수시, 초·중등생 감염 확산 ... 백신 접종, 청소년 외출자제 당부
- 11.23. 권오봉 여수시장, "경제회복 지연 시 내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2.

- 12.2. 여수시·관광업계, 지속가능한 관광과 방역 성공 방안 논의
- 12.6. 여수시, 웰니스·온택트관광 개발 ... 고품격 해양관광 추진 '박차'
- 12.7. 여수시, 관광 발전 심포지엄 ... "위드코로나, 새로운 돌파구 모색"
- 12.8. 여수시,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안전한 일상회복 돕는다"
- 12.14. 여수시, "코로나19 확산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캠페인 실시
- 12.22. 권오봉 시장, 연말연시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호소
- 12.24. 여수시, '긴급 이동 멈춤 기간' 위생업소 방역현장 점검
- 12.27.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 27일부터 접수 시작
- 12.27. 권오봉 여수시장,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발표
- 12.29. 여수 오동도, 코로나19로 2022 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01.

- 1.2. 여수시, 2022 향일암 일출 ... 랜선으로 전국에 생중계
- 1.5. 권오봉 여수시장, "일상회복지원금, 지금이 지급 적기"
- 1.7.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 이달 24일부터 지급
- 1.12. 여수시, 코로나19 대응 수산단체 긴급간담회 개최
- 1.17.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17일부터 신청 접수
- 1.20. 여수시, 설 연휴 "시민 안전 최우선" ... 종합대책에 총력
- 1.21. 여수시, '오미크론 막아라' ... 취약시설 특별점검 실시
- 1.24. 여수시·사)여수시관광협의회, '설 연휴 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 1.24.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24일부터 1인당 20만원 지급 시작
- 1.26. 권오봉 여수시장, '긴급 이동멈춤' 호소...오미크론 막자
- 1.27. 지금 여수!! '전 시민 일제 자가검사' 참여 캠페인
- 1.28. 여수시, 설 연휴 귀성객 '방역수칙 준수' 홍보 나서

02.

- 2.3. 여수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선택 아닌 필수'
- 2.4. 여수시, 선별진료소 3개소 이어 '우리동네 자가검사소' 5개소 운영
- 2.4. 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총력 대응

- 2.6. 여주시 '우리동네 자가검사소', 주말 이틀 동안 4,749명 찾아
- 2.8. 여주시, 코로나19로 야외활동 감소... '비타민D 무료검사' 실시
- 2.9. 여주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재택치료 개편 안내
- 2.14. 여주시, 주민세 전액 감면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
- 2.21. 여주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95.9% 지급...25일까지 접수

03.

- 3.2. 제30회 여수영취산진달래체험행사 취소 ...“오미크론 막자”
- 3.3. 여주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
- 3.4.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세요”, 여주시 ‘안심식당’ 연중 모집
- 3.29. 여주시,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3.31. 여주시, ‘위생단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가져
- 3.31. 여주시, 코로나19 ‘AI(인공지능) 상담센터’ 도입

V

코로나19 후원 현황

일시	후원 단체	후원 내용
2020. 2. 5.	웅천캐슬디아트	마스크 1,200매(180만원 상당)
2020. 2. 5.	LG화학 여수공장	마스크 1,200매, 손소독제 80개(150만원 상당)
2020. 2. 5.	LG화학 여수공장	마스크 1,200매, 손소독제 120개(192만원 상당)
2020. 2. 17.	웅천캐슬디아트	마스크 1,200매(180만원 상당)
2020. 2. 28.	푸른약국	마스크 20매
2020. 3. 2.	공효진(개인)	마스크 90매(36만원 상당)
2020. 3. 2.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휴대용 손소독제 300개(100만원 상당)
2020. 3. 2.	좌수영새마을금고	현금 402만원
2020. 3. 2.	광주은행 본점	현금 1,000만원
2020. 3. 3.	국립여수검역소	샌드위치, 주스(30만원 상당)
2020. 3. 3.	여주시 의사회	던킨도너츠 4박스(8만원 상당)
2020. 3. 3.	여수시공무원노동조합	빵, 두유(50만원 상당)
2020. 3. 4.	시의원 고희권	방울토마토 등(12만원 상당)
2020. 3. 4.	시경아스콘	현금 1,000만원
2020. 3. 5.	주민자치위원회	마스크 560매(100만원 상당)
2020. 3. 5.	원조황소식당	현금 5,000,000원
2020. 3. 5.	여수시교육청	토마토 1박스 등(8만원 상당)
2020. 3. 5.	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	떡(5만원 상당)
2020. 3. 5.	여수시의회	떡, 식혜 등(20만원 상당)
2020. 3. 5.	동양교통	수제마스크 재료(200만원 상당)

일시	후원 단체	후원 내용
2020. 3. 5. ~ 2020. 3. 16.	여성문화회관강사 및 수강생 (총 316명)	수제마스크 4,200매 (1,470만원 상당)
2020. 3. 5. ~ 2020. 3. 13.	여주시생활개선회(우리웃연구회)	수제마스크 1,000매 (300만원 상당)
2020. 3. 6.	시의원 강재현	샌드위치 등 (6만원 상당)
2020. 3. 6.	여주시 약사회	박카스 5박스 (10만원 상당)
2020. 3. 6.	(주)와이엔텍	지역사랑 상품권 50,000원, 현금 3,000만원
2020. 3. 9.	시의원 백인숙	점심식사 (30만원 상당)
2020. 3. 9.	송광행복타운	마스크 4,800장 (500만원 상당)
2020. 3. 10.	청원시공	현금 200백원
2020. 3. 10.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현금 1,000만원
2020. 3. 11.	쿠키아	두부과자 72박스 (432만원 상당)
2020. 3. 11.	여수수협	현금 500만원
2020. 3. 11.	여수수협	헌혈 참여 (100명)
2020. 3. 11.	여주시여성단체협의회	갓김치 240박스 (450만원 상당)
2020. 3. 11.	여수화력남동발전	마스크 300매, 손세정제 15개 (135만원 상당)
2020. 3. 11.	(주)대림산업	마스크 300매, 소독제 1,200개 (200만원 상당)
2020. 3. 11. ~ 2020. 3. 12.	여수축협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2020. 3. 12.	여수전남병원	떡 1박스 (15만원 상당)
2020. 3. 12.	여수한국병원	떡 2박스 (10만원 상당)
2020. 3. 12.	종민이네웃수선	면마스크 60매 (24만원 상당)
2020. 3. 13.	익명	현금 20만원, 마스크 75매 (11만원 상당)
2020. 3. 13.	국제기계	자동분말소독기 (20만원 상당)
2020. 3. 13.	포도원교회	박카스 1,000병 (15만원 상당)
2020. 3. 13.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부	생수 9,000개, 살균소독제 (90만원 상당)
2020. 3. 13.	한국한센인협회 광주전남지부	비타500 500병 (5만원 상당)

일시	후원 단체	후원 내용
2020. 3. 13.	대성건설	현금 5,000만원
2020. 3. 15.	엄마의 마음으로	수제 마스크 60매 (15만원 상당)
2020. 3. 16.	와이엔텍	여수시상품권 52만원
2020. 3. 16.	명신수산	문어장 170통 (170만원 상당)
2020. 3. 16.	임포마을 상가번영위원회	갓김치 250kg (250만원 상당)
2020. 3. 16.	여수하트맘케어	손소독제 300개 (150만원 상당)
2020. 3. 16.	여주시청	현금 1,954만원
2020. 3. 17.	한국농촌지도자 여주시연합회	현금 100만원
2020. 3. 17.	코리아월드서비스(주)	백미 10kg 60포, 20kg 32포 (400만원 상당)
2020. 3. 17.	LGMMA	마스크 2,000매, 손소독제 210개 (1,000만원 상당)
2020. 3. 17.	민주평통여주시협의회	마스크 200매 (40만원 상당)
2020. 3. 18.	삼남석유화학	현금 981만원
2020. 3. 19.	미래발전위원회	두유 48팩 (4만원 상당)
2020. 3. 19.	김영준	여수시상품권 30만원
2020. 3. 19.	(유)KMT	현금 2,000만원
2020. 3. 19.	한화솔루션	현금 2,000만원
2020. 3. 20.	문수동 성결교회	면마스크 120매 (18만원 상당)
2020. 3. 20.	와이즈맨 오션클럽	보약 10재 (30만원 상당)
2020. 3.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312만원
2020. 3. 20.	전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현금 864,000원
2020. 3. 20.	백광산업	락스 4,800통 (1,000만원 상당)
2020. 3. 23.	익명	현금 52,000원
2020. 3. 23.	재원산업	현금 1,000만원
2020. 3. 23.	대한한돈협회	한돈 2kg 388박스 (700만원 상당)

일시	후원 단체	후원 내용
2020. 3. 24.	전라남도 청년CEO협회	면마스크 110매 등 (173만원 상당)
2020. 3. 24.	아름79치과의원	현금 200만원
2020. 3. 24.	중국 하이하이시	마스크 15,000매 (540만원 상당)
2020. 3. 25.	GS 칼텍스	구호물품 56박스 (200만원 상당)
2020. 3. 25.	이현진	면마스크 24매 (6만원 상당)
2020. 3. 25.	소라면 이장단협의회	마스크 560매 (100만원 상당)
2020. 3. 25.	물사랑나눔단	살균소독제 60개 (60만원 상당)
2020. 3. 25.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마스크 260매 (65만원 상당)
2020. 3. 25.	주향교회	현금 600만원
2020. 3. 26.	여수수협(서남해,잠수기 등 합동)	마스크 (5,000만원 상당)
2020. 3. 26.	울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돌산갓김치 5kg 50박스 (65만원 상당)
2020. 3. 26.	송광행복타운	면마스크 70개 (18만원 상당)
2020. 3. 27.	이정희	현금 150만원
2020. 3. 27.	여수 YMCA 아이쿱	과자 및 음료수 2박스 (10만원 상당)
2020. 3. 27.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마스크 120매 (6만원 상당)
2020. 3. 27.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1,392,000원
2020. 3. 30.	더불어민주당	마스크 200매 (30만원 상당)
2020. 3. 30.	전남CBS	바나나 등 과일 (6만원 상당)
2020. 3. 30.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면마스크 4,500매 (1,000만원 상당)
2020. 3. 30.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	돼지고기 2kg (2만5천원 상당)
2020. 3. 31.	임정근	현금 15만원
2020. 3. 31.	여서동주민자치회	마스크 600매 (100만원 상당)
2020. 3. 31.	한려새마을금고	현금 50만원
2020. 3. 31.	농협여수시지부	농산물꾸러미 200박스 (1,000만원 상당)
2020. 3. 31.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	손소독제 22개, 면마스크 49매 (25만원 상당)

일시	후원 단체	후원 내용
2020. 3. 31.	송광행복타운	면마스크 30매 (9만원 상당)
2020. 3. 31.	허형진	마스크 6매 (1만5천원 상당)
2020. 3.	동문동체육회	현금 20만원, 방역약품 (20만원 상당)
2020. 3.	동문동체육회	현금 30만원
2020. 3.	다이소 여수종화점	현금 50만원, 마스크포장지 1,500장 (30만원 상당)
2020. 3.	카페베네 여수해양공원점	현금 200만원
2020. 3.	주민자치위원회	현금 10만원
2020. 3.	새마을협의회	현금 30만원
2020. 3.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진복 20벌, 마스크 10매 (17만원 상당)
2020. 3.	동문동주민센터	마스크 100매 (20만원 상당)
2020. 3.	효드림 복지관	마스크 100매 (20만원 상당)
2020. 3.	주민자치위원회	현금 20만원
2020. 3.	동여수새마을금고	현금 200만원
2020. 3.	종고산사우나	현금 30만원
2020. 3.	서선화	현금 100만원
2020. 3.	통장협의회	현금 100만원
2020.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금 100만원, 방역약품 (20만원 상당)
2020. 3.	오동도펜션	현금 100만원
2020. 4. 1.	향기담은떡집	시루떡 등 4박스 (20만원 상당)
2020. 4. 1.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	현금 1,000만원
2020. 4. 1.	여수시장	현금 1,040만원
2020. 4. 2.	익명	현금 20만원, 마스크 48매 (7만원 상당)
2020. 4. 2.	바디와이즈아시아	여성위생용품 850박스 (3,880만원 상당)
2020. 4. 3.	쌍봉동통장단협의회	식료품 (100만원 상당)
2020. 4. 3.	중국 리수이시	마스크 50,000매 (1,800만원 상당)

일시	후원 단체	후원 내용
2020. 4. 6.	여수지역 레미콘협회 산화레미콘	현금 500만원
2020. 4. 6.	365섬의 낭만	주방세제5개, 락스8개, 자연샘12개, 세탁세제12개, 세탁용가루비누4개 (27만원 상당)
2020. 4. 7.	국제라이온스협회355-B3지구	공기청정기 2대 (124만원 상당)
2020. 4. 9.	국동주민자치위원장	빵 세트 (100만원 상당)
2020. 4. 9.	남해화학	농산물 꾸러미 (3,000만원 상당)
2020. 4. 9.	여수 JCS호텔	커피믹스 4박스 (7만원 상당)
2020. 4. 9.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소독액, 손소독기, 분무기 (1,500만원 상당)
2020. 4. 10.	여수시공무직노동조합	현금 50만원
2020. 4. 13.	여수시 산림조합	현금 1,000만원
2020. 4. 13.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33만원
2020. 4. 13.	윤도희	마스크 60장 (12만원 상당)
2020. 4. 14.	남해화학	쌀, 부식류 (160만원 상당)
2020. 4. 16.	전남주간보호시설협회	자외선살균 소독기, 비접촉식 체온계, 공기청정기, 마스크 (635만원 상당)
2020. 4. 16.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손소독제, 바디로션, 바디워시, 핸드크림 각 24개, 물티슈 36개, 라텍스장갑 12개, 세탁세제 24통, 살균스프레이 36개 (120만원 상당)
2020. 4. 17.	테크니션스쿨	현금 200만원
2020. 4. 20.	(주)한양	마스크 2,000개 (200만원 상당)
2020. 4. 20.	코리아월드서비스(주)	백미 10kg 120포 (420만원 상당)
2020. 4. 20.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마스크 50매 (75,000원 상당)
2020. 4. 20.	정인아, 정인호	현금 123,000원, 마스크 22매 (33,000원 상당)
2020. 4.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소독제 32개 등 (116만원 상당)
2020. 4. 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손소독제 4개, 바디로션 2개, 바디워시 10개, 라텍스장갑 1개, 세탁세제 2개, 살균스프레이 (75만원 상당)
2020. 4. 22.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마스크, 손소독제, 생필품 등 (120만원 상당)
2020. 4. 22.	여수향토요리문화원	커피콩빵 60박스, 경옥고 60세트 (450만원 상당)
2020. 4. 23.	전찬누리	현금 20만원
2020. 4. 23.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	현금 80만원

일시	후원 단체	후원 내용
2020. 4. 25.	화양면주민자치위원회(27명)	관내 경로당 방역봉사활동
2020. 4. 27.	씨에스나무병원	면마스크 400매, 손소독제 36개 (141만원 상당)
2020. 4. 27.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여수시지회	현금 100만원
2020. 4. 29.	여수시약사회	현금 1,040만원
2020. 4. 29. ~ 2020. 5. 1.	여수시 공직자	비접촉식 체온계 180개 (18만원 상당)
2020. 5. 4.	김일봉	현금 10만원
2020. 5.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	현금 100만원
2020. 5. 6.	여천NCC	경로식당 아크릴 칸막이 (120만원 상당)
2020. 5. 8.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마스크 400매 (60만원 상당)
2020. 5. 10.	(주)유탐건설	현금 1,000만원
2020. 5. 11.	지덕준	현금 100만원
2020. 5. 11.	여수청년회의소	현금 380만원, 갓김치 1.3kg 100박스 (120만원 상당)
2020. 5. 12.	바다푸드마트	백미 10kg 20포 (100만원 상당)
2020. 5. 12.	한화솔루션	편백나무소독제 20L 4개, 분무기 70개 (84만원 상당)
2020. 5. 13.	율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열무김치 5kg 50박스 (200만원 상당)
2020. 5. 20.	파트A	현금 1,000만원
2020. 6. 8.	여수시 법인택시협의회	백미 20kg 200포 (1,200만원 상당)
2020. 6. 26.	(주)티에스케이워터	현금 300만원
2020. 6. 26.	(주)누리	현금 200만원
2020. 6. 26.	(주)평화엔지니어링	현금 50만원
2020. 9. 2.	전라남도	마스크 57,330매
2020. 10. 12.	(유)신진테크	손소독제 2500병 (2,500만원 상당)
2020. 12. 31.	경성물산(주)	마스크 20,000매 (1,000만원 상당)
2021. 1. 12.	경성물산(주)	마스크 2,000매 (200만원 상당)
2022. 6. 21.	선거관리위원회	발열체크기 30개

여수시 코로나19 대응백서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여수시 기획예산과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www.yeosu.go.kr

편집·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조은

이 책의 저작권 및 판권은 여수시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여수시 코로나19 대응백서